금주의 법구-〈잡아함경〉
남의 약점을 들추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라.
정의로 마음 속을 살펴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월 2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36호 2017년 2월 22일 수요일

종교인 노후복지, 공적연금체계 지원 절실

국민연금연구원 실태 조사 보고서 지적

종교인들의 노후 복지를 위해 공적연금과 교단 연금체계 등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인들의 노후보장 욕구수준에 비해 준비수준이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1월 발간한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에 따르면 종교인들이 노후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수준은 평균 3.07점(5점 척도)이다. 불교가 3.37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신교 3.11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천주교는 2.71점으로 노후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교단(종단) 별로 구분하면 조계종이 3.53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개신교는 감리회(3.26)가 가장 높았고 예장합동 · 예장통합(3.12), 기장(2.80) 순이었다. 태고종은 2.82점으로 낮게 집계됐으며, 천주교는 이보다 더 낮았다.

종교인들의 이 같은 노후 걱정은 월평균 수입과 교단별 노후복지제도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종교인 월평균 수입은 개신교가 202.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에 비해 천주교(102.27만원)와 불교(99.77만원)는 절반 수준이었다.

또한 종교인 국민연금 가입률은 천주교가 55.6%로 집계돼 개신교(34.7%), 불교(31.8%)보다 비교적 노후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대 종교 모두 일반인 가입률(69.3%)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게다가 불교와 천주교는 자체적인 연금제도가 없고, 개신교가 연금형태 현금지원제도를 갖고 있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실질 적용자 비중은 1/3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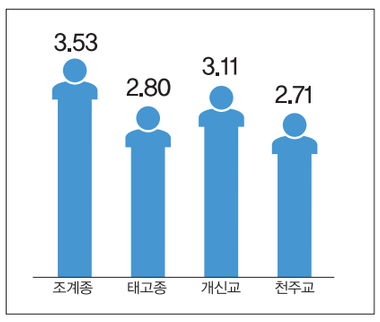
'노후준비 수단 없음' 불교 最多

조사에서 종교인들은 '의료(3.52점)'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의식주(3.15점), 여가(2.93점) 순이었다. 특히 불교는 3가지 기본 욕구영역에서 타 종교 종교인들에 비해 욕구 수준이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준비상태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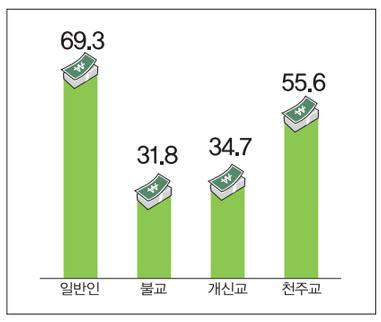
노후에 겪게 될 어려움이나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종교인들이 준비하는 수단으로는 '공적연금제도(40.5%)'가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종교별 응답서 불교는 '노후준비 수단 없음'이 45.5%로 가장 많았다. 개신교 · 천주교보다 20%가량 높은 수치다.

종교인들은 노후준비 수단의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했다. 종교인의 노후보장 주체는 '교단(종단)'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59.3%로 나타났다. 불교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종교단체 제공 연금제도(3.93점)' '종교단체 제공 의식주 관련 현물급여(3.86점)' '공적연금제도(3.84점)' 등의 필요성이 높았다.

종교인 노후걱정수준 (5점 만점)



종교인 국민연금 가입률 (%)



스님들 노후 걱정 가장 높지만
준비 수단 全無… 대책 필요해
국민연금 가입율도 31% 그쳐
"연금보험 부과체계 정비해야"

이 같은 결과에 연구원 측은 "종교단체서 제공하는 자체 노후보장제도가 급여수준이나 적용범위 측면서 열악하고, 개인연금이나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교단 소속 종교인들에게는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종단별 지원 체계 천차만별

조사에 따르면 종교 · 종단별 종교인 노후보장 지원체계는 천차만별이다. 불교의 경우 조계종은 승려복지법에 따라 기존 수행연금 중심 체계에서 국민연금 중심으로 전환해 일정 보험료를 지원한다. 태고종과 천태종은 개별 사찰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함에 따라 별도의 노후소득 보장제도 필요성 인식이 낮았다.

연구원 측은 종교인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방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 정비 △특례가입사업장 적용 등을 제시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종교인은 일반 국민처럼 국가 과세체계나 보험료 부과체계 내에서 정상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서 가입을 유인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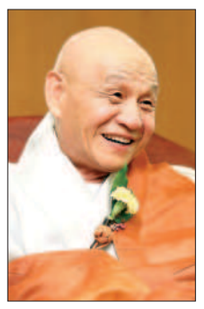
연구를 담당한 유희원 연구원은 본지 전화인터뷰에서 "종교인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종교계에 특정 제안을 먼저 하긴 어렵다. 다만 조계종의 '임의가입자' 형식처럼 요청이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종학 조계종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스님들의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비용적 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종단 차원서 보험료를 일부 부담하면서 신청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연금공단과 협의 등을 거쳐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을 위한 기본 수단이 되고, 보조적으로 종단 및 교구가 돕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三毒 불길 잡는 者 민심 · 대권 잡아"

무산 스님, 10일 안거 해제법어
신흥사 · 백담사 사부대중 참여



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신흥사와 백담사는 2월 10일 병신년 동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신흥사와 조계종립 기본선원 조실 설악 무산 스님〈사진〉은 백담사 무문관서 다른 8명의 수좌들과 함께 문을 걸어 잠그고 석 달간 정진을 마친 뒤 법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무산 스님은 해제 법문을 통해 "오늘의 고통과 중생의 아픔을 화두로 삼아야 한다"며 "중생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중생과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되어 사무치고 사무쳐야 사무침이 다 해야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삼악도를 벗어나고 내 모습을 보는 이는 해탈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산 스님은 이어 현 세태에 대한 국면도 날카롭게 꼬집었다.

스님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을 것이라 한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떠들어대는 정치인들의 추태가 점입가경(漸入佳景)이다. 자기의 허물은 감추고 남의 허물은 들춰내는 것이 마치 선거때마다 남발하는 공약 같다"며 "사실 자고나면 남을 헐뜯으며 깎아내리는 종잡을 수 없는 유언비어가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사람들은, 스님들을 보면 뭘 좀 많이 안다고 지레짐작하고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냐고 묻는다. 삼독(三毒)의 불길을 잡는 사람이 민심도 잡고 대권도 잡는다고 정중히 전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사실상 지금 세계는 삼독의 불바다이다. 모름지기 수행승은 삼독의 불길을 잡는 소방관이 되어야 그림자가 부끄럽지 않다. 우리 모두는 그림자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담사 검인당서 봉행된 이날 법회에는 건봉사 주지 마근 스님을 비롯해 낙산사 주지 도후 스님, 흥천사 주지 정념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조계종 제3교구 동안거에는 신흥사 향성선원 12명, 백담사 무문관 8명, 조계종립 기본선원 53명 등 총 73명의 수좌들이 정진했다.

인제 백담사=김주일 기자

졸업, 새로운 출발 새 목표위해 정진

동국대, 16일 봄 학위수여식

동국대(총장 보광)는 2월 16일 2017년 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총 2,637명이 학사 · 석사 ·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는 가르침을 굳게 믿고, 목표를 향해 우직하게 나아가기 바란다"며 "여러분이 갈고 닦은 전공분야의 지식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간화선을 통한 한국불교의 대중화 및 세계화에 기여한 수불스님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앰배서더 호텔그룹 서정호 회장에게 명예경영학박사 학위가 각각 수여됐다.

한편, 네팔인 자재 스님은 외국인 최초로 불교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 화제가 됐다. 〈관련 인터뷰 4면〉 **신성민 기자**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생 스님들이 학교의 상징인 팔정도 광장 부처님 앞에서 학사모를 던지고 있다. 학업을 마친 스님들은 다시 학문과 수행, 전법의 만행에 오른다. **사진=노덕현 기자**



LOTUS (연꽃香) 조연향



new

조연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조연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은 우리 나라에서 만든 우리향입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격 [장] 10,000원 (제조 : 국내산)
[단] 15,000원 (제조 : 국내산)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www.shcandle.com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리뉴얼됐다

조계종, 8년여 만에 백서 증보판 PDF 발간

도난 불교문화재 매매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계종의 〈불교문화재 도난백서〉가 새롭게 리뉴얼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도난된 불교문화재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 사찰로 환지본처하기 위해 〈불교문화재 도난백서(1984~2015) 증보판〉을 발간했다”고 2월 14일 밝혔다.

이번 증보판은 1999년 조계종이 처음으로 발간한 도난백서 이후 8년 만의 리뉴얼로, 그동안 종단에 축적된 자료와 문화재청의 도난 신고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



종단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1999년 이후 153건 증보돼
문화재 불법매매 방지 역할

됐으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PDF 형태로 현재 조계종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이용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문화’와 ‘성보문화재의 이해’를 찾으면 된다.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1984~2015)〉은 기존 백서보다 신규로 153건을 증보했다. 추가된 도난 문화재는 갑장사 불상, 화엄사 경갑·어작 등이다. 내용은 사진이 게재된 PART I 302건과 사진이 미게재된 PART II 138건으로 구성해 총 440건을 게재했다. 증보판의 목차순서는 불교문화재의 도난율에 따라 불교회화, 불교조각, 불교석조물, 불교공예, 경전·경판의 순으로 이뤄졌다.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 발간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 기반과 경매 시장에서 유통을 막는데 백서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번 백서 증보판 발간은 도난 불교문화재의 불법 유통·매매 방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유철 조계종 문화부 행정관은 “문화재 소유자가 직접 나서서 도난을 고지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성보 환수의 종단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다”며 “백서에 등록된 성보들은 도난 사실을 입증하고 있어 경매시장 등에서 유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1984~2015)〉 영문본 배포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과 협의해 문화재청에서 해외 배포를 담당한다. **신성민 기자**

포교사 활용법, 콘텐츠 개발 시급

[진단] 포교사 제도, 이대로 좋은가 下

매년 400명이 넘는 조계종 포교사들이 포교사 자격을 포기하고 있다. 응시자 급감에 맞물려 포교사 감소가 가시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이런 가운데 포교사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매년 400명, 포교사 그만둔다

포교사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포교사 갱신율은 7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교사단이 밝힌 연도별 포교사 갱신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324명이 자격 갱신을 미신청했으며, 2015년 402명이 미신청, 61명이 신청 후 탈락했다.(갱신율 64.2%) 2016년에는 406명이 미신청, 33명이 신청 후 탈락했다. 전체 포교사 대비 갱신율은 2015년 73.6%, 2015년 64.2%, 2016년 68%다.

최근 포교사 고시 최종 합격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포교사가 되는 이들에 비해 자격을 포기하는 이들이 적었다면 이제는 같아진 셈이다. 자격 갱신 포기의 전 단계인 미활동 인원도 증가추세다. 미활동 포교사의 경우 2012년 126명, 2013년 174명, 2014년 208명, 2015년 170명, 2016년 29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30여명 선에서

서울 등 미활동 포교사 증가
팀 내 역할·전문성 강화
젊은 세대 포섭 노력 필요

2014년 74명, 2015년 86명 2016년 128명 등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역할 배분 미흡·자신감 결여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포교사단은 역할 배분 미흡과 자신감 결여 등을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한 포교사는 “군법당서 법문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간 다른 역할만 맡아 와서 자신이 없었다. 이후 자연스럽게 법회 준비에 치중하게 됐다. 어느 날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포교사들은 대부분 팀제로 각각 역할을 나눠 활동한다”며 “때문에 포교사 역할을 배분하는 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400여 명의 활동팀장에 대한 리더십 교육을 올해부터 시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포교사단은 포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재편찬위에서 편찬한 연수교육 교재를 4월부터 교육에 도입하고, 집체교육이 어려운 부분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5060 편중 분포, 10년 뒤는?

이와 함께 포교사들의 분포가 현재 5060세대에 집중돼 있는 점도 자연스럽게 70대가 되며 갱신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포교원의 2016 포교현황 자료 중 ‘연령별 포교사 현황’을 보면 50대가 전체의 50.1%(2391명), 60대가 33.7%(1610명)이었다. 70대는 4.8%(232명), 80대는 0.3%(15명)로 고령에서 포교사 활동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오랜 기간 활동할 수 있는 40대는 9.9%(476명), 20대와 30대는 전체를 통틀어 47명에 불과했다.

이수영 포교사단 서울지역단장은 “자녀를 결혼시키고, 직장생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50대 이상이 활발히 활동한다. 연륜과 오랜 수행력도 어느 정도 기반은 돼야 한다”며 “젊은 세대들이 포교사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화 조계사 포교팀 본부장은 “인터넷 포교상담 등 고령의 어르신이나 아직 경륜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도 포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이 개발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포교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불교도 없었을 것”이라며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단복 등 위의 체제 개편과 콘텐츠 개발 등도 필요해 보인다. 전법단과 포교사단을 두 축으로 함께 미래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멸빈자 사면, 3개안 법리적 검토

단서조항 삭제안부터 부칙 삽입 등 논의

조계종 멸빈자 사면 관련 종헌개정 논의가 총 3개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사면 관련 종헌 개정안 및 사면법 제정안 논의의 건 △징계법 제정안 논의의 건 등을 다뤘다.

이날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마련한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은 2개다. 1안은 종헌 부칙을 신설,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부터 2016년까지 멸빈 및 체탈도첩 징계를 받은 자 중 출가독신자로 생활하며 참회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 한해 적용되는 1회성 사면이다. 2안은 현행 종헌 128조 단서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면한다’고 했다.

두 개정안 모두 사면 이후 5년간 종헌종법상 선출직·직임직·품임직·선임직·위촉직 등 일체 종무직 취임을 제한했다. 또 각급 선거 및 산중총회 등서 선거권 및 선출권을 갖지 못한다.

1안에 대해 위원들은 부칙이 종헌 본조항의 효력과 상반되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2안은 멸빈자 사면에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동의가 필요한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외에 정치적 의도로 이뤄진 멸빈과 사바라이죄에 해당하는 멸빈에 구분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위원회는 이후 종헌 12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 차기 회의에 각 개정안 별로 법률사무소 검토 의견을 받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은퇴출가, 역할보다 문호 개방 초점

2월 15일 출가특위 공청회
진일보했지만 한계는 여전



은퇴출가제도에 대한 대중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공개된 초안은 과거안에 비해 진일보했으나 종무직 등 소임에 대한 권리가 제한돼 한계는 여전했다. 이에 따라 은퇴출가제도는 문호개방 후 수정해나가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는 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은퇴출가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중앙종회의원과 교역직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은퇴출가제도 초안을 설명했다. 초안은 지난 특위 회의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다만 사미(니)계 수계 후 10년이 지나 구족계를 수계할 수 있었던 것을 5년으로 축소했다.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초안에 따르면 행자생활은 3년이다. 사회 각 분야서 15년 이상 활동해 개인 복지를 일정부분 충당케 했다. 또한 법계 취득이 제외되고, 각종 소임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수행생활’에 중점을 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밝힌 “전문분야에서 소임을 맡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최초 제정 목적과는 상충된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은퇴출가자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중앙종회의원 우봉 스님은 ‘수행자’와 ‘소임 희망자’ 구분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초안 자체에 소임이 배제돼 유의미한 토론이 이어지진 않았다. 이어 묘주 스님은 “은퇴출가에 따른 대사회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주경 스님은 “대학졸업자 반 이상은 전공을 살리지 않는다. 이처럼 은퇴출가자의 활용은 각 교구본사 내에서 대중이 정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토론자로 나선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은 “(은퇴출가제도를) 좋은 뜻으로 만들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예측 가능 범위 내에서 긍정적 요소를 최대화하고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주경 스님은 “현재 은퇴출가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응급조치 정도로 봐주셨으면 한다. 추후 의견에 따라 다양한 변화도 가능하다. 우선 시행착오는 각오하고 문호를 여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출가상담사 은산 스님 위촉



일반인들에게 출가 방법 등을 상담하는 신임 조계종 출가상담사에 거창 행복한절 주지 은산 스님〈사진〉이 위촉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2월 13일 교육원장실에서 신임 출가상담사 은산 스님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은 前 출가상담사였던 가섭 스님이 포교원 포교부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출가상담사 위촉 이후 은산 스님은 “처음 행자입문과정이 생겼을 때 상담사로 활동하기는 했으나 거창 지역에서 맡고 있는 소임이 많아서 그간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다시 종단에서 불러주신만큼 열심히 활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출가상담사 은산 스님은 해인사를 재적본사로 1995년 수계했으며, 행자교육 상담사로 활동한 바 있다. 거창군 복지관 관장, 해인사 월간해인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거창군 소재 행복한절 주지 소임을 타고 있다.

신성민 기자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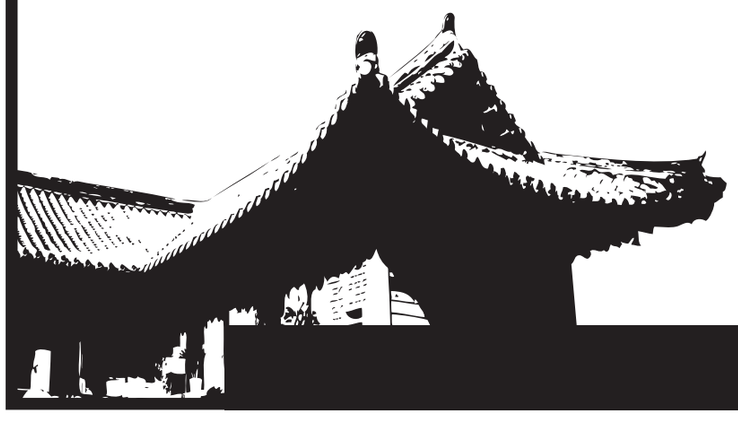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이주민 법당, 독자성 확대에 협력 필요

조계종 · 마하이주민협, 〈이주민 불교공동체 조사연구서〉 발간

1995년 부천 미얀마 공동체가 결성되며 '이주민 공동체' 란 개념이 정립된 지 20여년. 이제는 이주민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종단차원의 포교정책을 수립해야한단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2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이 배포한 연구보고서 〈이주민 불교공동체 조사연구〉에 따르면 초기 이주민 종교 공동체는 한국불교계에 대한 의존적 태도를 보였다면, 20년이 지난 오늘날 독립사찰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이 이주민 법당에 일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양방향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한단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계종 총무원 및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는 2016년 9~11월 베트남 · 태국 · 몽골 · 스리랑카 · 캄보디아 · 네팔 · 미얀마 · 방글라데시 총 8개국 이주민 법당 소속 대표자 2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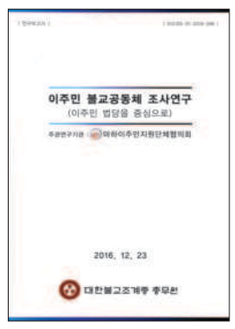
보고서는 이주민 법당의 다수를 차지하는 남방불교권(태 · 캄 · 미 · 스) 불교공동체들이 의존서 자립 형태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초기 생성된 남방권 불교공동체들은 한국사회 조력자에 힘입어 태동했다. 하지만 태동기를 지나 생겨난 후발신생 법당들, 또는 초창기 취약한 국면을 벗어나 자생력을 보유하게 된 이주민 법당들 가운데 점점 독자성을 표방하는 곳들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근거로 자력으로 법당을 설립해 스님을 초빙한 최초 사례인 부평 미얀마불

2016년 베트남 · 미얀마 등 8개국
이주민 법당 대표자 28명 심층면접
생성 초기 한국사회 의존 경향서
법회 운영 등 독립적 형태 나타나
"협력체계 약해질 수 있는 시기"
종단 '이주민 기본정책' 수립해야

교선원, 대구 ㅡ따수카 미얀마 사원, 부산 법승담마야나선원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독립사찰로 진화한단 것은 각 공동체의 자율성이 더 강화한단 것이며, 이는 자칫 잘못할 경우 그동안 맺어왔던 협력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주민 법당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협력방안으로는 △이주민 법당의 맞춤형 지원 방향성 도출 △외국인 스님의 비자연장 및 단기 초청 업무 개선 △법률 관련 정보 및 전문가 자문 지원 △결혼이민자에 대한 포교방안 수립 △법당운영 컨설팅 제공 △외국인 스님에 대한 조계종의 조직적 협력방안 모색 △총무원의 이주민 법당 스님 초청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주민 법당 맞춤형 지원 방법에 대해선 "남방과 북방불교 발전양상이 다르고, 각 법당별로 필요한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도 스님이 없는 이주민 법당에는 스님 파견 및 지원이 가능한 주변 사찰을 소개해주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에 대한 포교방안 수립도 주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는 심층면접 결과 불교공동체서 남성 이주노동자들의 활동이 활발한 반면,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 및 시댁의 종교에 따라 신행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주민 법당서 신행활동을 주도하고 재정적 부담을 책임지는 주축은 남성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런 경향은 남방불교권, 그 중에서도 미얀마와 스리랑카서 현저히 나타난다"며 "여성들은 1년에 2~3번 일회성 행사에 참가하며, 일상적 참여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주민 당사자 뿐 아니라 자녀와 가정 모두에 대한 접근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외국 불교 친선사찰을 선정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제안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종단 차원의 이주민정책 가칭 '조계종 이주민정책 기본계획' 을 수립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조계종 이주민정책 기본계획' 은 협력 · 통합 · 인권 · 안정의 4가지 방향성에 따라 △한국불교와 외국불교와 국제협력 강화 △한국 불자와 이주민 불자 교류 및 통합프로그램 실행 △불교인권을 바탕으로 한 이주민 인권 실현 △이주민 법당의 안정적인 운영 및 행정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조계종 전법단, 분야별 활동 강화 나서

포교원 신임 단장 및 임원진 위촉, 신년사업도 공개

어르신전법단 신규 출범
올해 예산 1억 4300만원

조계종 포교원이 어르신 전법단을 비롯한 각 전법단 구성을 완료하고 새해 전법을 힘차게 시작했다.

포교원(원장 지홍)은 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차 전법단 대표자회의를 열고 새로 출범한 어르신 전법단과 신도시, 청년대학생, 국제, 어린이청소년 등 5개 부문 전법단 임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어르신 전법단 초대 단장은 성운 스님(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이사)이 맡았다.

새로 출범한 어르신 전법단은 불교노인 복지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신행활동 지원을 맡게 된다. 새해 계획으로는 △어르신법회 거점사찰 선정 △지역별 합동법회 △기초교리교육 △수계식 △템플스테이 성지순례 등 문화여가 지원 등이 발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어르신 전법단 부단장 정관 스님은 "노인복지시설과 사찰,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도법사 스님을 중심으로 인재풀을 형성해 포교활동을 전개하겠다"며 "포교사단과도 연계해 어르신 포교사를 양성하고 복지시설 내 불교반과 법당 등을 만들어 신행활동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전법단장에 계성 스님(강화 법왕사 주지), 신도시 전법단장에 도봉 스님(성남 원적정사 주지), 어린이청소년 전법단장에 성진 스님(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상임이사), 청년대학생 전법단장에 본공 스님(한양대불교학생회 지도법사)이 새로 위촉됐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신년계획도 발표됐다. 경찰전법단은 권역별 간담회 등 네트워크 강화, 중앙경찰학교 법당 불사 8월 회향을 공개했으며, 교정교화전법단은 제주소년원 및 교도소 지원,



조계종 포교원이 개최한 제1차 전법단 대표회의에 참석한 스님들이 활발한 전법을 다짐하고 있다.

바자회 개최를 공개했다.

신도시전법단은 지역 특산품 판매를 통한 활동기금 마련, 병원 전법단은 환우돕기 바자회, 체육인전법단은 10월 13일 수덕사서 전국체전 선전기원법회, 청년대학생전법단은 연 2회 지도법사 간담회 및 SNS 전법, 국제전법단은 국제포교 스님 양성 등을 신년계획으로 들었다.

한편, 포교원은 올해 전법단 지원예산을 1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새터민전법단도 출범시켜 총 12개 분야에서 전법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각 전법단 현황을 점검해 행정을 지도하기로 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최근 300만 불자 감소라는 충격적인 소식 이후 다양한 포교 종책을 준비하고 있다. 전법은 불교의 가장 큰 공덕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현대차GBC 주민설명회, 진통 끝 '무산'

봉은사대책위-강남구, 1시간 실랑이… 입장차 못 좁혀

현대차 신사옥(GBC)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결과 초안 주민설명회가 봉은사 측과 강남구의 갈등으로 인해 무산됐다.

강남구(청장 신연희)는 2월 14일 오전 10시 삼성1동주민센터 대강당서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를 앞두고 봉은사역사문화환경보존 대책위원회와 갈등이 빚어졌다.〈사진〉 행사장에는 봉은사 측 스님과 신도 40여 명과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대차 사업담당자인 이중열 상무, 이희현 강남구청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자리했다.

전해준 봉은사대책위 팀장은 "1년 동안 수없이 의견조율을 요청했지만 사업주체에서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의견 수렴했다는 명목 아래 다음 절차가 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초안이든 가안이든 현대차와 봉은사 등의 의견이 공평하게 개진될 수 있는 자리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희현 담당관이 "초안 설명을 들은 뒤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중열 현대차 상무는 "초안일 뿐이다. 앞으로 본안을 만들고 심사도 받아야 하는데 공청회 또한 열 수 있으니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진 못했다.

1시간가량 주민들은 "일단 초안 설명을 듣자"는 입장과 "핵심관계자 입회하 공정한 자리에서 하자"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양측 갈등은 강남구 측에서 "봉은사 방해로 더 이상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공식 중단을 선언하며 마무리됐다. 봉은사 측은 "방해가 아니라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설명회라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고 지적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채식하고 기부하고… 생명살림 나선다

조계종, 매주 木 '채식day' 캠페인 전개

채식을 통해 불교 계율 중 첫째인 불살생(不殺生)을 실천하면서 지구환경을 변화시켜나가는 운동이 전개된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포교원 · 중앙신도회 · 포교사단 등은 2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생명살림캠페인 '채식day, 기부day' 를 선포하고, 건강한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운동을 전개한다. 주최 측에 따르면 선포식에는 교역직 스님과 신행단체장을 비롯해 한국채식연합 대표와 한국고기없는월요일 대표가 참석한다.

이 캠페인은 1주일에 하루(매주 목요일) 채식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한 뒤 약속을 지켰다는 의미에서 생명살림 기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부는 △치유와 상생의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부 △결식아동을 위한 아름다운동행 기부 등 2가지다. 채식 실천 1회를 1,000원으로 산정해 1개월 4,000원을 기부자가 직접 기부하면 된다.

신청은 조계종 홈페이지(종무행정-채식day) 또는 전화 (02)730-6690으로 하면 된다. CMS 자동이체 기능이 없어 이름과 연락처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된다. 또한 카카오톡 엘로아이디 '채식day기부day' 를 친구추가 하면 매주 목요일 채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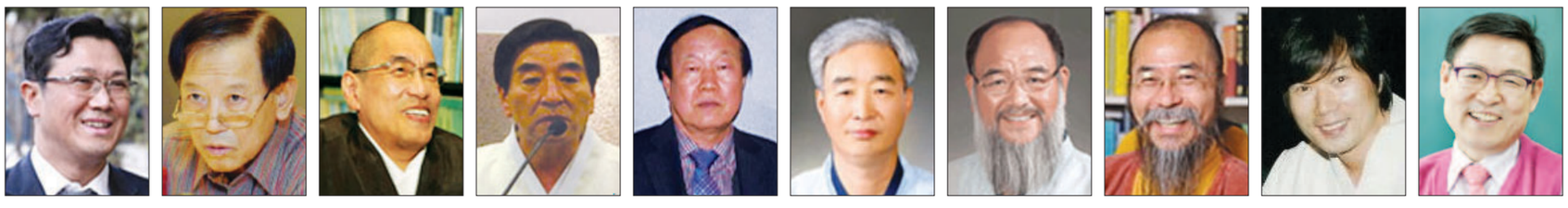
성역화추진위 관계자는 "채식주의자가 되자는 운동이 아니다. 불교정신에 따라 생명살림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살생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정작 육식하지 말라는 목소리는 낮았다. 구제역 등 육식으로 인한 폐해가 확대되는 시기에 체질과 가치관을 바꿔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4기 모집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최고 교수진!!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원우회와 동문회 활동 등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자신의 학문에 대한 현위치 파악 및 역학계 위상정립!! 더 이상 스승 찾아 헤멜 필요 없습니다.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박청화교수, 꼴관상 신기원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백민교수, 정창근교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이상광교수, 박성희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정경연교수, 신석우박사, 내정법 김인순박사, 명리학과 한의학의 만남 김민재박사, 박용남교수, 샤머니즘박물관장 양종승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가수 김태곤박사, 최면 NLP상담기법 설기문교수, 멘탈리스트 이진규소장 외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2월23일~6월 22일, 매주 목(木) 18:40~21:30 / 수료 후 2학기 심화과정 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3월 9일(목) 17:30~ 등록금 240만원
홈페이지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www.gfca.kr/
다음카페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http://cafe.daum.net/fca2
심화과정 FCA현대사주학석하명리 최고지도자과정(원리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장소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www.gfca.kr ※문의 : 02-3443-4984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

석하 소재학 박사 / 동양 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명리학자(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주임교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글로벌융합인재포럼 회장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원장, 동양미래예측연구소장
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자문위원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 Earist University 학장 역임

일 주 문



자비의 쌀 전달

정우 서울 구룡사 회주 스님은 2월 11일 정월대보름 법회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의 쌀 3000kg을 서초구청에 전달했다.



운경 스님 17주기 기신재

일관 남양주 봉선사 주지 스님은 2월 19일 경내 청풍루서 '제17주기 운경 스님 기신재'를 봉행했다.



제3기 여성출가학교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3월 9~12일 3박4일간 경내서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제3기 여성출가학교'를 개최한다.



성역화불사기금 전달

육문 전국비구니회장 스님은 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아름다운동행에 성역화불사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베를린 영화제 공식 초청

정관 장성 천진암 주지 스님은 음식 다큐멘터리 '셰프의 테이블' 시즌3에 출연해 12월 11일 베를린 국제영화제 초청으로 출국했다.



인도서 한국불교문화 특강

장재진 부산 동명대 교수는 1월 20일부터 2월5일까지 인도 델리대, 마드리스대, 티벳불교대에서 한국 불교문화를 주제로 특강했다.

故 김영채 불자, 승가교육 희사금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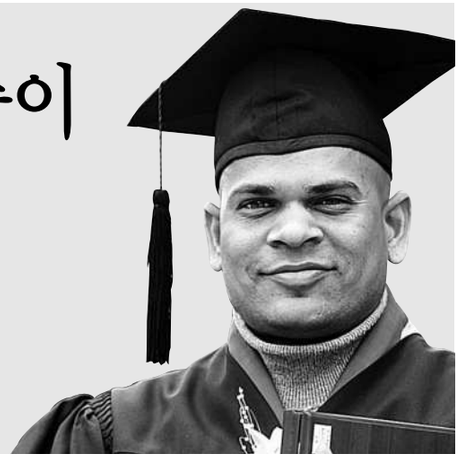


인천에 거주하는 故 김영채 불자가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1,000만원을 희사했다.

故 김영채 불자의 아들인 김국진 씨 내외는 2월 16일 조계종 교육원을 방문하여 "'제1회 조계종학인 설법대회' 행사에 사용해 달라"며, 교육원장 현응 스님에게 희사금을 직접 전달했다.

김 씨는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로서 평소 스님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지난 2월 초 어머니가 작고하면서 고인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현응 스님은 "고인의 뜻깊은 유지를 받들어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직접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수석 비결? 사찰 대중이 보내준 응원 덕분"



Interview

동국대 불교대학 수석 졸업 네팔인 자재 스님

"졸업식에서 상도 받고, 칭찬도 많이 받아 기쁩니다. 하지만 4년간의 학교생활이 저 혼자 잘해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은사 스님과 학교의 지원부터 문빈정사 사부대중의 격려와 응원, 친절한 교수님과 도반들의 도움이 없이는 있을 수 없었어요."

2월 16일 동국대를 졸업한 네팔인 자재 스님(속명: 크리스나)은 불교대학 최초 외국인 수석 졸업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4년 동안 이역만리 타향에서 '불교 출가자'라는 특수하다면 특수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결심이었다. 네팔 출신 자재 스님은 부모님이 힌두교도였고, 자신 역시 힌두교도 였다.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던 스님은 안정된 수입과 지위를 누리며, 풍족한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많은 공허함을 느꼈다. 이때 만난 것이 불교였다. 석가모니부처님의 생애를 접하고, 불교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이때 과거 인도에서 요가를 수련하며 만나 친구가 된 한국인 불자가 생각이 났고, 한국행을 선택했다. 은사인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을 만나게 된 것도 이들과의 인연 때문이다.

문화·언어 등 낯설어 처음엔 눈물도
"은사·도반 스님이 있어 극복했죠"

서울대 인류학 석사과정 진학 예정
"실력 쌓아 불교학·포교 발전 매진"

자재 스님은 2011년 9월 출가해 행자 생활을 하고 2012년 2월 직지사서 사미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에 입학한 것은 2013년이다.

출가부터 학교생활까지 어려운 점도 많았다. 문화와 언어, 생활양식 등이 네팔과는 모두 달랐다. 처음 1년은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날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소중한 인연과 관심 때문이었다.

"네팔은 인도와 가까워서 생활양식이 서구적입니다. 학교생활도, 절집 대중생활도 어렵더군요.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은사 스님과 도반 스님들의 도움이 많았죠. 그러면서 제가 처한 상황을 관조하며 스스로를 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완벽한 언어를 구사해도 어려운 수석을 거머쥔 비결이 있을 듯 했다. 그러자 '집중'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오롯이 집중해 수업 시간에 나오는 모든 설명들을 기억하려 하고, 모르는 것은 재차 묻는 것이었다. '집중'보다 더 중요한 비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바로 '감사'와 '책임감'이었다.

"사찰 신도들이 자녀들에게 받은 용돈은 조금씩 모아서 저를 볼 때마다 '스님 수고하십니다' 하며 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종단에서 장학금과 은사 스님의 지원은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이었죠. 제가 배우고, 먹고, 쓰는 모든 재화는 결국 신도님들의 보시로 이뤄진 것입니다. 절대 허투루 살 수 없었습니다."

내달 구족계를 받고 비구 스님이 되는 자재 스님은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 과정에 들어가 공부를 이어간다. 석사로 '인류학'을 선택한 이유는 폭 넓은 공부를 위해서다. 기회가 된다면 하버드대와 옥스퍼드대 같은 불교학을 공부하겠다는 포부도 가지고 있다.

"저는 학문적인 관심이 많습니다. 인류학에서 불교를 어떻게 보는지, 불교는 인류학을 어떻게 보는지를 공부하려 합니다. 실력을 더 쌓은 뒤에는 한국불교학 발전과 젊은 세대의 포교에 나서고 싶습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구촌공생회, 네팔 산골학교 기공

2월 9일 스리디히 공생초 기공식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2월 9일 신두팔촉 디히마을서 네팔 산골학교건립 7번째 프로젝트 스리디히 공생초등학교 기공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지구촌공생회는 후원회원들의 기금 약 7,500만원으로 스리디히 공생초등학교 재건사업에 나선다. 교실 6칸과 화장실 4칸을 비롯해 책걸상, 수납장, 기자재, 펜스, 교문 등을 갖출 예정이다. 올 6월 완공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자승 스님, 스노보드 대표팀 격려

2월 15일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출전 응원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출전을 앞둔 스노보드 알파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모든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선수들의 선전이 평창 동계 올림픽까지 이어져 우리나라에 메달을 안겨주길 간절히 기원하겠다"며 "경기 도중 다치지 말고 잘 마무리할 수 있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육사 73기 졸업 및 임관 축하법회

군종교구, 2월 15일 화랑 호국사서 개최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2월 15일 육군사관학교 화랑 호국사에서 육사 73기 졸업 및 임관 축하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군종교구 부교구장 승원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3군사령부 군종참모 보명 공영호 군승 등 재경지역 군승들과 국군불교총신도회 전 사무총장 오원진 장군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희망밥차 3년, 5만 명 허기 채웠다

동여수福, '오감만족 희망밥차 3주년 기념식'



동여수노인복지관(관장 정금칠)은 2월 15일 종화동 해양공원서 '오감만족 희망밥차 3주년 기념식'을 진행하고 지역 어르신·자원봉사자·후원자 300여명과 함께 정월대보름 특별식 나눔을 벌였다. 동여수노인복지관은 이날 '오감만족 희망밥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난 3년간 운영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4~2017년 현재까지 총 274회 밥차를 운영, 5만4,420명에 중식을 제공했다.

이승희 기자

동산 성지순례단 미얀마 탁발 보시

파간지역 초등학교서 기금 전달도 진행



동산불교대학 해외성지순례단(이사장 이종현)은 2월 4일부터 12일까지 미얀마에서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순례단은 일정 중 파간 지역 동자승들이 기거하는 초등학교를 방문해 기금을 전달하고 탁발보시에 참여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부탄 수도 팀푸에 위치한 붓다포인트. 현 국왕의 즉위를 기념해 팀푸 전역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세운 높이 51.5m의 석가모니불 좌상이다.



히말라야 절벽에 자리 잡은 파로 호랑이굴 탁상사원. 부탄을 대표하는 이미지 중 하나다.



부탄 내 가장 아름다운 종(Dzong)인 푸나카종.



히말라야 제2석가모니 파드마삼바바의 불상.

스님이 세운 불교왕국 '부탄'으로 떠나자

한국-부탄 수교 30주년 한국인 특별 관광정책 '눈길'

올해는 한국과 부탄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이에 부탄정부는 지난 1월 대표단을 파견해 서울 · 대전 · 광주 · 부산 · 경주 등을 돌며 수교 30주년 기념 한국인을 위한 특별 관광정책을 발표했다. 본지는 부탄 관광정책과 한국부탄우호협회 산하 부탄문화원(원장 윌리엄 리)이 추천하는 핵심 관광지를 소개하고, 여행자 유의사항 등을 전한다.

'지구상 마지막 샹그리라'로 불리는 부탄은 행복지수 세계 1위의 나라다. 자유배낭여행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깨나 다녔다는 사람들조차 가보지 못한 곳이기도 하다. 부탄은 '금연국가' '하루 200달러씩 체류비를 내야 관광 가능한 나라' '공장 · 고속도로 · 신호등 없는 나라' '대승불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 등 여느 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

이런 부탄은 올해 한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6~8월 한국인만을 위한 특별 관광정책을 마련했다. 기존 부탄 여행은 1일 체제비 200달러(호텔 · 식비 · 가이드 · 교통 포함)가 부과됐다. 하지만 이 기간 방문하는 한국인에겐 65달러만 부과된다. 물론 호텔 · 식비 · 가이드 · 교통비는 별도다. 또 항공료 30%, 호텔에 따라 숙박비 50%까지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싱글차지도 면제된다.

부탄 핵심관광지

수도 팀푸(Thimphu)

인구 약 10만 명이 거주하는 부탄 최대도시이자 수도인 팀푸는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3대 왕을 기리며 세운 메모리얼 초르텐 기념비 △나란다 대학 시절 경전을 그대로 간직한 부탄국립도서관 △12세기에 지어져 많은 이적을 일으킨 부탄 관음성지 창강카사원 △부탄의 국조 샵둥나왕남곌 스님이 창건한 체리사원 △현 국왕의 즉위를 기념해 팀푸 전역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세운 높이 51.5m의 석가모니불 좌상 붓다포인트 등이 볼거리다.

파로(Paro)-호랑이굴 탁상사원

부탄 · 티베트 · 몽골 · 네팔 · 인도 등 히말라야 전 지역에서 제2의 석가모니로 추앙받는 파드마삼바바가 8세기에 암호랑이 등에 올라타 악귀를 물리친 후 명상을 했다고 전해지는 사원이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 탁상(호랑이)사원이 바로 파로에 있다. 탁상사원 내부에서는 말하는 파드마삼바바 불상, 미타전, 관음전, 수행동굴 등 다양한 전각과 문화를 만나볼 수 있다. 백두산 천지 해발과 비슷한 2,700m 고지에서 트래킹을 시작해 해발 3,200m 지점에 위치한 탁상사원까지 가는 길은 소나무길을 지나 가파른 암석길을 지나야 한다. 이후 계곡 너머로 1,000년을 넘게 히말라야 절벽을 지켜온 탁상사원이 고개를 내민다.

푸나카종(Punakha Dzong)

부탄에는 특이한 '종(Dzong)'이라는 건물이 있다. 이것은 요새 · 사원 · 성 등 다양하게 번역되는 부탄만의 독특한 건물이다.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 역할을 수행하며, 법원과 의회가 들어서 있다. 특히 불교국가답게 지역 관할 사찰도 종 내부에 위치한다. 도시 이름을 따 푸나카종, 파로종 등으로 부르는데 부탄 전역의 수십 개 종 중 푸나카종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는다.

1637년에 세워진 푸나카종의 본명은 '풍땅데첸 포땅종(Pungtang Dechen Photrang Dzong)'이며, 직역하면 '대행복의 궁전'이라는 뜻이다. 부탄의 국조 샵둥 스님이 창건해 모든 부탄인들에게 신성시되는 종이며, 기후가 온화한 지역에 있어 부탄 국사인 제켄포 스님의 겨울 주석 사원이기도 하다. 아버지강 포추와 어머니강 모추가 만나는 지점에 웅장하게 자리하고 있어 푸나카종을 바라보며 즐기는 래프팅이 묘미다.

타킬라(Takila)

파드마삼바바의 가장 큰 불상이 조성된 곳이다. 높이 53m로 연화대 12m, 불상 얼굴만 4.2m에 달한다. 최근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바라'의 감독이자 부탄 동자승들의 축구열망을 담은 영화 '더 컵'으로 유명한 영화감독 스님 종사르켄체 린포체가 3개월간 대관정법회를 한 곳이기도 하다.

부탄문화원 제공 · 정리=윤호섭 기자

부탄문화원은…

자립적 고립주의라는 외교정책을 취한 부탄왕국은 정식으로 수교 맺은 나라가 많지 않다. 이에 부탄정부 외교부는 각 국가별로 우호협회를 인증해 두 나라간 민간 가교역할을 한다. 한국에는 1982년 한국부탄우호협회가 발족했다. 부탄문화원은 2011년 설립돼 문화적 가교역할을 맡고 있다. 불교박람회 · 연등회 · 푸드쇼 등에 참여해 한국 내에서 부탄을 알리며 교류하고 있다.

부탄문화원은 2012년부터 매년 봄 · 가을에 부탄 정기순례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여행사를 통한 관광상품과는 달리 부탄 현지 템플스테이, 역사 · 설화 설명, 현지 법회 참석, 미공개 무문관 내 수행체험, 부탄 농촌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에는 수교 30주년을 기념한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윌리엄 리 부탄문화원장

부탄 여행 유의사항

#특별관광정책이 적용되는 6~8월은 부탄의 우기에 해당한다. 비수기이므로 다른 시즌 방문 때보다 20~30% 비용 절감 효과는 있지만 더 좋은 풍경의 부탄을 만나고자 한다면 봄 · 가을을 추천한다.

#올해 특별관광정책으로 수많은 한국 · 부탄여행사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일이 많다. 이 경우 환경이 좋지 않은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자. 가장 일반적인 7박8일 방콕경유의 경우 250만원 미만이라면 주의하는 게 좋다.

#부탄은 불교국가이므로 사원이나 공공기관에 들어갈 때 여성은 민소매나 짧은 치마를 금하며, 남성도 짧은 라운드 티셔츠는 금지된다.

최상승 방편의 비밀신주!
원하는 바를 즉각 얻을 수 있게 하는 진언, 진언 중의 근본진언!



수구즉득대다라니
隨求卽得大陀羅尼

"나(부처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을 널리 설하여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 가운데 이 진언이 가장 최상이며 제일이니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본문에서)

우리말 번역과 함께, 가피의 효험, 사서 방법, 기도법 등을 덧붙여 누구라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공금강 한역漢譯/석법성 역주/국판/160쪽/ 9,000원

마음을 울리고
영혼을 일깨우는 맑은 소리!

개에게 우유를 먹이는 방법



17년 동안 쌓인 지하철 〈풍경소리〉의 에센스!

고요한 산사의 풍경소리처럼, 삶에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맑은 여운을 남기는 100편의 이야기!

고암 정병례 선생의 전각그림과 박준수 화가의 동양화가 어우러져 깊이를 더해준다.

글 풍경소리/전각 정고암/그림 박준수/국판/216쪽/13,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종로노인복, 복지·문화 '집약처' 발돋움

개관 10주년 맞이 비전 발표

9440명 어르신 회원 수
1840개 제공한 일자리
53건 시니어 힐링 등 외부사업

2007년 개관 후 올해 10년
'신노인상' 정립 목표 삼아
어르신 건강 · 일자리 '집중'
"증축 건물은 시민에 개방할 것"


종로노인복지관은 2월 14일 '2017년 기자간담회'서 "종로구 노인복지 · 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창출과 문화복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UN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율은 14%부터로 서울시는 10년 후 14.7% 베이비붐 세대(서울시, 2016)가 고령인구로 편입, 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종로구는 노인인구 비율 15.6%(2017)로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선 가운데 서울연구원의 '고령친화형 마을 만들기' 연구 보고(2012) 결과 어르신들이 가장 살기 좋은 마을 모델로 종로구 이화동이 꼽혔다. 이 같은 고령친화 종로의 중심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이하 종로노인복지관)은 2007년 2월 1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위탁 운영 복지관으로, 이화동 25-1번지 일대 대지 2188.4㎡ · 연면적 2951㎡ 규모로 조성됐다. 개관 당시 일일 평균 이용자 500명, 회원 3,314명을 보유한 마을 사랑방서 현재 일일 평균 이용자 1,500명, 회원 9,000명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했다.

종로노인복지관 측은 "개관 초기 3,000명을 웃돌던 회원이 현재 9,000명을 바라보고 있어 복지관 수용공간이 턱없이 모자랄 정도"라며 "2015년 증축 계획을 발표한 것도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에 종로노인복지관은 7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 올 여름 증축 개관식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증축 공간엔 △목욕탕 · 찜질방 △대극장 △대규모 급식소 등을 마련, 어르신들 요구를 십분 반영했다.

이해경 종로노인복지관 부장은 "대극장은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대여를 준비중이다. 목욕탕 및 찜질방 시설도 지역 내 저소득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며 "다른 어떤 복지관보다 '열린복지관'을 지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로노인복지관이 두각을 드러내는 분야는 단연 '어르신 일자리창출'이다. 종로노인복지관은 어르신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플러스카페, 골목길해설사, 종로&장금이, 화(化)가 자란다, 사랑 한 주걱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2015 · 2016년 개점한 플러스카페 1 · 2호점서 50여 명이 넘는 어르신을 고용했다. 올해 8~9월 증축되는 종로노인복지관 내에 3 · 4호 카페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복지관 최초로 진행한 '골목길해설사' 사업도 2012년부터 해마다 전문해설가를 양성,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골목길해설사 프로그램은 독창성과 성과를 인정받아 2013년 서울시 우수프로그램 표창 및 같은 해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협회 전문노인자원봉사 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다.

10년 간 종로노인복지관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신노인상'은 정관 스님이 제시한 건강한 노인상으로 일자리를 통해 자립심과 자존감이 충만한 젊은 어르신을 뜻한다.

복지관 이용자들이 "주는 돈을 그저 받기만하는 수급자가 아니라 정당한 노동을 통해 돈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 생각한 단어다.

이에 정관 스님은 신노인문화 홍보를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신노인 인식개선 걷기대회를 개최, 현재까지 4,000명이 넘는 인원이 축제에 참여했다.

그렇다면 향후 미래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종로노인복지관의 고민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정관 스님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며 노인자살 등 문제도 일자리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관 스님은 "종로노인복지관은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을 겪었거나 살림이 어려운 어르신 위주로 일자리 제공의 기회를 부여한다. 직업활동을 하면 신체 운동, 말벗 사귀기, 경제적 이익 등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며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은 신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심신의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창업 및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증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불교 복지 '금융역량 강화' 도입 과제

장동호 교수, 조계종복지재단 14일 미래복지포럼서 강조

가계부채가 극심해지는 사회 현실 속 가정 내 금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복지 시설의 새 역할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장동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사진〉는 2월 14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이 주관한 미래복지포럼 '금융빈곤시대, 사회복지의 역할은?'서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현재, 복지시설의 금융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건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삶의 질이 저하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불확실성이 커지고 가계부채 비율이 OECD 평균치인 135.9%를 넘어섰다"며 "국내 여러 연구들이 연체 · 채무불이행 등 상황이 개인의 극심한 스트레스, 자존감 저하, 가정폭력, 범죄, 자살, 가족갈등, 가족 해체 등 유발 · 심화한단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예를 든 금융사회복지는 개인 · 가족 · 지역사회가 양질의 △금융서비스 △자산형성 기회 △금융교육 등에 접근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결국 사람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복지 정책이다.

특히 장 교수는 "금융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지난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인프라를 갖춘 사회복지기관을 간접 지원해 저소득층 채무조정과 금융교육을 실시하면서 보편적으로 퍼졌다"고 밝혔다.

국내외 금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마이크로 크레딧 △개인발달계좌 △금융교육 △재무설계 및 부채상담 △금융 멘토링 △금융 자조집단 프로그램 △금융 코칭 △금융 치료 △금융사례관리 △무료세금신고자원봉사 서비스 등이 있다.

장 교수에 따르면 2015년 8월~2016년 2월 12개 복지기관 363명이 참여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서 최대 10개월 동안 △금융교육 △금융상담 △금융사례회의 △단기저축지원 프로그램 △공동 사업설계 △정기 간담회 △성과 발표회 등 지원한 결과, 이용자의 경제적 만족도는 증가하고 스트레스는 감소했다.

장 교수는 "참가자들이 월지출과 연지출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현재 적은 수입으로도 만족도가 높은 소비생활이 가능하단 사실을 깨닫고 만족도가 올랐다"며 "복지시설서 지원받은 금액이 가정경제에 큰 보탬이 됐다는 반응도 상당수로, 복지시설의 금융지원제도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신행·복지 소식

중앙신도회 '신행혁신 계율산림' 봉행

출가열반절 맞아 3월 5일 입재, 11일 회향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가 주최하고 조계종 종무원조합, 대한불교청년회가 주관하는 '신행혁신 실천 계율산림법회'가 3월 5일과 11일 펼쳐진다. 출가열반절을 맞이하는 입재법회는 3월 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입재법회에서는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법사로 나서 '신행혁신을 통한 붓다의 삶'을 주제로 법문한다.

회향법회는 3월 11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을 전계사로 수계법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법회는 중앙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 및 회원 가족, 조계종 종무원조합 및 가족 등이 참석한다.

중앙신도회 측은 "단 8일간의 출가열반절 기간이라도 불법을 실천하고 수행을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금번 법회는 보다 지속적인 신행실천과 계율의식 함양은 물론 소속 구성원들의 종단 소속감과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것"이라며 "올해 주요사업인 '1인 1불자 만들기' 캠페인의 시작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봉은사 지역법회 창립… 신행 문턱 낮춘다

지역별 도반모임 운영, 2월 26일 창립식

봉은사가 일반신도들이 쉽게 신행 ·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지역법회를 창립한다.

봉은사(주지 원명)는 불자 및 새신도들에게 다양한 신행 · 봉사모임 기회를 제공할 지역법회 창립식을 2월 26일 오후 2시 법왕루에서 개최한다.

봉은사는 그동안 불교기본교육과정인 기초학당을 수료한 신도들을 대상으로 신도회 조직단위 '연등'으로 편제, 다양한 신행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하지만 기초학당을 나오지 않거나 '연등' 활동을 하지 않는 신도들의 신행 및 봉사활동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에 지역법회를 창립함으로써 지역별 도반모임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신도들의 교류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법회는 봉은법회와 더불어 신도회 하부 조직으로 편성돼 각 지역별 법회와 모임을 진행한다. 봉은사 불자가 되고자 하는 누구나(새신도 및 봉은법회 미활동 신도) 참여 가능하며, 창립 전 사전접수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법회 사무실(02-541-7278~7281)과 홈페이지(www.bongeunsa.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아름 기자

법정 스님 7주기… '무소유' 향기 세상에

법정 스님 입적 7주기를 맞아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널리 알리는 추모법회와 음악회가 열린다.

서울 길상사(주지 덕일)는 2월 22일 오전 11시 설법전에서 법정스님 7주기 추모 법회를 봉행한다. 추모법회는 평소 법정스님이 강조한 청빈의 가르침에 따라 간소하게 봉행되며, 지난 2004년 12월 '지혜로운 삶의 선택' 주제로 한 스님의 생전법문을 영상으로 편집해 신도들과 함께 시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길상사는 26일 오후 2시 설법전에서 '법정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를 연다. 음악회는 도종환, 함민복, 박형준, 박소란, 함명춘 등 국내 시인들과 작가 편혜영 씨가 참여해 스님의 저서 〈산에는 꽃이 피네〉의 구절을 선정해 낭송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찬범음의례교육원에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Bulchan buddhist Ceremony Education Institute
한국불교 전통 의식범례를 온전히 복원 전승하는 승가교육대도량

스님이라면 누구나 염불을 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지요?

- 염불을 잘하고 싶은데 ..... (범패)
- 회심곡도 잘하고 싶은데 ..... (회심곡)
- 북도 치면서 염불을 신나게 하고 싶은데 ..... (소북, 법고, 장단)
- 의식을 왜 이렇게 하는지 알고 해야 하는데 ..... (불교의식이론)

배우려면 어디로 가지? 하고 의문이 든다면
불찬범음의례교육원을 검색해 보세요.

NAVER 불찬범음의례교육원 검색
DAUM 불찬범음의례교육원
YouTube 불찬범음의례교육원

☎ 문의 02-831-1057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고요의 공간서 던진 화두 '是甚 '

〈이뭣꼬〉

정휴 스님의
백담사 무문관
'是甚 日記' ②





백담사 무문관에 입방하기 위해 길을 오르는 스님들. 무문관에 입방한 수행납자들은 고요의 공간에서 이름도 없고,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를 찾기 위해 치열한 구도행을 펼친다.

올라갈수록 울창한 숲은 다가서고 계곡은 깊어진다. 누가 이곳에 길을 열고 계곡을 만들었을까 분명히 천기(天氣)가 움직여 바람과 구름이 일고 천둥이 쳐서 길을 내고 암벽을 부수는 벼락이 쳤을 것이다.

한참동안 고개 길을 돌아 올라 갔지만 그때마다 다가서는 것은 산(山)의 신령스러움과 계곡에서 스며오는 차가운 골기(骨氣)였다.

잠깐 쉬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으니 봉정에서 시작된 바람이 천불동을 거쳐 다시 방향을 틀어 계곡을 타고 내려오고 한쪽 귀로는 귀천(歸天)을 하기 위해 어제 저녁에 나섰던 쇠북노리가 하늘을 오르다가 숨이 차서 다시 하강하는 소리가 들렸다.

눈앞에 가득 찬 나무들은 비울 것 다 비우고 벗을 것 다 벗은 채 다 내려놓고 좌탈(坐脫)이 아닌 입망(立亡)으로 서 있었다.

백담사 무문관에서 그와 함께 한철을 지내기 위해 나섰는데 쉬는 동안 내 마음에서 빠져 나가고 없었다. 무문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었다. 나보다 먼저 와 있었다.

걸망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자 낯선 침묵이 반색을 하며 물러섰다. 그 침묵은 다시 나를 가득 채울 것이다. 그리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그가 있었던 시원(始源)을 알기 위해 공겁(空劫) 밖으로 걸어 갈 것이다.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어둠이 없는 곳에서 생멸이 없이 살고 있었다.

무슨 인연을 맺어 내 안에 들어와 주인(主人)이 되었는지 모른다. 어느 날 새벽에 그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 온 것을 눈치 채고 찾아보았지만 소재(所在)를 알 수 없었다. 살아도 늙지 않고 죽어도 생멸이 없는 빈 모습으로 살고 있어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를 찾아 깨달음을 얻은 마조(馬祖)는 마음이라 했고 임제(臨濟)는 무위진인(無位眞人)이라 부르고 암두(岩頭)스님은 암자(庵子) 속에 늙지 않은 늙은이라고 했지만 그는 원래 이름이 없었다.

그래서 서산(西山) 스님은 그의 대표적 저서인 〈선가귀감〉에서 이름도 지을 수 없고 모양도 볼 수 없다고 했다.

마조는 마음이 부처라고 선언하자 많은 수행인들이 '마음이 부처'란 틀 속에 갇히자 '중생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라 했고 조선조 함허득통 선사는 그는 '안과 밖, 중간 그 어디에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디에도 없으며 온 누리를 두루 보아도 있는 곳이 없다' 고 했다. 또한 사람의 눈 밝은 선지식인 영허 선사는 '모든 부처가 이곳에서 비롯되었고 중생 속에 들어가선 주인(主人)이 되었다' 고 했다.

그러나 임제(臨濟) 선사는 이것을 찾으면 멀어지고 구하면 잃게 된다고 하면서 펼치면 온 법계를 감싸고 남음이 있으며 호젓이 밝아 한 번도 모자람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성자라고 부르는 신라의 원효 스님은 자신의 대표적 저서인 〈기신론〉에서 '있다고 할까 한결같은 모습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만물이 이로부터 나온다' 고 했다.

그래서 임제 선사는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듣지 못한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는가' 하고 되묻고 있다.

백담사 숲을 거쳐 도착한 무문관
문 여니 '無名의 그' 먼저 와있네
선사들 '그'를 마음·眞人이라 불러
볼 수도 들을 수 없는 '그'를 찾아
확장된 사색 공간서 '이뭣꼬' 참구

천년을 한 생각 속에 이루리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앉아 있으니 간밤에 나와 함께 머물렀던 고요가 방안으로 흩어져 있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감옥의 독방과 다름없었다. 거기다가 출입하는 문을 잠궈 놓았기 때문에 나갈 곳이 없었다. 다만 낮이면 햇빛이 염치도 없이 찾아 들었다가 슬며시 사라지고 만다.

아침이 밝았지만 하늘을 볼 수 없고 새소리만 간간히 들렸다. 무문관에 들어와서 처음 듣는 새소리였다.

독방에 갇혀 있지만 사색의 공간은 무한대로 확대됐다. 그만큼 나를 살피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동안 반복된 일상으로 굳어진 나의 모습과 습관의 중독된 일부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3개월 동안 나를 엿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보고 듣는 대상이 없어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었다. 그동안 보고 듣는 것에 얽매여 자유스럽지 못했고 보고 듣는 내용에 따라 일희일비했기 때문이다.

먼저 내 나름대로 시간표를 만들어 3개월 동안 실행해보기로 나에게 다짐하였다. 만약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내 스스로에게 한 약속은 깨지고 말 것이다. 시간표는 좌선할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화두(話頭)는 '시심마(是甚)'를 들기로 하였다.

'내가 누구인가' 하고 묻는 근원적인 질문이다. 비록 그가 소재(所在)가 없고 모양이 없지만 묻고 찾아보기로 했다.

임제 선사가 말했듯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어 무어라고 불러야 하겠는가 묻고 있듯이 '그것은' 내 안을 떠나지 않고 있다. 비록 찾으면 벌어지고 구하면 잃게 되더라도 사유를 통해 탐구하지 않을 수 없다. 화두를 참구하다가 혼침(昏沈)과 도거(掉擧)에 빠지더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드리기로 했다. 그동안 몸과 마음으로 익힌 업(業)이 삭고 삭아서 없어질 때까지 혼침과 도거에 빠져 화두를 잃고 또는 잃는 반복을 거듭거듭 하기로 생각했다.

11시가 되자 창문 한 쪽에 뚫어 놓은 구멍으로 점심 도시락이 들어왔다. 이곳에 와서 독방에서 홀로 맞이하는 공양 시간이었다. 앞으로 하루 한 끼만 먹고 석 달을 버티어야 한다.

원효 스님은 〈발심수행장〉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밥을 구하는 생각을 버려야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좌선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큰 바위처럼 무거운 침묵이 있어야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목숨을 버리겠다는 근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불퇴전의 신념이 있을 때 생사의 관문은 열리게 된다.

〈벽암록(碧岩錄)〉의 저자인 원오극근(圓悟克勤) 선사는 심요(心要)에서 밝히기를 허망한 속박을 벗고 생사의 소굴을 부수려면 첫째 근기가 매서워야하고, 둘째 영원토록 물러서지 않겠다는 서원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을 참학자는 주목해야 한다.

원오극근 선사는 선종사에 등장된 인물 가운데 고통을 치루고 깨달음의 가치를 얻은 선사(禪師)들의 기연(機緣)을 소개하고 있다.

오조(五祖) 홍인(弘忍)에게 깨달음을 인가받고 육조(六祖)로 등극한 혜능(慧能)선사는 어깨에 돌을 짊어지고 방아를 찧었고 물을 길러 나르다가 어깨에 피부가 벗겨나가는 고통을 참았고 장경혜능(長慶慧稜) 선사는 설봉의 슬하에서 15년 동안 좌복이 일곱 개나 닳고 닳도록 앉아서 참구를 멈추지 않았고 엉덩이에 살이 빠져나가고 고름이 피범벅이 되어 뼈가 보이는 고통을 참으면서 화두(話頭)를 참구하였고 향림(香林) 선사는 매일 쉬고 나날이 덜어내는 정진을 계속하여 의심이 없는 곳에 이르는데 40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선사들은 목숨을 버리는 용맹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활활 타고 있는 불속에 몸을 던진 수행자도 있었고 자기 육신을 호랑이 먹이로 받칠 만큼 용맹함을 보였다고 심요(心要)에서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내안을 뒤져보아도 세월을 깔고 앉아 큰 바위처럼 침묵하고 있는 무서운 끈기도 없고 신념도 없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 한번 뜨지 않고 칼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미동도 하지 않은 큰 바위 같은 부동심(不動心)이 없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성난 파도처럼 지나가고 성난 짐승처럼 칭얼대었다. 마음 속을 빠져 나가는 상념을 붙들어 제자리에 앉히고 심지(心地)가 흔들리지 않도록 화두를 계속 참구하였다.

원오극근 선사가 말했듯이 생각을 덜어내고 놓아 버리지 못한 것을 더욱 내려놓고 비워서 밑바닥이 보일 때까지 비워야 뼈마디인 실상이 보일 수 있다.

조그마한 신근이 쌓이고 진실이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울 만큼 사무친다면 견고한 신념으로 변할 것이고 탐구와 천착이 깊어진다면 막혀 있던 관문은 열릴 것이다. 그리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일념(一念)이 만년(萬年)이 되게 하고 만년(萬年)이 일념(一念)이 되는 무념무상으로 순일무잡(純一無雜)하게 정진이 깊어지면 백척간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배워서 안 것과 얻고 잃음의 틀을 버리고 백척간두에서 손을 놓아버리고 한 발자국 옮기면 몸을 바꾸는 출신(出身)의 길이 열릴 것이다.

석상(石霜) 스님은 참선하는 수행납자들을 만날 때마다 '쉬어라 푹 쉬어라. 입술에 곰팡이가 되도록 쉬고 일념이 만년(萬年)이 되고 만년이 일념 속에 이루어지면 생사가 한 덩어리가 될 것' 이라고 누누이 강조한 뜻을 되새겨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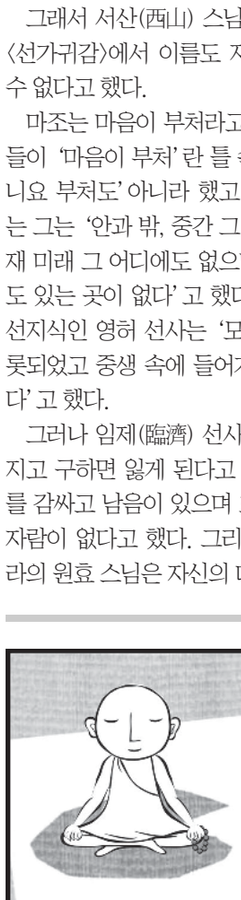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을 보면 한결같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 마치 큰 망치로 두들기고 쇳물이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서 단련하는 일로 생각했고 뼈를 잘라내고 골수를 취하는 것 같이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화두(話頭)는 '마음의 바탕을 여는 열쇠' 이다. 그 열쇠를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 안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자기 손에 있으나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의 바탕에는 무진장의 보배창고가 있다. 그 안에는 온갖 지혜와 덕(德)이 갖추어 있고 써도 써도 줄어들지 않는다.

이것은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하면 구할수록 어둠을 만나게 되고 알음알이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원오극근 선사가 말했듯이 모든 사람의 보배 창고는 예부터 지금까지 역력하고 텅 비어 항상 밝고 신령스럽다고 했다.

창밖에는 칼날선 바람이 파도처럼 지나가고 다시 문 앞에서 칭얼대고 있다. 한참동안 불던 바람이 그치고 숨어있던 적막이 엄습하였다. 바람이 모든 것을 쓸고 간 빈 터가 보였다. 그것은 영혼의 빈터같이 소리도 없고 울림도 없었다.

가부좌를 틀고 앉은 지 벌써 두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일념(一念)속에 만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유가 깊어지니 두 시간이 일순간에 지나가 버린 것이다. 무문관에 들어 온지도 벌써 한 달이 다되어 가고 있었다.



동명세계선센터 선수행학교 개강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님의 향기처럼…

엄동의 한설이 날개를 접고 봄의 신령이 우리의 가슴으로 다가오는 희망의 계절입니다. 이러한 계절에 전국 400개 대학에 오직 하나뿐인 동명세계선센터에서 선으로 행복을 노래하고, 선으로 힐링하며, 영원의 세계에 이르는 선수행 학교 7기생을 모집합니다. 동명세계선센터 선원장이신 수진스님의 직접지도와 명쾌한 강의는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꿔 놓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일 시	2017년 3월 8일부터 4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일정 변경할 수 있음)
지도 및 강의	수진스님(범어사 율원 율주 · 세계선센터 선원장)
대 상	선 수행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장 소	동명대학교 세계선센터(동명관 4층)
수 학 료	4개월(10만원) ※개근상(수진스님 친필 한폭)
접 수	☎ 051)629-3583~4, 전송 051)629-3589

동명세계선센터 선원장 관허 수진 합장

부산시 남구 신선로 428 동명대학교 동명관 4층 세계선센터

2017년도 탄허 강숙(呑虛講塾) 수강생 모집

오대산 월정사, 한암 · 탄허문도회 부설 – 전통 강원식 한문 교육의 장 –

오대산 월정사는 『화엄경』 등 강원 교재를 완역하신 탄허(呑虛) 큰스님의 교육 정신과 인재 양성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탄허 강숙(呑虛講塾)'을 개원합니다. 탄허 강숙에서는 한문으로 된 불교 경전을 강의, 강독합니다. 원전 강의로서 한문 독해 실력을 높여 한문 불전을 번역할 수 있는 불교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일정 및 장소

- 강의기간 : 3월 13일(월) ~ 6월 29일(목) 총 16주
- 강의시간 : 오후 7시 ~ 8시 50분
- 강의방식 : 한문 불전 원전 독해
- 강 의 실 : 두산위브 파빌리온 634호(지하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5호선 광화문역 5분 거리)

■2017년 1학기 개설 강좌

	월	화	수	목
원전명	벽암록	대승기신론	원각경	서장(書狀)
강 사	석지현	은정희	대진스님	이상하

■지원서 제출 및 등록

- 접수기간 : 2017년 2월 13일(월) ~ 3월 10일(금)
- 접수방법 : 도서출판 민족사 홈페이지(www.minjoksa.org)에서 지원서 다운받은 후 이메일(minjoksabook@naver.com)로 제출.
  ※ 접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수 강 료 : 과목당 1학기(4개월) 20만원(일시불)
  ※ 전과목 수강할 경우 50만원(4과목 4개월 일시불)
- 수강인원 : 과목당 15~20명(연령, 자격 제한 없음)
- 입금계좌 : KEB하나은행 147-890013-25907
  예금주 : 윤재승
  수강료 입금시 수강자의 이름(수강자와 동일한 이름)을 표시할 것. 교재비는 별도(3만원~5만원). 교재는 당일 배포.

■안내 및 문의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732-2403, 팩스 739-7565로 문의

■강사프로필

- 『벽암록』 석지현 : 「역주완역 벽암록」·「역주완역 종용록」·『禪詩감상사전』 등 다수 번역
- 『대승기신론』 은정희 : 전 서울교대 교수. 『대승기신론소』·『금강삼매경론』·『이장의』 등 번역
- 『원각경』 대진스님 : 전 동화사 강사, 한국고전번역원 연수과정,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박사과정 수료. 「인천안목」·『명추회요』·『불조역대통재』 등 번역
- 『서장』 이상하 : 현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원 교수. 「십지경론」·「십송률」·『한암 · 탄허선사서간문』·『경허집』 번역

폐허의 초전법륜지서 '中道'를 만나다



윤범모 교수의 '佛道紀行'
– 붓다가야에서 토함산 석굴암까지

③ 초전법륜의 녹야원

깨달음을 찾아 걸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길. 깨달은 다음에도 계속 걸었다. 길은 항상 머나먼 길. 길은 멀어야 길다웠다. 붓다는 깨달음의 땅 보드가야를 떠났다. 평생 안주(安住)라는 말과 거리를 두었다. 고행 끝에 몸은 늙어 노쇠했다. 보드가야 부근 우루벨라에서 바라나시로 가는 길, 중간에 어머니의 강인 갠지스를 건너야 했다. 직선거리로 200km 정도. 일주일동안 걸식하며 맨발로 가는 길. 붓다는 왜 바라나시로 갔을까. 스승을 버리고 떠난 제자 다섯 비구를 위해서였다. 중생의 부처가 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깨닫고도 걸었다. 그것도 맨발로. 녹야원이라 불렀다. 초전법륜의 거룩한 땅이다.

"수행자들이여. 괴로움이라고 하는 진리(苦諦)가 있다.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며, 늙는 것도 괴로움이며, 병을 앓는 것도 괴로움이며, 죽는 것도 괴로움이다.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안타까움도 괴로움이다. 미워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며, 우리의 인생 전부가 괴로움이다."

정말 고해(苦海)이다. 우리네 인생사가 괴로움의 집적이 아니라면, 무슨 재미로 살까. 물론 역설적 표현이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살아볼 가치가 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극락이 있다. 상대적 개념이다. 고해를 사랑하면 인생의 즐거움도 얻을 수 있다. 그건 그렇고, 녹야원에서 내린 첫 설법은 주목을 요한다. 그것은 고집멸도의 사성제(四聖諦)와 더불어 팔정도(八正道)이다. 물론 모두 부분에서 강조한 것은 중도(中道)였고, 그리고 팔정도로 이어졌다.

중도사상이란 성철 스님이 '백일법문'에서 강조했듯, 모든 진리를 융합한 우주의 근본원리이다. 그래서 '불교를 바로 알려면 부처나 마구니를 함께 다 버려야 합니다. 부처와 마구니가 서로 옳다고 싸우면 양변에 집착했기 때문에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중도사상은 '모순 상극된 상대적인 차별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이 융합된 절대 원융자재한 대원리'인 것이다. 중도는 해탈로 가는 직행 길이란 말인가. 중도! 붓다께서 처음으로 설파한 사상. 바로 불교사상의 첫 번째 키워드는 중도. 중도를 말씀하신 사르나트를 거닌다.

녹야원(鹿野苑)이라고 번역한 사르나트. 바라나시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이다. 오늘 바라나시의 갠지스 강가에 가면 힌두교들의 성지답게 이색풍경을 볼 수 있다. 강의 상류에는 시체 화장장이 있어 항상 불길이 치솟고 있다. 죽음의 잔재가 떠내려가는 아래쪽 강변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강물에 온몸을 담그면서 '씻는다.' 내 눈에는 흙탕물 같아 절대 몸을 담그지 않을 것 같은데 그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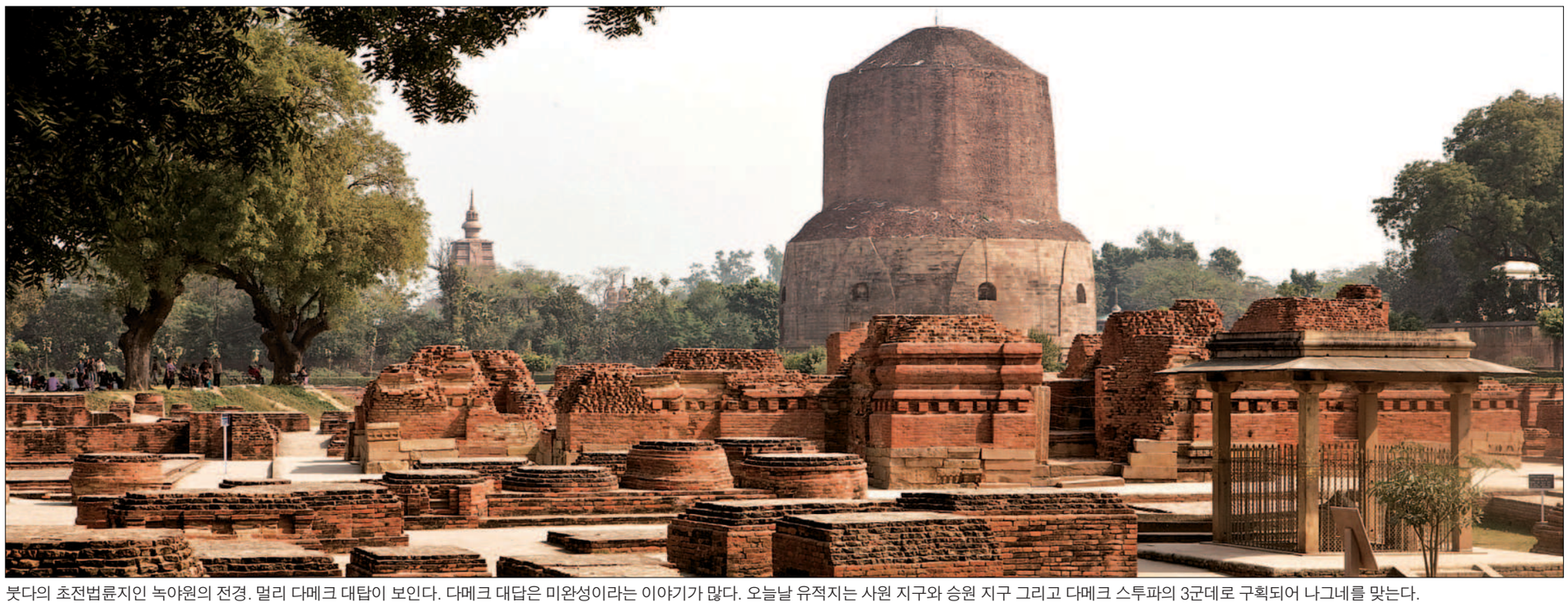
생사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강이다. 갠지스 강에 배를 띄워 먼발치에서 이런 장면을 음미한다. 해질녘 강가에서 펼쳐지는 힌두교도들의 의식은 한마디로 장관이다. 그렇게 장엄한 퍼포먼스도 없을 듯하다.

바라나시 시가지를 거닌다. 사람보다 소들의 행렬이 먼저 다가온다. 어슬렁거리는 소. 소 한 마리가 도로 한복판에 누워 쉬고 있어도, 그러니까 차량 행렬을 막고 있어도, 운전사는 불만을 내색하지 않는다. '오, 소 하느님,' 오히려 공경의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 힌두교의 독특한 광경이다. 그들에게 있어 소는 하나의 신, 그래서 사람이 굶어 죽을지언정 쇠고기를 먹을 수 없다.

사르나트에 갔다. 내 눈에 사슴이 보이지 않는다. 녹야원이라면 사슴 천국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날 녹야원에서는 사슴을 만날 수 없다. 그냥 폐허이다. 사르나트라는 말은 '사슴의 왕'이라는 '사랑가나타'에 어원을 두고 있다.

〈본생담〉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사슴고기를 좋아하는 바라나시 왕을 위해 사슴들은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해 스스로 희생물이 되었다. 그러다가 새끼를 밴 사슴 차례가 왔다. 이에 붓다께서 대신 희생하려고 사슴으로 태어났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왕은 결국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는 감동의 스토리이다.

사슴은 붓다인가. 녹야원에서 사슴을 볼 수 있다면, 바로 붓다와 만난다는 뜻인가. 그래서 먼지 묻은 내 눈에는 사슴을 볼 수 없었다는 것. 그것도 모르고 사슴 보겠다고 여러 차례 사르나트에 갔었으니,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먼가보다.



붓다의 초전법륜지인 녹야원의 전경. 멀리 다메크 대탑이 보인다. 다메크 대탑은 미완성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오늘날 유적지는 사원 지구와 승원 지구 그리고 다메크 스투파의 3군데로 구획되어 나그네를 맞는다.



녹야원의 유구들. 18세기 대홍수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다리 보수를 위해 녹야원의 석재들을 가져다 썼다.

다섯 비구를 위해 길 떠난 붓다
걸어 도착한 녹야원서 첫 전법
18세기 홍수로 현재 유구만 남아

'사슴의 왕'이란 語原가진 녹야원
수많은 주춧돌은 상념을 낳는다

초전법륜의 땅 사르나트를 거닌다. 무너진 건축의 잔해 사이로 뜨거운 태양만 강렬하다. 어느 곳이 첫 번째 설법의 장소였을까. 속인의 짧은 생각이어서 그랬을까. 왜 현지에 도착하면 이런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걸음을 재촉할까. 18세기말 대홍수는 파괴의 원흉이다. 떠내려 간 다리를 다시 세우려고 사람들은 녹야원 석재를 뜯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적은 폐허로 대체되었고, 거대한 다메크 스투파 정도만 살아남았다.

오늘날 유적지는 사원 지구와 승원 지구 그리고 다메크 스투파의 3군데로 구획되어 나그네를 맞는다. 다르마라지카 스투파는 첫 설법지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 다메크 스투파는 오늘날 상징적 건조물로 남아 있다.

여기에는 기원전 3세기의 아쇼카 시대의 기초가 남아 있다. 가장 오래된 유물이라 할 수 있는 아쇼카왕의 석주의 기둥이 남아 있다. 파손된 석주 꼭대기 부분의 사자 조각(현재 사르나트 박물관 소장)은 오늘날 인도의 국장(國章)이다. 4마리의 사자가 각기 등을 맞대고 서 있는 모습, 한마디로 걸작이다. 마치 사자가 살아 있어 그야말로 사자후(獅子吼)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 생동감으로 넘치는 조각술은 가히 세계적 자랑거리다.

이 사성수(四聖獸)의 주두(柱頭) 아래 4군데의 법륜과 코끼리, 수소, 말, 사자 같은 동물이 새겨져 있다.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물론 법륜은 불법의 상징이지만 수레바퀴가 아닌가. 수레는 역시 길 위에서 기능하는 운반용이다. 아쇼카 석주의 사자와 원형 조각은 정말 아름답다. 인도의 상징으로 삼을 만한 걸작이다.

사르나트 박물관에 가면 또 다른 걸작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초전법륜인 불좌상'이다. 굽타시대 작품으로 아름답기 그지없다. 원형 두광에 결가부좌한 붓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반듯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다. 첫 법문의 80세에 이르는 노구의 붓다 모습과 달리 이 불상은 청년 같다. 어쩌면 그렇게 요즘의 꽃미남처럼 멋있을까. 불상에서 고행의 과거 모습은 보이지 않고 평화 그 자체만 오롯이 담겨 있다. 대좌에는 중앙의 법륜, 그 좌우에 붓다의 첫 제자인 5비구, 여인과 아이의 공양자, 사슴 2마리가 새겨져 있다. 사르나트의 붓다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첫 번째 법문을 내렸을까.

물론 사르나트에서 발굴된 불교조각은 굽타시대 5세기경 작품을 비롯 상당수에 이른다. 투명한 옷, 하지만 옷 주름이 표현되지 않은 입상의 붓다 등 눈길을 끄는 작품은 많다. 이들 조형물이 원위치에서, 그러니까 건축물이 파괴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하면서, 원래대로 보존되고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녹야원을 걷는다. 주춧돌이나 기단부만 남은 건축의 잔해를 본다. 폐허에서 옛 영광을 본다. 폐허에서 중도를 볼 수 있다면, 파괴의 신도 사랑하란 의미인가. 그러니까 폐허의 마구니까지? 무너진 주춧돌은 많은 상념을 불러일으켜 준다. '잔해'를 넘어 또 다른 잔해, 거기에 다메크 스투파가 있다. 거대한 원형 탑, 직경 28m에 높이 약 43m나 된다. 거대한 집적이다. 탑은 점토와 석재를 쌓아 둥그렇게 만들었다. 외부 장식은 기하학적 문양이 있는 벽돌로 마감했다. 특이한 것은 아랫부분의 마감에 비하여 상부는 그렇지 않아 대비를 이룬다. 이를 두고 '미완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과연 다메크는 도중하차한 건축인가. 흥미롭다.

우리 속담에 '공든 탑 무너지랴'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탑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 성주괴공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건축은 폐허를 지향하는 것인가? 무너지기 위해 세우는 탑. 나는 녹야원에서 사슴 찾기를 포기해야 했고, 또 탑 보기를 포기했다. 다메크에서 탑돌이를 하면서도 나는 탑을 돌지 않았다. 그냥 걸었을 뿐이다. 매일 걷는 길처럼 걸었을 뿐이다.

"수행자들이여. 잘 알아야 한다. 출가 수행자에게는 반드시 버려야 할 두 가지 장애가 있다. 무엇이 두 가지 장애인가? 첫째는 마음이 욕망의 경계에 집착해 쾌락에 빠진 것이니, 이는 어리석은 범부들이 찬탄하는 바이며 출가인의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는 무익한 것이다. 또 하나는 자신의 육체를 스스로 괴롭히는 것에 열중해 고행에 빠지는 것이니, 이는 출가의 목적과 수단을 전도한 것으로 심신이 모두 고통의 과보에 떨어질 뿐 출가인의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해탈의 원인이 아니며, 욕망을 소멸하는 원인이 아니며, 부처를 성취하는 원인이 아니므로, 반드시 버려야 한다. 수행자들이여, 여래는 이 두 가지 치우침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깨달았다." – 초전법륜의 사르나트 폐허에서 들은 사자후

〈미술평론가, 가천대 명예교수〉
사진=황헌만 사진작가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원명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설산

감찰원
감찰원장 석월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 원 장 석 오
문 원 장 석법주
교 원 장 석도일
원 장 석지광
교 원 장 석

종 무 원
전 종무원장 석설산 종 무 원 장 석법경 종 무 원 장 석 오
전 종무원장 석법진 종 무 원 장 석덕오 종 무 원 장 석 해

총 무 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지혜
총무부장 석화성
교무부장 석지담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문 도 회
문도회회장 석법현
문도회부회장 석법진
문도회총무 석해안
문도회감사 석지혜

중 앙 원 회
전 원 장 석도현
전 회 장 석지현(경주)
전 총 무 석 정
전 도 회 회 장 주
정 원 장 정
무 원 장 일
종 사 회 회 장 대
종 원 장 혜
전 회장 한

봉 행
(사)대원불교조계종
금 강 계
사 구 사 수 법
● 일 시 : 2017년 양 3월 11일 요 일 오 2시
● 장 : (사)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
● : 055)364-4747 / 010-2418-2462
(총무원장 혜오스님)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전통 강원 방식 한문 강좌 열린다

'탄허 강숙' 3월 13일부터

강원 전통 방식으로 경전을 강독하는 강좌가 마련된다.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는 오는 3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16주 동안 두산위브 파빌리온 634호에서 2017년 탄허 강숙(呑虛講塾) 강좌를 진행한다.

강의 방식은 한문 불전 원전 독해로 이번 강좌에서는 〈벽암록〉을 비롯해 〈대승기신론〉, 〈원각경〉, 〈서장(書狀)〉에 대한 강독을 진행한다.

강사로는 前 동화사 강사 대진 스님을 비롯해 석지현, 은정희 前 서울교대 교수, 이상하 한국고전번역원 교수가 참여한다.

수강 접수는 2월 13일~ 3월 10일이며, 과목당 15~20명만 받는다. 수강료는 1과목당 20만원이며, 전과목을 수강할 경우 50만원이다. 교재비는 별도.

접수 방법은 도서출판 민족사 홈페이지(http://www.minjoksa.org)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minjoksabook@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월정사는 "원전 강의로서 한문 독해 실력을 높여 한문 불전을 번역할 수 있는 불교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02)732-2403 **신성민 기자**

경영·사찰음식·언론 등 융합적 주제 '강세'

동국대, 상반기 석·박사 논문 살펴보니

현대 경영학 문제와 해법을
초기불교 경영 사상서 찾아
공리주의로 원효 사상 조명

사찰음식 관련 석사논문 봇물
불교계 언론 분석한 논문도

동국대는 2월 16일 상반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을 통해 학사 2,005명, 석사 530명, 박사 102명 등 총 2,637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이중 불교관련 논문을 통해 학위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3명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석·박사 학위 논문들은 경영학과 서양 윤리학 비교 연구를 비롯해 사찰음식, 언론학 등 융합적 주제가 강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장성우(불교학과) 씨는 박사학위 논문 〈초기불교 경영사상 연구〉를 통해 현대 경영학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으로 초기불교 경영사상을 주목했다. 장 씨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경영과 인간의 영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영성(靈性) 기업의 한계를 규명하고, 대안으로 초기불교의 경영사상을 고찰했다.

초기불교시대 인도는 경제대국으로, 이 시대 초기불교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개인주의를 성숙시키는 가르침으로 건전한 사유재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음을 정 씨는 주목했다.

또한, 재화의 사회회향 과정에서 사무량심(四無量心)의 수행과 함께 연기법을 비롯한 제법(諸法)을 설하며 진정한 수행으로서의 경영을 지향했음을 강조했다.

장 씨는 "재물과 법에 대한 나눔이라는 과정은 열반을 위한 수행 과정인 동시에 건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했다"면서 "초기불교의 경영사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현대 경영사상이 가진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근배(윤리문화학과) 씨는 박사학위 논문 〈원효윤리사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서양의 대표적 윤리 이론인 공리주의와 원효 스님의 사상과 윤리를 비교·분석했다. 김 씨는 원효 스님의 윤리와 공리주의가 '동체자비'에 맞닿아 있음을 주목하고, 이는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임을 밝혔다. 다만, 벤담과 밀의 고전적 공리주의의 쾌락 개념을 피터 싱어의 '선호 공리주의'로 대체했다.

김 씨는 "싱어는 '이익 평등고려 원칙'을 윤리적 판단의 기초로 받아들인다"며 "불교적 사유 역시 모든 존재들은 불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생명존중사상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간과 동물들의 행복과 복지를 추구하고, 고통을 경감시킨다는 현실적 지침을 공유하는 불교 윤리와 공리주의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덕적 갈등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석사 학위에서는 사찰음식과 관련한 논문들이 4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수진(조리교육전공) 씨는 석사 학위 논문 〈사미·사미니 승려들의 식행동과 음식 기호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11개 승가대학의 사미·사미니 스님들의 식생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했다.

한 씨는 "식생활이 불량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과식과 칼슘, 단백질과 같은 불균형적 음식 섭취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비만과 위장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작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식사시간을 조정하고 표준식단 개발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숙(조리전공) 씨의 석사학위 논문 〈총림사찰의 후원운영현황 및 하안거 기간의 식단평가〉는 조계종 8대 총림의 후원 관리 현황과 안거 기간 식단에 대한 영양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서울·경기지역 사찰음식 조리교육 수강생의 교육에 관한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문은상, 조리교육전공)〉, 〈외식·조리 전공 대학생들의 사찰음식에 대한 인식과 대중화 방안 연구(허인준, 조리교육전공)〉 등도 석사학위 논문으로 발표됐다.

불교계 언론에 대한 논문도 있었다. 김주일 본지 편집국장은 신문방송학 석사학위 논문 〈한국불교 언론의 보도시스템에 관한 분석 연구〉를 통해 한국 불교 언론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등을 모색했다.

김 국장은 현재 불교계 언론에 종사하고 72명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70명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불법홍포'를 불교 언론의 중심 기능으로 봤다. 또한 불교 언론의 게이트 키핑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내부요인으로는 데스크와 언론관, 경영층 등의 순이었으며, 외부 요인은 종단과 취재원이 가장 높았다. 다만, 평기자들은 외부 영향력 행사 주체가 '없다'고 인식한 반면, 간부급 기자들은 '조계종 등 제종단'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불교계 언론 기자들은 저널리즘적 기능보다는 포교 기능을 우선한다"며 "그러면서도 불교계 기자들은 저널리즘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언론 윤리 강령을 제정하는 등 불교 포교와 언론의 비판 기능과 충돌할 때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지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강의

근본불교硏 전반기 강좌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을 해석하는 강좌가 열린다.

근본불교연구회는 3~6월까지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저자인 이중표 전남대 교수를 초청해 전국에서 강의를 진행한다.

매주 2시간씩 총 32시간에 걸쳐 〈금강경〉 전문을 산스크리트 원문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강의는 서울, 광주, 구례에서 이뤄진다. 교재는 이중표 교수의 저서〈니까야로 읽는 금강경(金剛經)〉이다.

서울 강의는 종로구 법련사에서 3월 11일부터 격주 토요일 오후 2~5시에, 광주 강의는 금남로불교교육원에서 3월 9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에, 구례 강의는 구례장애인복지회관에서 3월 18일부터 격주 토요일 2시~5시에 열린다. 수강료는 20만원이다.

서울: (010)3600-7890, 광주: (010)-3666-1953, 구례: (010)9052-8179

신성민 기자

"삼국유사, 불교문화 콘텐츠의 보고"

명계환 씨, 세불硏서 주장

〈삼국유사〉 전법서로의 역할
일연 스님 사상 정립 등 과제



세계불교학연구소는 2월 10일 '한국 불교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월례발표회를 개최했다.

일연 스님이 저술한 〈삼국유사〉는 불교문화 콘텐츠의 보고이며, 이를 통한 스토리텔링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 일반대학원 불교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명계환 씨는 2월 10일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가 주최한 '한국 불교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월례발표회에서 '한국 삼국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불교적 과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삼국유사〉에 대한 학계 동향을 살핀 그는 〈삼국유사〉 연구의 불교학계의 과제로 △일연 스님의 불교사상 정립 △〈삼국유사〉에 대한 전법서로서의 이해와 고찰 △대안사서로서의 역할 모색 등을 제시했다.

100여 권의 일연 스님의 저술 중 〈삼국유사〉와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만이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한 명 씨는 "일연 스님은 간화선과 조동선, 교학과 신앙, 승과 속이 일실(一實)의 가치가 평등하여 피차 분별없는 세계로 나아가고자 했다"면서 "현재 스님에 대한 불교사상 연구는 피상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명 씨는 〈삼국유사〉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전법 서적 이해와 고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실제, 〈삼국유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교와 관련된 기록들이다.

명 씨는 "〈삼국유사〉 '의해' 편에 나타난 일연 스님의 전법 인식은 우리 민족에게 자신은 '불성'으로서의 삶의 주체이며, 이를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었다"고 밝히면서도 〈삼국유사〉를 완전한 전법서로 단정해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경계했다.

그는 "〈삼국유사〉는 소수 특정인이 읽어야 할 문헌이 아닌 우리 민족이 함께 알아야 할 민족의 시원과 자취를 담은 텍스트"라며 "굴절된 시각을 경계하며 〈삼국유사〉 전체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안 사서로서 역할 모색을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에 노력할 것을 명 씨는 주장했다.

명 씨는 "〈삼국유사〉는 우리 현실의 삶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선(斜線)들의 원형이 담겼고 인간 보편 문제가 서려 있기에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스토레텔링의 보물창고"라며 "〈삼국유사〉의 의미와 구조, 성격을 반영한 불교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수료 동광 스님이 '한국 초기불교 연구의 현황과 과제' 등을 발표했다.

신성민 기자

천태지의 삼종지관 하나로 체계화

최기표 교수, 〈천태지관〉 발간… 명상 체계적 이해



명상 수행의 원류는 불교이며, 서구에서도 명상이란 거의 대부분 불교명상, 즉 선정(禪定)을 가리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2,5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을 통해 그 체계가 확립된 것이다. 명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선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최기표 금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는 자신의 저서 〈천태지관〉을 통해 중국 남북조 시대에 천태종을 개창하고 국사로 존경 받은 고승 천태대사 지의(538~597) 스님이 저술하고 설한 지관수행의 지침을 체계적으로 풀어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천태 대사가 점차지관, 부정지관, 원돈지관의 삼종지관(三種止觀)으로 나누어 여러 책에서 설명한 지관 수행법을 하나로 체계화한 첫 시도라는 점이다. 최 교수는 〈마하지관〉, 〈석선바라밀차제법문〉, 〈육묘법문〉, 〈수습지관좌선법요〉 등을 중심으로 천태 대사의 지관 수행법을 체계적이며 이해하기 쉽게 기술했다.

이 책은 기존의 경전과 논서에 전해지는 여러 수행법과 천태대사가 고안한 독특한 행법을 함께 소개한다. 또한 각각의 수행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아함부 경전과 아비달마 논서, 유식학 논서 등을 참조해 설명을 덧붙이고, 경전과 고승 전기 등에서 실제 수행 사례를 찾아 수행법이 실천되고 있는 양상도 소개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 책은 천태대사의 삼종지관 수행법을 하나로 체계화한 첫 시도"라며 "수행자들이 이 책의 내용과 자신의 수행경험을 비교해 보면 그 수행법에 대한 이론적 이해도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해동율맥 제10대 법홍대율사 추모다례재

2017년 법홍문도회 총회 공고

해동의 청정율맥을 지키는 전국의 법홍 큰스님 은법제자 문도의 모임을 개최하여
아래 일자로 다함께 모시오니 두루 동참하여 자리 빛내주시길 초청합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7년 3월 5일 일요일 (음, 2월 8일) 오전 10시**
■ 장 소 : 담양 용화사 대법당
■ 내 용 : 제 1부 – 법홍율사 추모다례재
제 2부 – 문도총회 (자유토론, 대중공사)
■ 문 의 : 061-381-2683 용화사 종무소
010-5061-8300 (총무위원 수군) / 010-8930-1785 (재무위원 수호)

문 장 : 제11대 守眞 율사
부 문 장 : 율맥 守法 존증사
자 문 : 율맥 守悟 존증사. 守覺 존증사 (원로)
전 문 : 율맥 守光 존증사. 守慧 존증사
위 원 장 : 율맥 守旺 존증사 / 부위원장 : 守月 존증사
위 원 : 율맥 守相. 守嶺. 守顯. 守山. 守安. 守君. 守護. 守雲. 守印. 守照. 守佑

재단법인 **율맥 용화사 대율원**
해동율맥 **법홍문도위원회** (대중일동)

종 도 모 집

문화관광부 허가 2009-2호 / 제2014-9호 / 등기번호 230121-0003919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종 정 승천 진성 대종사
총무원장 현문 현각

총무부원장 석담 성우 총무부장 현인 보원 교무부장 자암 정오 재무부장 현경 대암
호법부장 현수 대선 사회부장 서법 자광 포교부장 관산 지륜 비구니부장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정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승가의 길을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제방의 스님들과 인연있는 불제자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수희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3장, 사찰(법당)사진
■ 문 의 : 총무원 – 인천 서구 가정동 494-26 원각사
전화 032)578-2122. 010-5002-7392(총무원장)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총 무 원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인생에 대하여

사람의 삶이 인생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여행이 인생이다. 인도나 중국에서 2박 3일쯤 달리는 장거리 기차를 타고 가다보면 옆자리의 얼굴이 몇 차례 바뀌게 된다. 노인이 앉았다가 젊은이로 바뀌고 고운 얼굴이 앉았다가 미운 얼굴로 바뀌며 차창으로 스치는 풍광처럼 천연색 사연이 이어진다. 옆 좌석에 어떤 사람이 앉았느냐에 따라 설렘과 피로감이 빛과 어둠으로 바뀔 수 있을 터. 장거리 기차여행처럼 인생살이는 끊임없이 무대와 배역을 바뀌어가며 희(喜)·노(怒)·애(哀)·락(樂)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영원한 기쁨도 없지만 영원한 슬픔도 없는 것이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빛이 있는 곳에 어둠도 공존하는 것이다. 〈열반경〉에 등장하는 행복을 몰고 오는 언니와 불행을 몰고 오는 동생의 자매공존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인생살이의 두 개 날개이자 바퀴인 것이다. 세상의 절반이 빛이요 절반이 어둠이듯 낮과 밤의 교차로에서 쉼 없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머뭇거리며, 세월의 무게에 눌려 철이 들며 늙어가며 병들어 사라지는 존재가 인생인 것이다. 꿈과 희망을 서너 걸음 앞세워 놓고 어깨동무하듯 짝을 찾아 공든 탑을 쌓아가지만 언제나 남는 것은 마른 모래를 쥐고 있는 빈주먹과 같아 허무의 그림자만 길게 누워 장송곡의 상여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한때는 사랑으로 익어가는 희망의 꿈 밭에 땀방울로 씨앗 삼으며 낭만과 기대감으로 물 뿌리고 노력으로 거름 삼으며 빛을 모아 무지개 꿈을 키워왔지만 어느덧 해질녘에 이르면 이광수의 〈꿈〉처럼 세상살이 그 자체가 꿈속의 꿈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다. 젊어서만 목마른 게 아니다. 늙어서도 목 마르다. 청춘만 아픈 게 아니다. 노년도 아프다. 징검다리, 버팀목은 젊어서도 필요하고 늙어서도 절실하다.

군불 지피듯 따스하게 번지는 말 한 마디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 밥이 되는 영양소이다. 경쟁도 어지간하게 선택도 어지간하게 시험의 관문을 그림자처럼 달고 살아 왔지만 타작해보면 알곡 한 톨 건질 수 없는 빈손, 검불떼기뿐인 삶이 알몸으로 길게 누워 있기 마련이다. 팍팍하고 고단한 세월의 톱니바퀴에서 행복을 위해 자유를 위해 어지간히 발버둥 치며 노력해 왔지만 한 마리의 다람쥐처럼 쳇바퀴 돌고 도는 꼭두각시 인형의 삶이었던 것이다.

돋보이려 발돋움하며 키를 키워 왔지만 주눅들 일이 널려있어 마음의 키는 나날이 졸아든다. 민낯에 덧칠을 하며 가면무도회를 흉내 냈지만 삭신은 늙고 병이 들어 걸음걸이마저 자유롭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나이테 주변에 몰려드는 것은 허무의 그림자뿐이 아니다.

늙어 간다는 것은 몸에서 힘이 빠져가는 것보다 용기가 빠져 나간다는 현실의 절망감이다. 곱게 늙어가는 것도 희망사항일 뿐 현실의 벽은 녹녹치 않다. 주위를 둘러보면 떠나는 자의 뒷모습만 보일 뿐 찾아오는 발걸음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뚝 끊기게 되어있다. 혼자 밥 먹는 것을 혼밥이라 하고 혼자 술 마시는 것을 혼술이라 한다는데 사람은 누구나 늙으면 가족 형제의 숫자와 상관없이 혼밥과 혼술을 모래 씹듯 사약주 마시듯 쓸쓸함 속에서 막 내리게 되어있다.

마음의 빗장 열고 나누는 삶 살자
칭찬의 言보시 생활화 실천하길

그저 그렇게 너와 나 우리 모두는 인생이 허무하고 부질없는 꿈같다며 〈아라비안 나이트〉의 한 가닥 추억거리를 남기며 사라지게 되는 존재이다. 자, 그러므로 마음의 빗장을 열고 생각을 바꾸며 나누는 삶을 열어 가야한다. 먼저 칭찬하는 말보시를 생활화해야 한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했음을 부드럽게 마음을 담아 표현하며 매듭을 풀어가자.

사탕 한 개라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미소 띤 얼굴로 내가 먼저 인사 나누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무엇인가를 바라지 말고 무엇인가를 나누며 배려하며 개운하게 매듭 풀며 살 일이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서 아킬레우스 장군은 브리세이스 공주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신(神)이 인간을 부러워하는 것은 사람에겐 죽음이 있다는 것이다. 죽음이 있으므로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을 손님 대하듯 존중하고 나에게서 떠나는 사람도 손님 보내듯 개운하게 보낸다.'

마음이 움직이면 선이 되질 않는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중국의 오악(五嶽)가운데 형산(衡山)은 후난성(호남성) 중부에 있는 명산이다. 옛날에는 이 산을 남악(南嶽)이라 불렀다. 육조의 수제자 남악회양 선사가 이 산에 오래 주석하였으므로 호를 남악이라 하였다. 물론 천태지의 대사의 스승이었던 천태종 2조 남악혜사(南嶽慧思) 스님도 이 산에 오래 머물었기 때문에 산 이름을 따서 호를 삼았다. 이 형산의 척발봉(擲鉢峰) 아래에 복엄사(福嚴寺)라는 절이 있다. 이 절이 바로 남악회양 선사가 살았던 곳이다. 이 절 곁에 황벽희운 선사의 재가 제자였던 재상 배휴(裵休)가 쓴 최승륜탑(最勝輪塔)이라는 탑이 있고 회양 선사의 탑비가 있다. '최승륜'이란 회양 선사의 탑호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마경대(磨鏡臺)라는 표지석이 하나 세워져 있다. '마경대'는 글자 그대로 거울을 갈았다는 뜻이다. 이 마경대는 남악회양 선사와 그의 제자 마조도일(馬祖道一:709~788) 선사 사이에서 있었던 일화 때문에 생기게 되었다. 마조 선사가 전법원(傳法院)에서 선정을 익히고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마조 선사가 법당 앞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다. 이 모습을 회양 선사가 지나가다 보고 물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좌선을 해서 무엇 하려 하는가?"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첫날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끝났다.

다음 날 보니 마조 선사가 또 그 자리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다. 그를 본 회양이 마조 선사가 좌선하는 앞으로 벽돌 하나를 가져가 돌 위에 갈고 있었다. 좌선을 하다 이 모습을 본 마조 선사가 물었다.

"무엇 하려고 벽돌을 갈고 계십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그러네."

"벽돌을 간다고 어찌 거울이 되겠습니까?"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지 못하거늘, 어찌 좌선을 하여 부처가 되려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수레가 멈췄을 때 수레를 가게 하려면 수레를 때려야 하겠는가? 소를 때려야 하겠는가?"

이 말에 마조 선사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제호(醍醐)를 마신 것 같았다고 〈전등록〉에서는 말하고 있다. 굳이 부연해 말하자면 좌선을 잘하여 몸이 부동자세를 잘 갖추고 있더라도 마음이 움직이면 선(禪)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가지고 선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마조 선사는 강서(江西)에서 법을 오래 펴서 한 때 그를 '강서'라고 불렀다. 육조 스님이 회양 선사에게 예언하기를 "이후의 불법은 그대로부터 시작하여 망아지가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이리라"고 하였는데 이는 마조 선사의 출현을 두고 한 말이며, 당시 사람들이 마조 선사라고 불렀다 한다.

마조 선사는 어느 날 대중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제각기 자기 마음이 부처임을 믿어야 한다. 이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달마 대사께서 남천축국으로부터 몸소 중국에 오셔서 상승(上乘)인 일심의 법을 전하여 사람들을 깨닫게 하였고 또 〈능가경〉의 경문을 인용하여 중생 심지에 도장을 찍으니 사람들이 뒤바뀌어 믿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이 마음의 법은 누구나 갖고 있으니 이렇기 때문에 〈능가경〉에서 말하기를 '부처님 말씀은 마음을 종지(宗旨)로 삼고 문이 없음을 법문(法門)으로 삼는다' 하였다."

또 말하였다.

"무릇 법을 구하는 자는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 밖에 따로 마음이 없다. 선(善)을 취하지도 말고 악(惡)을 버리지도 말라. 자체의 성품이 본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계(三界)는 오직 마음뿐이요 삼라만상은 한 법이 찍어낸 것이다."

어떤 스님이 마조 선사에게 물었다.

"화상은 어찌하여 마음이 곧 부처라 하십니까?"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니라."

"울음을 그쳤을 때는 어찌합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니라."

또 한 번은 어떤 스님이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그러자 대사는 문득 그를 때리면서 말했다.

"내가 그대를 때리지 않으면 제방에서 나를 비웃는다."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 이치, 한마음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⑧ 신경과 마음

〈아미타경〉에서는 '물과 새와 나무 숲이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 한다'라고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운암 선사의 이 말을 듣고, 순간 견처(見處)가 열린 동산 선사는 그 감흥을 게송으로 나타냈습니다.

정말 신통 하구나 정말 신통해
무정(無情)의 설법은 불가사의 하다네
귀로 들으면 끝내 알기 어렵고
눈으로 들어야만 알 수 있으니

돌이나 나무인 무정이 설법하고 그 설법을 귀가 아닌 눈으로 듣는다는 것은 돌과 나무, 눈, 귀 등 일체가 한 마음이므로 눈이 들을 수 있고, 귀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15년 EBS에서 '감각'이란 제목의 방송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모습을 우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눈이 최초로 본 대상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본 대상을 처음 본 대상과 조합하여 뇌가 스스로 대상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의 모양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뇌가 조합해 놓은 모양 즉, 내가 보고 싶은 모양을 본다는 것입니다.

눈에 붕대를 감아서 눈과 대상을 5일 정도 완전히 차단하였을 경우, 뇌 뒷부분에 있는 시신경과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도 뇌의 앞부분에 있는 소리 신경과 해마로 이동합니다. 소리에 의존해 대상을 보게 됩니다. 즉, 눈이 없으면 대상도 없고 뇌의 시신경도 없어지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지팡이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소리를 발생시켜, 대상에 반사되는 소리를 듣고 대상의 크기를 귀로 감지하는 것입니다.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 대상을 조합하여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모습, 즉 반복적인 행위인 습관의 업보(業報)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상이 깨끗하고 더럽고, 예쁘고 밉고, 크고 작은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분별하는 망념으로 그와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범소유상(凡所有相)이 개시허망(皆是虛妄)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하면 즉견여래(卽見如來)이니라. 무릇 있는 모든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현상이 현상이 아닌 줄을 보면 곧 여래를 본다' 고 하셨습니다.

일체는 분별이 없어 본래 공적하고, 본래 청정하며, 본래 열반이고, 본래 해탈이며, 본래 구족하고, 본래 부처인데 우리들의 6근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망념에 막혀서 참모습의 이 마음을 못 보는 것입니다.

눈에 붕대를 감아서 눈과 대상을 완전히 차단하였을 경우, 시신경과 해마가 소리신경과 해마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시신경과 소리신경이 한 마음으로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서로 공유,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님이 지팡이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소리를 발생시켜 소리가 대상에 반사되는 것을 듣고 대상의 크기를 귀로 볼 수 있는 것은, 6근과 6진이 한 마음이므로 귀가 듣고, 보고, 냄새 맡으며, 맛을 보고, 감촉을 느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근도 이와 다르지 않는 까닭은 마음이 듣고, 듣는 것이 마음이며, 마음을 듣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법당 상황따라 !

마이크 단추 한 번 누름에서 장엄하고 위엄어린 소리!
청아하고 은은한 소리! 구슬프게 젖어드는 소리가
연출되어 '재'스님들에게는 평생 밥줄 마이크!

장사 수단

각종 염불시설을 갖추고 법당에서 소리만 비교 후 쌔엥! 가버리면 아! 그 소리 듣고나서 염불이 너무 힘들어! 안되겠어! 한 번 들러요!

백팔번지 이곳은 각종 시스템을 진열하고 많은 스님들을 모십니다. 구경 한번 오시지요!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주)염불소리 ☎ 055)343-1191, 010-9471-2026

70년 수행, 여전히 행복에 이른다

정여 스님, 2월 15일 '행복에 이르는길' 특별법석



정여 스님은 2월 15일 국제신문 4층에서 특별법석 '행복에 이르는 길'을 진행했다. 즉문즉설을 하고 있는 정여 스님(가운데)

고희(古稀)기념 수행 회향 법문
마실상좌의식 통해 불제자 격려
즉문즉설로 봉암사 안거 소회
사부대중 500여명 참석 '성황'

70세를 뜻하는 고희(古稀)는 두보의 시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에서 유래한 말로 '드물다'는 뜻이다. 이러한 드문 행적의 예로 정여 스님(前 범어사 주지)은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 고령의 나이로 봉암사 동안거를 성만했을 뿐 아니라 2월 15일 국제신문 4층 강당에서 70년 동안 얻은 수행의 결과를 회향하는 특별법석을 펼친 것이다.

'행복에 이르는 길'이란 제목으로 연 특별법석은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 김해 여여정사 주지 도명 스님,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왕선자 부산여성불자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법문에 앞서 정여 스님과 내빈들은 헌다와 헌화로 부처님께 공양했다. 그리고 마실상좌 의식을 열어 불법을 위해 헌신한 33명의 불제자에게 감사함을 전달했다. 마실상좌는 수행자의 마음으로 상가와 함께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불사를 위해 손발이 돼 준 불자들을 의미한다. 정여 스님은 33명의 마실상좌들에게 흰색 천의 카타를 목에 걸어주고 그들의 노력을 치사했다.

이어 정여 스님의 즉문즉설이 진행됐다. 패널은 정오 스님, 보혜 스님, 도명 스님, 도산 스님이 나섰으며 재가자들의 질문으로 이어졌다.

봉암사 수행 환경과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 정여 스님은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바뀌는 곳"이라며 "다시 태어남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설명하기 참으로 어려운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수행했던 도반들 중 단 한명에게서도 나태함을 본적 없다. 수행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지만 도반들의 뜨거운 수행력에 힘을 얻어 정진을 할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덧붙여 스님은 "수행 동안 부산불자들의 응원과 돌아와 포교할 생각을 하니 더 힘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수행의 결과, 육체의 고통 등 다채로운 질문에 답을 했으며 행복에 대한 법문으로 마무리 했다.

정여 스님은 "봉암사 안거 중 삶을 회향해도 아쉽지 않을 정도였다"며 "행복에 이르는 길은 바로 수행으로 얻는 지혜와 만족함에 있다. 의식주는 풍족해졌어도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다. 행복한 가정도 능력을 인정해주는 직장, 재산, 친구 등 각자 원하는 바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고 설법했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법은 자신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계율 정신과 더불어 쉼 없는 정진으로 얻는 지혜의 결과"라며 〈열반경〉의 '제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적멸위락(諸行無常 是生滅法 生滅滅已 寂滅爲樂)'을 설명하고 생멸법에 따른 모든 집착을 놓고 고요한 열반에 들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그림 포교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문화포교사찰 동림사, 그림교실 수강생 모집

부산 기장 동림사(주지 성타)를 방문하면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시골길, 모란 꽃, 가을에 만나는 빨간 홍시 그림들이 반긴다. 문화포교 방편으로 40년 동안 그림을 그려온 주지 성타 스님의 작품들이다.

성타 스님은 '동림사 갤러리 그림교실 강좌'를 열고 회원을 수시 모집한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와 7시로 나눠 운영한다.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주지 성타 스님이 직접 지도하며 동림사 내 법연당 동림 갤러리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기간은 3개월, 회비는 10만원이다.

올해 2기를 맞는 그림 교실은 불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한다. 성타 스님은 "그림에 불교 색채를 많이 넣지 않는 것은 일반인 포교를 위함"이라며 "불자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림사를 자연스럽게 찾아줬음 좋겠다. 지난해에는 목사님도 와서 그림을 배우고 사찰 문화를 익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성타 스님은 그림 교실을 통해 밝은 세상을 발원하며 회원들과 그림 봉사도 나설 것을 밝혔다. 현재 스님은 기장경찰서와 협약을 맺고 '밝은 거리 만들기'에 동참하고 벽화 그리기 봉사를 진행 중이다.

성타 스님은 "앞으로 회원들과 우범 지대에 벽화도 그리고 단청이 필요한 사찰에도 방문할 것"이라며 "힐링을 위해 많은 분들이 도심을 빠져 나가는데 백화점이나 문화교실이 아닌 동림사에서 좋은 도반을 만나고 쉼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타 스님은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2009년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 특선 2회, 입선 3회 등 수상경력을 보유했으며 개인전 15회, 초대전 300여회 등 연 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광주광역시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운영위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051)508-2917

하성미 기자


문화포교사찰 기장 동림사 주지 성타 스님은 그림을 설명하며 불교 뿐 아니라 어린 시절 추억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림으로 힐링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불교거사림, 정법 원력 '1000회 법회'

부산불교거사림(회장 공병수)의 정기법석이 1000회를 맞았다. 오직 정법을 알리고 실천하고자 시작된 법회로 그 역사가 45년이다.

부산불교거사림은 이를 기념하며 2월 14일 부산불교신도회관 법계정사에서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前 중앙승가대학 총장 종범 스님,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 범어사 재무국장 범수 스님, 부전선원 선원장 안국 스님 및 공병수 회장, 류진수 前 부산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불교거사림은 불자들과 스님들의 원력으로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다며 지난 법석을 회고했다. 또한 자비희사로 보살행을 실천한 안성이 보현회장과 배태순 불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공병수 회장은 "한국불교사에 전무할 1000회 법회가 부산불교거사림회를 통해 드러남이 자랑스럽고, 한국불교 진일보의 디딤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다"며 "우직하게



한길로 가고자 했던 회원들과 스님들의 동참으로 가능했던 일이다. 변치 않는 원력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법문은 종범 스님의 특별 법석으로 진행됐다. 종범 스님은 지난 1975년 부산불교거사림 지도법사로 시작해 현재까지 법문을 담당하고 거사림 회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날 종범 스님은 신수봉행(信受奉行)을 강조하며 정법(正法)과 바른 수행으로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화엄승가대학원 첫 졸업생 23명 배출

의성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의 첫 졸업생이 배출됐다.

고운사는 2월 8일 고엄사화엄문화템플관에서 고운사화엄승가대학원 졸업식 및 대강백 각성 스님의 전강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화엄승가대학원서 23명 졸업생 및 수료생이 배출됐다.

이날 화엄승가대학원장 등현 스님은 "21세기는 과연 종교가 필요한지, 우리는 21세기 불교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가 문제"라며 "화엄과 대승, 소승, 화두선 등 역사속의 신앙을 아우르고 통합하며 이러한 문제를 풀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운사는 이날 25명 스님들에게 대강백 각성 스님의 법맥을 전수하는 전강식을 열었다. 또한 올해 팔순을 맞은 각성 스님의 산수



연도 함께 진행됐다.

각성 스님은 "배우고 수행하지 않으면 범부가 부처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중생계와 허공계가 없어질 때까지 공부하고 수행정진 하는 것이 졸업의 의미"라며 "대각을 일으키기 전까지 마음 깊이 수행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동명세계선센터 선수행학교 7기 모집

캠퍼스에서 선의 진수를 경험할 기회가 열린다. 부산 동명세계선센터(선원장 수진)는 '선수행학교 제7기'를 모집한다. 개강은 3월 8일이며 4개월 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동명대 세계선센터(동명관 4층)에서 진행된다. 선 수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비는 10만원이다.

지도법사는 선원장 수진 스님이 직접 나선다. 수진 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장, 전국승가대학협의회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재편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조계종 교육위원회 위원, 제11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을 담당했다. 前 조계종부산연합회장으로 재가 안거를 이끌어 수행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현재 해인정사 주이다.

동명세계선센터는 "전국 400개 대학에 오직 하나뿐인 선 수행 학교다. 선수행학교를 통해 영원의 세계에 이르는 참된 공부의 자리를 체험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051)629-3583

하성미 기자

한마음 공생실천과정 교육안내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닿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에너지다" -대행선사 법어

내앞에 닥치는 일들을 한마음으로 굴려농아 원만하게 생활을 풀어나가며,
자신의 근본을 탐구하여 자성(自性)을 밝혀나가는 생활 속 참선 수행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의 특징

- 3가지 주제 : ①주인공(主人公)에 믿고 맡기기 ②지켜보기 ③실천궁행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해서 토론과 행선을 진행.
- 생활속 공부 점검 :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마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생활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마음공부로 풀어가는 실천.
- 한마음으로 같이 공부 : 서로를 위해 마음을 내주는 공생관(共生觀) 등, 일상의 문제들을 공부로 삼아 도반으로 배우며 지혜와 자비의 길로 같이 성장.

27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모집

1 교육대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2 교육일정 : 2017. 3. 18(토) ~ 5. 20(토) 총10주
3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3:30~8:40 (오리엔테이션 오후 1시부터)
4 교육장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 (3층)
5 교육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6 문 의 : TEL 031)470-3200, 매주 월요일은 휴무

NAVER 함께하는 진화 검색

나로부터 시작하는 마음공부

- 한마음과학원에서 10년간 실시한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들이 마음으로 써낸 수행일지의 정수
- 마음보기, 가족, 직장, 사찰에서 실제로 부딪히고 겪으며 주인공 관법으로 정진해 나가는 명쾌한 해결책
- 마음공부의 지혜, 사랑, 웃음과 눈물, 감동이 가득, 수행 재발심의 도우미

목 차

1장 _ 내가 알지 못했던 나에 대하여
2장 _ 내 인생의 마음공부
3장 _ 내가 바뀌어야 남도 바뀐다고
4장 _ 나로부터 나를 깨치는 가르침
5장 _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해, 주인공



전국유명서점에서 절찬 판매중

값 13,000원

한마음과학원 펴냄 | 성균관출판부 | 315쪽 | 값 13,000원 문의 031)470-3200 * 판매처 : 전국유명서점, 인터넷서점

“공무원 바로서야 나라가 선다”

공불련 백양사서 신년법회… 지선 스님 당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 감사원 감사위원)는 2월 11~12일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2017년 신년법회 및 임원연수’를 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사진〉

법회에는 정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불자회 임원 130여 명과 이계호 국회의원, 박노원 장성 부군수 등이 참여했다.

김상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풍광이 아름다운 백양사에서 좋은 법문을 듣고, 공무원 불자들이 도반으로서 깨달음을 얻어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은 법문에서 “공익보다 사익을 더 취해버리면 지금의 탄핵정국처럼 돼버린다.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면 나라가 전체로 깨어있어서 잘 되고,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무질서하고 그야말로 복지부동 국가가 된다”며 “공불련 회원들이 공복이자 불자로서 공심과 신심을 잃지 않고 부단히 정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 선운사, 관음 천일기도 입재

100일마다 법회 통해 수행원력 점검



고창 선운사가 관음천일기도 입재를 시작으로 1,000일에 걸친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2월 11일 대웅보전에서 관음천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이날 법회는 동안거 해제일을 맞아 해제법회 및 정초기도 회향법회도 함께 진행됐다. 법회에는 총무국장 심학 스님, 선운사 초기불전 불학승가대학원장 환성 스님,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장 대원 스님 등 사중 스님과 불자 100여 명이 동참했다.

관음천일기도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천일기도를 통해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평화와 지역 발전, 가정의 안녕을 기원했다.

심학 스님은 불자들에게 “천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의 원력으로 끊임없이 기도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입재한 선운사 관음천일기도는 오는 2019년 11월 17일 회향하며, 100일째마다 별도의 법회를 열어 저마다의 기도와 수행원력을 점검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안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 개최



정월대보름을 맞아 불교신앙과 민간의 토속신앙이 융합된 독특한 형태의 당산제가 열렸다.〈사진〉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와 석포리 당산제 보존위원회(회장 박병우)는 2월 10일 내소사 경내 들당산(일명 할머니 당산나무)과 일주문 앞 날당산(일명 할아버지 당산나무)에서 ‘석포리 당산제’를 개최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인근 5개 마을 주민 등 300여 명이 동참한 당산제는 불교식 영산작법과 유교식 제례의식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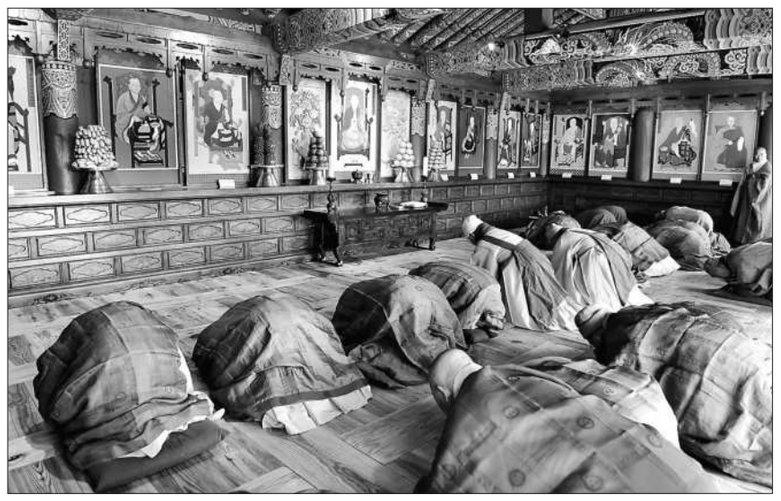
진성 스님은 “내소사 당산제는 사찰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이라며 “당산제를 통해 사찰과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소사 당산제는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에 뿌리내리고 있는 토속신앙을 통해 포교를 병행하며 지역주민들과 사찰이 공존하며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풍습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사스님들의 수행원력 잇겠습니다”

구례 화엄사, 역대조사 19명 진영 점안



새로 조성된 진영에 3배를 올리는 화엄사 문도 스님들.

화엄종찰 화엄사의 역대조사 진영이 새롭게 조성됐다.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는 2월 12일 화엄사에서 수행한 역대조사 19명의 진영을 새로 조성하고, 점안식과 더불어 화엄문도 추모재 및 신년하례를 봉행했다.

이날 영전에 봉안된 19명의 조사는 화엄사 개창 이래 수행정진과 가람수호에 큰 역할을 한 스님들이다. 창건주인 연기조사를 중심으로 좌우에 자장율사, 원효대사, 의상대사, 관혜대사, 도선국사, 홍경선사, 대각국사, 부용영관, 서산대사, 부휴선수, 벽암각성, 설흥대사, 백암성총, 각황전 중창조 계파성능, 용성조사, 동헌대종사, 근현대 중창조 도광대종사, 도천대종사 등 창건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화엄사 스님들을 봉안했다. 각 진영 재자명문에는 ‘화엄사 창건공덕주 연기조사’와 같이 조사스님들의 원력과 공덕을 글과 그림으로 담았다.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은 추모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화엄사는 역대 훌륭한 큰스님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나 제대로 된 영전으로 모시지 못해 안타까웠다. 이제 도량에 걸맞게 진영을 모시게 돼 감사하다”며 “화엄사의 역대조사 스님들의 수행가풍을 이어받아 수행정진의 마음을 가다듬자”고 말했다.

조사 진영은 전면 5칸 맞배지붕 형식의 22평 목조건물로 대웅전과 각황전 사이에 새로 건립된 ‘영전’에 봉안됐다. 이곳은 앞으로 조사전 역할을 한다.

개창조~근현대 중창조까지
22평 목조건물 ‘영전’에 봉안
송천 스님 · 정경문 불모 동참
전통 · 현대적 미술기법 활용

화엄사 성보박물관장 원묵 스님은 “도량에 걸맞은 진영을 모셔야겠다는 전체 문도의 원력을 모아 3년 전부터 계획을 잡고, 최근 1년간 13차례 회의를 통해 조성불사를 진행했다”며 “여러 자료를 통해 고증을 거치면서 연기조사의 원형을 복원해야겠다는 의미를 담아 조성하게 됐다”고 경과를 밝혔다.

특히 화엄사 창건주 연기조사는 그동안 다른 곳에 진영이 없어 화엄사 사적기에 기록돼 있는 의미를 담고 전통방식과 현대적 미술기법을 살려 복원했다고 밝혔다. 조성불사 그림은 前 통도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송천 스님과 해송불교미술원장 정경문 불모가 1년 6개월 동안 참여해 완성했다.

송천 스님은 “그림은 전통방식으로 하되 현대적 미술기법을 더해 다양성을 추구했다. 현대에 조성했지만 전통색채와 재료를 사용하면서 예스러운 무게감을 주었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한편 진영 봉안식에 이어 각황전에서 진행한 화엄문도 합동추모재 및 신년하례 법회는 죽비 3배를 시작으로 영관 스님의 헌다, 반야심경 봉독, 문도스님들의 헌화, 문장 스님 덕담으로 이어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민간 이주민 지원사업 확대 손잡아

(사)착한벗들–전북은행
한국어교육 · 생활상담 등



(사)착한벗들 회원과 전북은행 관계자들이 협약 후 의지를 다지는 모습.

전북지역 거주 이주민 지원사업을 펼치는 (사)착한벗들이 전북은행과 손을 잡았다.

(사)착한벗들(이사장 회일, 참좋은우리절 주지)과 전북은행은 2월 12일 군산 흥천사 반야회관 2층 JB외국인한국어학당에서 업무협약식을 실시,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학당을 개설했다.

이에 따라 양 단체는 군산 JB외국인한국어학당서 매주 일요일 한국어교육, 생활상담 등을 진행하게 된다. 2017년에는 익산시, 완주군에도 한국어학당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협약 목적은 전북은행과 (사)착한벗들이 전북 지역 내 거주하는 이주민지원 활동을 협력해 나가는 것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인구 특성상,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이주민(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양 단체의 업무협약은 민간 영역에서의 이주민 지원 활동을 다양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착한벗들과 전북은행은 근래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학령기를 앞둔 (5~7세)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언어 및 사회성 발달과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최근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 교육은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기업의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업 추진배경을 밝혔다.

한편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총 1만1168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이 중 동남아(캄보디아 · 베트남 · 인도네시아 등) 출신이 5,393명(49%)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화엄불교대학 졸업생 82명 배출

전주 화엄불교대학(학장 성우, 금산사 주지)이 불기2560학년도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2월 12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법당에서 봉행된 졸업식에는 학장 성우 스님, 불교회관 총무국장 구담 스님, 안준아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 부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다.

이날 졸업한 불교대학 28기는 총 49명. 또한 학림원 23기 33명의 불자들은 1년간 불교기초 교리강좌와 부처님 경전공부, 실참수행, 각종 봉사활동 등의 정규과정을 이수했다.

성우 스님은 졸업사에서 “지난 1년간 공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증명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부처님과 같은 자비로움을 바탕으로 사회에 회향하는 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출강 및 통신 2017학년도 제26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 교육 신입생 모집

탁월한 불교교육과 정명한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은 정통한 법사교육으로 26년의 전통과 신뢰로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습니다.

①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인증하는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7년 2월 23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제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3월 9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세 종류의 벗이 있으니, 이롭지 않은 것은 없애 주는 벗, 이로운 일은 만들어 주는 벗, 어려울 때는 버리지 않는 벗이라네.

– 불소행찬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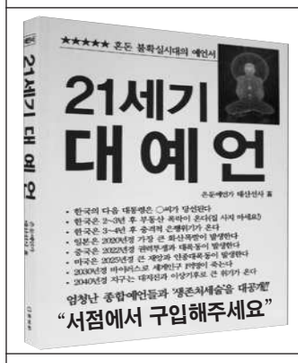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 정신분열, 정신이상, 빙의, 환청, 환시, 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 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천도재로 영가가 천도되게 맞춤 천도 합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010-2168-2800
011-850-0176



척추교정
비법전수
누구든지 가능
하루교육완성
출장가능
사찰경제에 큰 도움
010-3055-9000

관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배워야 산다
비법+명리+조상풀이법
포교당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 / 철학관 개업하실 분 / 무속제자, 신선생 / 무한 책임지도 / 사주풀이 전화 상담 중
010-4540-0061
지리산 현담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노인요양 복지시설 사업에 뜻이 있으신 분을 기다립니다.
파주시에 있는사찰내 부지 약 1000평 활용 가능함.
꼭 뜻이 있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010-4718-4123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빙의.퇴마.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세종시 소정면 운당 (대승암)
010-5269-4168

양평 암요양원 건강힐링캠프
공기 맑은 산, 황토집에서 건강을 / 체질음식, 천연조미료, 유기농, 죽염식단으로 원장님 수시무료 건강상담, 체질감별.
네이버에서 양평 암요양원을 검색
010-9237-8599

불사용 달마도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불사나 선물용으로 청암 달마도를 저렴하게 친필로 그려 드립니다. 10매 이상은 사찰명과 스님법명 넣어 드립니다
규격 40cm×60cm 1매 6천원
010-2953-8770
농협 919-02-137213 정휘춘 청암 달마원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퇴불 철거전문)
개금.단청.소불.중.대불
취급. 표구제작
(퇴불시 정성껏 모셔드립니다)
010-9177-7842

백발백중 타로카드점
한달 배우면 상담가능 / 1:1 맞춤 강의. 실전위주 (출장, 전화상담)
변비, 숙변, 잔변
(확실한 효과)
비법 가르쳐 드립니다 / 1주일 체험량 무료로 드립니다
010-2748-6321 향수해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60대이상)
010-3524-8930

신심있는 50~60대 처사님 모십니다
(평택 약천사)
010-7100-8093

기도할 도량을 찾습니다
(비구 입니다)
010-3288-9406

문두루 기도비법?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10-3797-006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대 전후, 절에서 숙식가능한 분)
010-8640-010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전문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웅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비구니 스님을 찾습니다
찾는 스님 : 무명 스님 (윤미옥)
대원정사(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계시던 무명스님을 찾습니다.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받으신 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매개시 및 가압류, 압류, 개인근저당권 등을 해결하기 않으시고 사라지셨습니다.
급합니다. 아시는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경미 010-5445-3792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협(정보석)

오래된 폐질환, 아토피, 피부병 상담


약사불(藥師佛)
약사불은 질병을 고쳐주고 재난에서 구해주며 음식과 옷을 주는 부처로 왼손에는 약단지를 들고 있다.

대대로 세속 되어진 업과
상속 되어진 업,
음양의 부조화로
병마로부터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하여...

인간의 육체는 무상한 것이어서 의식하지 않아야 하나 중생들이 도를 깨닿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여러 겁을 지나면서 온갖 고통을 받게 된다.

오직 부처님 만이 좋은 의사가 되어 법의 약을 주시니 이 법을 받들어 정성껏 행하는 이는 병마를 이길 수 있다.

– 오문 선경 요용법 – 중에서

만병의 근원을 소멸하여 맑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 와서 행복한 삶을....

천태산 월광사
충남 공주시 의당면 비게실길 45 / 전화 010-4573-0940 사무장 올림

2017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9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8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9기 수강생부터는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도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7년 3월 14일 ~ 9월 26일까지
②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7년 3월 14일 (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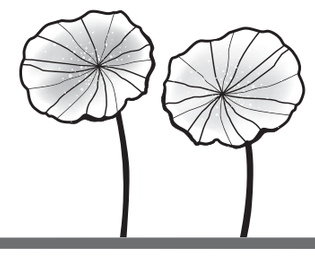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소멸하면 갖가지 법이 소멸한다.

- 능가경 -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서울지역 무료 출장상담 및 무료 전국신문광고 서비스 제공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제공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신뢰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2-449-0284

충주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요사채.공양간 140㎡ - 산신각. 토지 2,300㎡
- 주변이 산사찰. 운영 잘되고 위치 좋음. 주차 가능함
- 양도가액 : 3억 3천만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 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보장. 방문접수.전국사찰. 암자 급히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 (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 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60평 ◎ 면적 : 50평
◎ 법당 : 3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0평 ◎ 요사 : 30평
◎ 양도가 : 7억 ◎ 양도가 : 6억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내 돗대산 기도사찰
- 대지: 270평, 법당23평, 요사채30평
- 종각, 주지실, 산신각, 용왕당 국제의료관광특구지정
- 사찰주변 1,500세대 아파트
- 최근아파트 분양 2,000세대 추가분양
- 양도 : 10억 8천만원

직통 010-9906-3631 혜관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504호(만덕동3012 다산타워)

사찰(급)안내

- 하동 한옥 토굴 양도
- 토지 6,000㎡. 한옥토굴63㎡. 차방있음
- 지리산줄기산중토굴. 청정계곡
- 녹차재배함. 조용하고 깨끗하고 남향
- 가액 : 3억3 천만(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신정시장 부근
- 평수 30평, 2종독채, 큰방3개, 거실, 욕실주방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 석가모니, 약사여래, 관세음보살
-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 가액 : 전세 1,0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금액은 1000만원

010-9902-396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기장
- 평수 40평, 3층 건물중 2층
- 교통 위치좋음
- 스님 건강상
- 가액 : 보 2,000만원 월 35만원 시설일체 500만원

010-8517-2357

경기도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 주택,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내 상가
- 2층 106㎡(약 32평)
- 방 2실 법당 거실 주방등
- 가액 : 보 1000만, 월 55만 시설비 500만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70-8154-9393

삼 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 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여산면 태성화산길 75
- 대 266평, 법당 21평, 요사채 22평(방 3, 화 2)
- 종교법인등록, 집기 및 시설 양도
- 주차장 완비, 남향(탁 트인 전망)
- 가액 : 1억 6천만원

010-9918-79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 (댐 부근)
- 총 730평, 법당 50평 중 방2, 화장실1, 주방1, 요사채 방사4개, 부엌1, 화장실2, 욕실1
- 산신각, 용왕당, 독성각, 할매당 각1
- Y자형 계곡, 사시사철 계곡물 철철, 계곡에 가재, 갈겨니(피라미), 다슬기 바글바글
- 앞뒤 산에 송이 버섯 다수, 법당은 동향 요사채는 정남향
- 서출 동향수 완벽, 대형버스 진입
- 종찰로 들어가야할 입장이기에 부득이 안내 합니다
- 가액 : 3억 5천만원 (절충사절)

010-4466-3575 (주인 직)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IC에서 10분거리
- 건물 3동, 대지 197평
- 법당, 삼존불 외 소불 150불
- 방 4개, 공양간, 화장실
- 가액 : 1억 4천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있음)
- 몸만 오시면 됨

010-3753-7844

암 자 안 내

- 위치 : 원주시 부론면 소재
- 대지180평, 전75평, 건평30평
- 난방 : 심야보일러
- 대문까지 포장도로, 주차장시설
- 스님 토굴용으로 최적
- 자전거 5분거리, 남한강 산책로
- 가액 :1억 6천만원

010-7345-1674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78-2 (성내리 35-4)
- 대지 60평, 건평 60평(2층건물에 1층)
- 마당 60평(잔디), 방4개(큰방2, 보통2)
- 주위에 무료공용주차장, 넓은 수세식 화장실
- 가액 : 보 500만, 월50만원 시설비 500만 별도

010-6667-881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소재 (동화사 인근)
- 부지 : 12,000평
- 인법당 : 40평
- 가액 : 6억 5천만원
- 특징 : 팔공산 청정지역에 위치한 기도정진할 도량임

- 위치 : 양산시 소재
- 부지 : 250평(종교용지)
- 법당 : 60평 (목조, 3포 7포, 단청)
- 요사채: 2동 80평(목조 단청)
- 가액: 12억원
- 특징: 도심번화가에 위치한 대가람의 포교도량임

좋은인연 맺 시 다 동진불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전국소재사찰 및 절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암 자 안 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 대지 100평, 아파트 대단지 뒷편
- 산과 계곡이 있는 절
- 오존불, 각단 탱화 법당 완벽
- 방4개, 다용도 거실 큼
- 가액 : 전세 500, 월 30만원 시설비 1,500만원 가격 절충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2565-72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만덕
- 지상2층, 법당 100평, 방3, 공양실1, 주방1, 화장실1, 유료주차장, 건물주인직접 운영
- 법당내 수미단, 신중단, 산신단, 칠성단, 설법단 설법상 각단 조각으로 단을 짬, 총1억 소요
- 부득이 옮겨야 하는 입장 때문에 싸게 드립니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70만원 (주인 불자임) 건물내 집기류 총 2천만원
- 급해서 싸게 드립니다. (절충은 안됩니다)

010-4466-357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 (구 : 숭인2동 220 3층)
- 전철 1호선 동묘역 하차 2,3번출구 대도로 바로 옆 약 15m거리
- 법당 전체 20평, 법당 10평, 요사채 10평
- 방2개, 주방1, 화장실1, 살림합니다
- 후불탱화 5존불 신중단 영가단
- 가액 : 보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1,300만원. 가격절충

010-3722-273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입구
- 평수 : 4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4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9143-784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110-10 광주 IC에서 3분거리
- 비닐하우스에 예쁘게 토굴 법당을 만들었습니다 요사채도 불편함이 없이 만들었어요
- 모든 (집기, 전세)일체포함 1,700에 보시합니다 (현 200만원에 ~ 월 45만원)
- 참고로 도로 옆이라 사주카페로 방편하시면 좋을듯합니다

010-8961-549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 평수 : 약 50평 3층
- 방 2, 부엌
- 몸 만오시면 됨 (본사 근무관계로)
- 가액 : 1,000만, 월 70만원 시설비(약간 절충)

010-4541-1140

공기맑은산 황토 통나무 건물 안내

- 위치 : 양평
- 요양원 운영하고, 고시원, 절운영 하실분, 평생 직업
- 대지 333평, 실평수 400평, 건평 3동 142평 실평수 200평
- 산책, 등산, 교통 최고, 142m 암반수, 2년된 새집
- 가액 : 13억(조절가능, 주인직접)

010-9237-8599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사오분거리
- 부득이한 사정으로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 법당20평, 관음전 종각 요사채
- 방10개, 공양간, 창고, 외부화장실 등등 대형주사장 등
- 가액 : 3억 2천

010-4628-5699

암 자 안 내

- 위치 : 전북 전안읍, 대지 150여평
- 건물 인법당 4.5칸 강판기와 지붕 (방2, 법당2칸, 입식주방 욕실 등)
- 삼존불 , 탱화, 불구일절 범종(5관 大), 산신각 2칸 강판기와, 창고4칸 심야전기 지하수, 가전제품 집기 세간 일체 포함
- 환경 조용하고 전망좋음, 문전까지 포장도, 군청 10분거리 오랜연륜, 배산임수, 좌청룡 우백호 동남문 하절에는 각종초화 만발, 별유천지
- 가액 : 7,000만원

063)433-335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최상의 위치
- 건평 70평, 완벽한 시설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등
- 즉시법회가능(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보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조정

043-848-5767

암자(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이산면(영주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 288㎡(신축,조립식주택 49㎡)
- 초지 : 1,038㎡(각종 약초나무 심어있음)
- 조립식 요사채,조립식큰창고,목욕탕,수세식화장실2개
- 넓은주차장 완비(하천부지 일부사용) 주변 수로 완전 정비
- 앞에는 육백년 느티나무 시보호수 위로는 박봉산이 있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필요로 하시는 분
- 가액 : 답사 후 절충.꼭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0-4591-4796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 130평(공유지 포함20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된 법당 및 요사채(방 3칸)
- 수행도량, 후원9평,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1억 6천만원

055-972-033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잔디. 조경전망 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 가액 : 5억 2천만원 대출 2억5천안고 양도2억7천 (현시세땅값 7억5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안내

010-5019-538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
- 대지 : 1,000평
- 전 : 1,300평, 임야 : 1,000평
- 법당 35평, 종각, 산신각, 각 3평씩
- 주지실 14평, 요사채 60평 주택 25평
- 화장실, 샤워실, 차고 25평
- 가액 : 13억

011-9324-4461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한국최초!! 내손안의 육임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순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 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을 만든 비술이다.

■ 시간법도 각각 年名(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와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 육임은 대운법 뿐만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❶ 동영상 강좌 : 250만원 ❶ 직강 : 300만원
❸ (내손안에 육임) 프로그램 : 450만원
❶+❷+❸ 合 600만원 (개별구입 가능)
※ 각종카드, 할부금융 - 무이자 24개월 할부 가능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육임이 보인다」 저자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정평사
- 법 명 : 정준 (김복자)
- 주 소 : 경북 상주시 인평2길 59-3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日 이색 천도재 "테크노 음악으로 극락 재현"

DJ 출신 아사쿠라 승려, 현대식 천도재 젊은층 '열광'


쇼온지 교센 아사쿠라 승려는 테크노 음악과 현란한 조명을 동원한 사찰 천도재를 봉행한다.
사진출처=makef.jp

日 승려, 사찰천도재 부흥 위해
최신음악 · 장비로 천도재 봉행
"화려한 극락세계 재현하고파"
불자들 성원에 지속 약속

불교에 대한 일본 젊은이들의 무관심으로 썰렁하던 한 사찰이 테크노 음악으로 들썩였다. 장엄한 부처님 극락세계를 테크노 음악과 사이키델릭 조명으로 재현한 쇼온지 사찰 천도재가 일본 젊은 불자들 사이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웹사이트 'Odditycentral'은 2월 10일(현지시간) "일본 후쿠이 현 북부 후쿠이시 쇼온지(조은사, 照恩寺)의 교센 아사쿠라(49) 승려가 DJ로 활동한 경력을 살려 테크노 음악과 현란한 조명을 동원한 사찰 천도재를 봉행한다"며 "쇼온지 측은 이 같은 테크노 천도재가 젊은 불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어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사찰의 경우 대부분 납골당 시설이 있어 시민들은 사찰서 불교식 천도재를 지내는 상례가 보편적이다. 일본 불교 특유의 '단가제도'는 시민들의 모든 상례를 사찰이 책임지고 재정 지원을 받는 제도로, 일본 사찰 운영 기반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인구 및 불자 감소와 젊은 세대의 무관심 등으로 사찰 천도재가 줄고 있는 추세다. 또한 상례가 필요할 때 스님을 대여하주는 '마이테라' 서비스가 인기를 끌며 불교계선 사찰 천도재 자체가 사양 사업으로 접어들었단 자체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쇼온지 아사쿠라 승려는 불교와 사찰 천도재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을 되돌리기 위해 사찰 내부를 클럽처럼 꾸미고 현대인들에게 친숙한 음악과 조명 기술로 천도재 봉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Odditycentral'에 따르면 테크노 천도제는 아사쿠라 승려는 경내 DJ 스테이션을 마련, 염불을 인텔리전트 댄스와 브레이크 비트 음악과 함께 편집해 스피커로 내보낸다. 이때 사원 내부는 프로젝션 매핑 조명 불빛을 쏘아 금 장식을 두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교센 승려는 "부처님 극락세계는 땅이 7보로 되어 광채가 빛난다는 기록이 있다. 과거에도 사찰 내부를 황금 나뭇잎으로 장식하는 등 가장 선진적이고 화려한 기술을 접목, 극락세계를 표현해왔다"며 "나는 테크노 천도제 프로젝트에 현대식 조명과 영상기술 및 음악을 도입해 종교에 익숙하지 못한 현대인들이 부처님 극락세계를 접하게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테크노와 불교의 만남은 극락세계와 부처님 가피의 현대적 이미지 전환이다. 이 같은 시도는 현대인에게 불법을 포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아사쿠라 승려는 테크노 천도재 진행 자금 마련을 위해 일본 웹사이트 'Readyfor'서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을 진행했다. 테크노 천도재가 현장에서 참여한 불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음에도 불구, 행사 진행 비용이 비싸 지난해 2차례 봉행에 그쳤기 때문이다.

아사쿠라 승려는 "추모제를 위해선 조명 장비, 프로젝션 매핑 장비, 소프트웨어 등 비싼 기기가 필요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했다. 목표금액 3,000만원을 2주도 되지 않아 훌쩍 넘겨 현재 38명의 후원자로부터 3,7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모았다"며 "앞으로 테크노 천도재에 대한 불자들의 뜨거운 관심에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쇼온지 측은 "올해 첫 테크노 천도재는 5월 3일 봉행되며 대중에 개방하기 때문에 누구든 참석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캄보디아 승단에서 일어난 성추문, 마약 스캔들로 인해 과거 캄보디아 불교계의 위상이 하락하고 있다.
사진출처=사우스이스트아시아글로브

캄보디아 불교, 각종 스캔들로 위상 하락

젊은이들 "불교에 매력 못 느껴"

국민들, 타락한 불교계 염증 느껴 '반발'
승가 교육 수준 저하도 큰 원인으로 대두

불교국가인 캄보디아에서 불교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우스이스트아시아글로브는 2월 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승단에서 일어난 성추문, 마약 스캔들로 예전의 캄보디아 국민들이 스님들에게 가졌던 존경심은 찾을 수 없게 됐다"고 보도하며, 캄보디아 불교 현황을 진단했다.

2016년 6월 시엠립에 있는 한 사원의 주지인 봉 쳇 스님은 10명이 넘는 행자 스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다. 2명의 스님이 어린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또 다른 2명의 스님은 2015년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투옥됐다.

이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캄보디아 승단은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 대중들의 경멸은 더욱 극심해졌다. 결국 캄보디아 불교계에 대한 반감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스님들의 불교 교육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다. 스님이 되기 위해 승적에 이름을 올렸다가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나 제자들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가르치는 수준에 그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소반라타나 박사는 "불교 발전과 승가 생활의 기준이 뒤쳐지는데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놈펜에서 테라피스트로 일하는 렌(26)은 "스님들은 더 이상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며 "그들은 스님을 직업으로 삼지만 경전이나 교리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존경을 할 수 있겠느냐"며 비판했다.

아울러 캄보디아의 서구화와 급속한 경제 발전 또한 불교가 침체하는 한 가지 원인으로 대두된다.

1975년 크메르루주가 정권장악을 하기 전 불교는 캄보디아의 도덕 · 교육 · 문화적 중심지로서 여향을 끼치며 사회적 지위를 누렸다. 대개의 교육기관은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연스러운 종교교육을 하게 된다. 1970년 통계에 다르면 캄보디아 불교 사원에서 운영한 초등팔리어 학교는 529개, 학생수는 1만983명, 불교 고등학교는 2개로 학생수는 500명, 불교대학은 1개로 11명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불교의 사회적 활동은 1975년 크메르 루즈의 안도차이나반도의 공산화로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다. 폴포트에 의해 수십만 명이 학살된 캄보디아는 종교도 완전히 없애버렸다.

폴포트를 내몰고 헴 삼린 정권이 들어서면서 몇 군데의 사원이 복구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승려가 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과학적 유물론은 미신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폴포트의 학살 만행을 피해 용케도 살아남은 스님들이 더 이상 불교 교리를 전파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는 비(非)종교적 학교와 대학이 갈수록 늘어, 승가의 사회 · 문화적 영향력을 잠식해 갔다.

분신추온 스님은 "이전에는 문학이나 기술이 배우고 싶으면 절에 가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선택권이 있어 사찰에 갈 필요가 없다"며 "프놈펜의 왓 랑카 사원의 스님들은 5년 새 30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수십 년간 지속된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은 국민들에게 기술적 진보로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어 사찰에 대해 매력을 덜 느끼게 만들었다.

카이 소반라타나 스님(27)은 "사찰 밖에 더 많은 직업이 있다. 젊은 소년들은 조용히 생활하는 것보다 가족을 갖고 인생을 즐기는 데 더 매력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소림사 주지 슈 용씬, 횡령 · 혼외자식 '무혐의'

2015년 소림사 출신 승려들 고발로 의혹 불거져
1년 6개월 만에 중국 당국 조사결과 발표


사진출처=Financial Times

중국 소림사(少林寺, 샤오린샤) 주지 슈 용씬(釋永信 · 사진 가운데) 스님에 대해 불거졌던 횡령 및 혼외자식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슈 용씬 스님은 미국 MBA출신으로 지난 1999년 34살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소림사 주지가 됐다. 이후 쿵푸를 상업화한 공연과 쿵푸 학교 운영 등으로 연매출 1,500억 이상을 기록하며, 소림사를 거대 상업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슈 용씬 스님은 중국서 인민대표로 정치행사에 참여하고 푸틴 대통령 · 성룡 · 애플 CEO 팀쿡 등 세계 유명 인사들과 만나며 'CEO 스님'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인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2015년 소림사 출신 스님 6명이 슈 용씬 스님의 비리를 폭로하며 거액의 공금 횡령과 성추문 의혹이 불거진 것. 슈 용씬 스님이 가짜 신분증으로 여러 명의 첩을 두고 있고 그 사이 사생아까지 있으며, 소림사 주식의 80%를 개인 명의로 빼돌린 등의 내용이었다. 당시 당국은 슈 용씬 스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슈 용씬 스님은 몇 달 간 잠적하며 큰 파문이 일었다.

1년 6개월여 만의 수사 결과 슈 용씬 스님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무혐의로 밝혀졌다.

2월 7일 'Financial Times'는 "지방정부가 소림사 계좌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슈 용씬 스님은 회사 재산을 횡령한 혐의가 없다"며 "가장 문제가 됐던 15대의 외제차는 슈 용씬 스님이 아닌 소림사 소유"라고 보도했다.

또한 2010~2012년 사이 슈 용씬 스님의 상좌 중 한명의 이름으로 기부됐던 수 백 만의 인민폐는 사찰발전기금과 승려연수기금으로 사용됐으며, 배당금을 얻거나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소림사 주식을 불법 취득했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수사 결과 발표에도 슈 용씬 스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佛事의 모든 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일주 올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456-1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5738-3859.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

샐리 켐튼(명상 강사 · 저널리스트)

〈7〉 내면으로 들어가기

분리의 문 너머엔 '합일'의 세계



신과 나는 '하나'

명상에 막 입문했을 무렵, 나는 명상을 하다가 빛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내 모습을 보았다. 사방이 빛으로 가득했다. 그 끝도 한계도 보이지 않을 만큼 눈이 부셨다. 명상의 길을 가다보면 종종 이런 체험이 선물이나 신호등처럼 찾아와 앞으로 우리의 가능성을 안내한다. 그런 체험이 길게 가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실재'의 속성이 어떤지 알려준다. 우리는 실재의 속성을 오랫동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입문 당시의 명상 체험을 더 이야기해보겠다. 내 주위에 가득한 빛을 감지했을 때 내면에서 확신과 권위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빛이 되어라!" 그래서 나는 빛이 되기만 하면 나의 길이 끝날 거라고, 적어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없었다. 문제는 내가 두려워해서가 아니었다. 새장 안의 새처럼 '나'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는 틀이 너무나 완고해서 '나'라는 껍질을 벗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명상을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런 와중에 두 마디가 불쑥 떠올랐다. "일체성을 수련하라!" 내면의 존재가 "지금 당장 진리를 완성할 수는 없다 해도, 적어도 그 진리를 수련하고 묵상하고 기억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 후 명상의 가르침을 잊더라도, 내 체험이 빛과 기운과 의식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잘못된 길로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만물이 하나라는 '일체성'은 진리다. 불이론(不二論)을 말하는 스승들은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뿐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다. 신비주의 시인인 루미, 〈아바두타 기타(Avadhuta Gita)〉와 같은 불이론에 근거한 배탄타 경전들, 티베트 족첸(Dzogchen) 수행의 스승들, 독일의 신비주의 사상가인 마이스터 이크하르트 모두, 우주에는 하나의 실재와 하나의 각성만이 존재하며 만물은 서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가르침을 전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두려움, 갈망, 버림받음, 이기심, 공격성, 외로움, 타인과 세계에 대한 부주의 등 온갖 문제는 우리가 서로 분리된 존재라는 생각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일체성을 기억하면 고통은 뿌리부터 흔들린다. 고통의 뿌리를 자르려면 탄트라의 주요 경전인 〈시바드리슈티(Shiva Drishti, 신의 관점)〉의 저자 소마난다의 가르침을 따르라. 소마난다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내가 곧 신이다. 내가 실행하는 사다나(sadhana, 영적인 수행)의 도구도 신이다. 신이 되어라. 그러면 신의 경지를 성취할 것이다."

시바파, 나를 초월하다

카슈미르 시바파는 상당히 훌륭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7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인도 북부지방에서는 요가철학이 번성했다. 이 요가철학은 스리나가르(Srinagar)를 중심으로 해서 '판디타(pandita)'라는 브라만 수행공동체가 연구한 사상이다.

시바파의 특징은 철저한 불이론이다. 물질세계는 환영이요, 무상한 꿈이라는 베단타의 견해를 반박한다. 시바파 현자들은 우주의 모든 형상을 샥티-창조적이고 신성한 기운이며 역동적인 여성성-의 현신으로 보았다. 그들은 샥티가 인간에, 대지에, 가치 있든 대수롭지 않든 모든 만물에 깃들여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모든 체험 속에서 고동치는 신성한 지복을 찾았다. 눈 밝은 구도자들은 신성(神性)을 체험하는 데 무수히 많은 길이 있음을 발견했다. 공포나 기쁨 속에서도, 재채기가 절정에 이른 상태에서도 신성의 순간을 포착해냈다. 텅 빈 공간이나 의식이 한 점에 모인 상황에서 황홀경의 맥박을 발견했으며, 요동치는 마음이나 음악을 즐기는 감각 속에서도 황홀경의 맥박을 찾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시바파의 통찰은 인간의 의식이 육체와의 동일시를 끊고 스스로를 비추면, 지고의 '나(신,神)'가 완벽하게 드러난다고 인식한 점이다. 시바파 요기들은 작은 '나'에 집착하는 경향을 초월하고 자의식을 무한까지 확장하여 자신이 곧 신임을 체험했던 것이다.

시바파의 요가 수행자는 이 세상을 거부하지 말고 일상의 경험을 수행으로 승화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통찰은 다른 인도 요가 전통과 카슈미르 시바파를 구분하는 특징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카슈미르 시바파는 동시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분리심'은 부정적 감정의 원인
물질 집착 벗는 상상 반복하면
신 · 만트라와 나의 '일체성' 각성
고통 뿌리부터 제거 할 수 있어

당시 시바파를 알게 된 사람들처럼 이 가르침은 내게도 쿤달리니 각성만큼이나 근본적인 각성의 변화를 가져왔다. 처음부터 〈프라티아비기아흐리다얌〉을 읽기만 하면 내 정신 상태는 즉각적으로 변했다. 기분이 언짢거나 걱정에 휩싸이거나 중심을 잃는 순간이 찾아올 때, 시바파의 가르침-우주의식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스크린에 이 우주를 드러낸다-을 떠올리면 나의 시야는 곧장 확장되곤 했다.

인간적인 흠이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자신은 신성하다고 여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가족이나 우울함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부정적 감정이 하룻밤 사이에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마음의 습관이나 습성에 따라서는 부정적 감정이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렇다고 '나는 신성하다'는 가르침을 빙자해서 멋대로 화내고 탐욕을 부리거나 부정적 감정에 휘말려서는 안된다. 라마크리슈나 파라마함사는 "우유도 흙탕물고 모두 신이지만 우리는 흙탕물을 마시지는 않는다"라고 자주 말했다.

일체성 수련은 진리 수련

일체성을 확고히 붙드는 데는 오랜 시간 묵상하고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체성을 수련하다 보면 지적인 이해와 습관화된 현실의 차이를 거듭 발견하게 된다. 여러 해 동안 수행을 해오면서 나 자신을 몸이나 개인적인 문제와 얼마나 집요하게 동일시하는지, 의식을 확장하려는 힘에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돌아볼 때마다 거듭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

일체성 수련은 시바파의 근본 가르침 가운데 하나로 시작하면 좋다. 예를 들어, 만트라를 염송할 때는 자신과 만트라와 참자아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며 수련하는 것이다. 여타의 차원 높은 가르침들이 그렇듯이, 이 가르침도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이 수련에 들어가보면 만만치 않다. 나는 분명히 물질적이고 육체적으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산스크리트 만트라와 동일시할 수 있을까? 이 가르침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까?

우선 '나는 이러이러한 성격과 신체를 지닌 사람이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을 기운이나 각성이라고 생각하거나 만트라를 기운이나 파동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기운과 만트라의 기운을 맞추기가 한결 쉬워진다.

일체성을 수련하면 일시적이나마 '나는 몸이다'라는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진다. 자신과 타인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은 당신의 의식과 기운과 사랑임을 깨달아야 한다. 처음에는 이것이 일체성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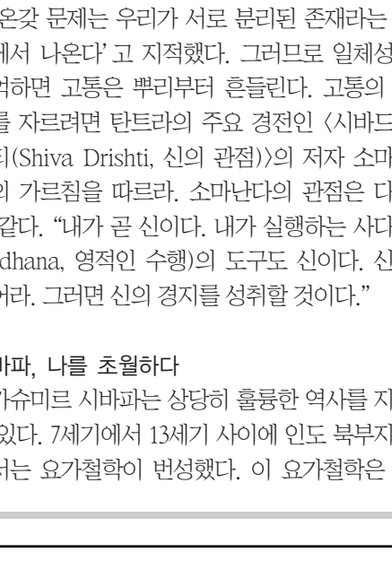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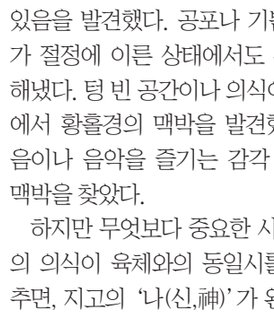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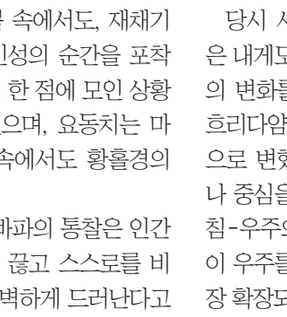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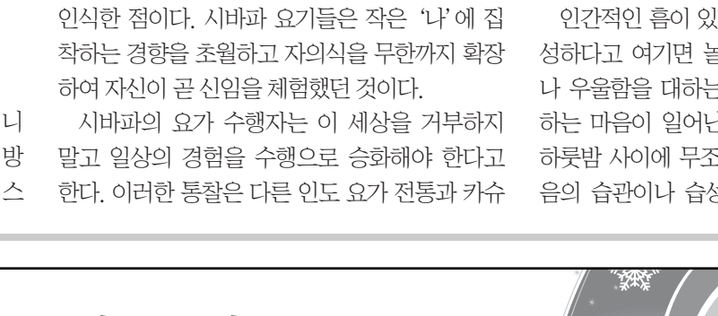
일체성을 체험할 수 있는 동적인 방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자신 앞에 무엇이 나타나듯-만트라, 심상, 가슴 공간, 붓다의 모습, 무릎 통증, 머리의 중압감, 들숨과 날숨 사이의 공간, 환상 등 그 무엇이든-그 속으로 들어가는 수련을 하는 것이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명상 중에 나타나는 것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뀐다.

나는 일체성 수련을 할 때면 상상력을 동원한다. 문이나 출입구를 떠올리고 그곳을 통과한다. 내면에 있는 참자아의 동굴, 가슴 동굴, 의식의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문을 통과하는 수련을 계속한다. 내면에서 연이어 나타나는 여러 개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입구가 필요하다. 여러 개의 문이나 복도를 계속 상상하고 이들을 꾸준히 통과하다 보면 마침내는 존재의 깊은 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의식은 그 자체의 신묘하고 심오한 층에게 보내는 신호로 문의 모습을 인식하는 듯하다. 이 과정은 놀랍도록 간단하고 강력하다. 문을 다 통과한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그곳에 참자아가 있다.

나는 어딘가가 답답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때면 종종 나 자신에게 일체성 수련을 처방했다. 일체성을 수련하는 것은 진리 자체를 수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성 수련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이 있다. 여러 계보의 무수한 스승들은 이 진리를 실현하여 제자에게 전수해주었다. 스승들은 우리가 이 진리를 체험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놓을 때마다, 스승들의 바람이 우리의 존재를 훑고 지나간다. 일체성을 한 번만이라도 기억하면 깨달은 이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지식의 강이 나타나고 내면의 세계가 열린다.

지적인 훈련이나 의무적인 기억에 그치지 않고 일체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우리에게 분리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원래 생각과 생각을 숲을 헤매는 경향이 강한 산란한 마음-산스크리트로는 마나스(manas)-이 체험 너머에 있는 합일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알라는 말이다. 이 마음과 친구가 되지 않으면 명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명상 서적들은 우리의 영원한 화두인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많은 시간과 주의와 노력을 기울인다.

이 글은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한문화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육임 직접 강의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등을 직접 강의합니다.
육임의 대가 운암스님께서 1:1 직접 강의로 수강 완료 후 즉시 개별 상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교 수 : 법연정사 운암스님
과 목 :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명리, 성명학
강의시간 : 1년 과정 (매주 5시간 강의)
수 강 료 : 대육임, 육임금구결 } 각 60만원
월령도, 주역,명리,성명학 - 각 40만원
강의장소 : 법연정사 (경기 구리시 교문동 233-15 2층)
연 락 처 : 031)554-3336 010-5931-3319
법연정사 운암 합장

2017년도 제 5기 신입생 모집
일반교양 및 법사 과정
■ 모집과정 : 교양과정 (1년) 법사과정 (2년)
■ 지원자격 : 불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미래의 불교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2017년 3월 31일까지
◆ 접수처 - 02)989-0529 (사무국) 010-2549-4047 (교육담당)
■ 교육과정(2년과정) 및 강의시간
◆ 1년차 - 법화경. 금강경. 반야심경 등
◆ 2년차 - 법화경. 유마경. 마하지관 등
◆ 강의 : 매주 (목) 오후 6시 30분
1부 18:30 ~ 19:30 / 2부 19:40 ~ 20:40
특 전 : 상기 과정 수료 후, 법화행자로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법사자격을 수여함
한국불교법화종 유지재단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1136호 현대불교
2017년 2월 22일(1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61년

사람이 미신 노릇을 안 한다면 어찌 미신이 있겠습니까?

돌과 나무 등에 의지하는 것에 대해

질문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오래된 나무나 돌 등에 의지하여 소원도 빌고 제사도 지내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과 나무를 함부로 대하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하게 되면 마을에 재앙이 닥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을 마음공부 하는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답변 이런 예가 있었어요. 어느 큰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비참하고 그러니까 산골에서 한 마을을 이루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그 애절하고 괴롭고 그런 것을 어디다 호소할 수가 없어서 그 돌에다 했습니다. 항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누구든지 아쉬움이 있으면은 거기 가서 빌었습니다. 마음으로 호소하고 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돌은 가만히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마음들이 자꾸 거기다가 호소를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거기 집중이 돼 가지곤 그냥 거기 전체가 한 집단이 돼 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사람의 혼백이 말입니다, 하나냐 하면 하나가 아니거든요. 거기 그렇게 호소를 하고 마음을 거기다 두었다면 내 혼이 거기도 있고, 내가 이 육체가 나인 줄 알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있고, 내가 어디에다가 집착을 하고 있으면 집착한 데로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그냥 무분별하게 분별없이 그냥, 그저 그 혼은 열 개도 됐다 백 개도 됐다 만 개도 됐다가 천 개도 됐다가 하나도 됐다가 하면서 이 짓을 한단 말입니다. 배운 사람들은 알아서 고정되게 두지를 않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고정되게 거기다가 아예 착을 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지도 끼지도 못하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그걸 업보라고 하고, 그런 윤회의 걸림에 걸려서 세세생생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들이 거기에 많이 걸려 돌아가죠. 생활에서도 많이 그렇게 돌아가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거기에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그 집단을 이룬 그것을 누가 모아 놨겠습니까? 그 한 동네에서 모아 놨단 말입니다. 그것은 차원이 높은 유전자라면 별문제가 아닌데 차원이 낮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생겼느냐 하면, 거기다가 뭐를 안 갖다 놓으면 동네가 모두 야단법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노릇을 어떡하죠? 처음에는 요만한 거 갖다 놔서 해결이 됐다면은, 나중엔 큰 걸 갖다 놔야 하고 큰 걸 갖다 놓다가 안됐으면 그것보다 더 큰 걸 갖다 놔야 하고, 이 지경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미신 노릇을 하기 때문에 미신이 생긴 거지 사람이 미신 노릇을 안 한다면 어찌 미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 동네에 가서 그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미신 짓을 하기 때문에 그 미신이 있는 거지, 당신네들이 미신 짓을 안 한다면 미신은 없을 것이다." 하고서 그것을 그냥 아예 팽개쳐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못살게 만들어 놓느라고 그런다." 그럽디다. 그래도 떡도 해 놓지 말라고 그러고 모든 걸 아주 싹 없애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가 잘살게 됐습니다. 오히려 편안케 말입니다. 그렇듯이 내 마음 가운데 선신도 있고 악신도 있고, 모든 신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내 한 주인공에 있는 거지 어디 딴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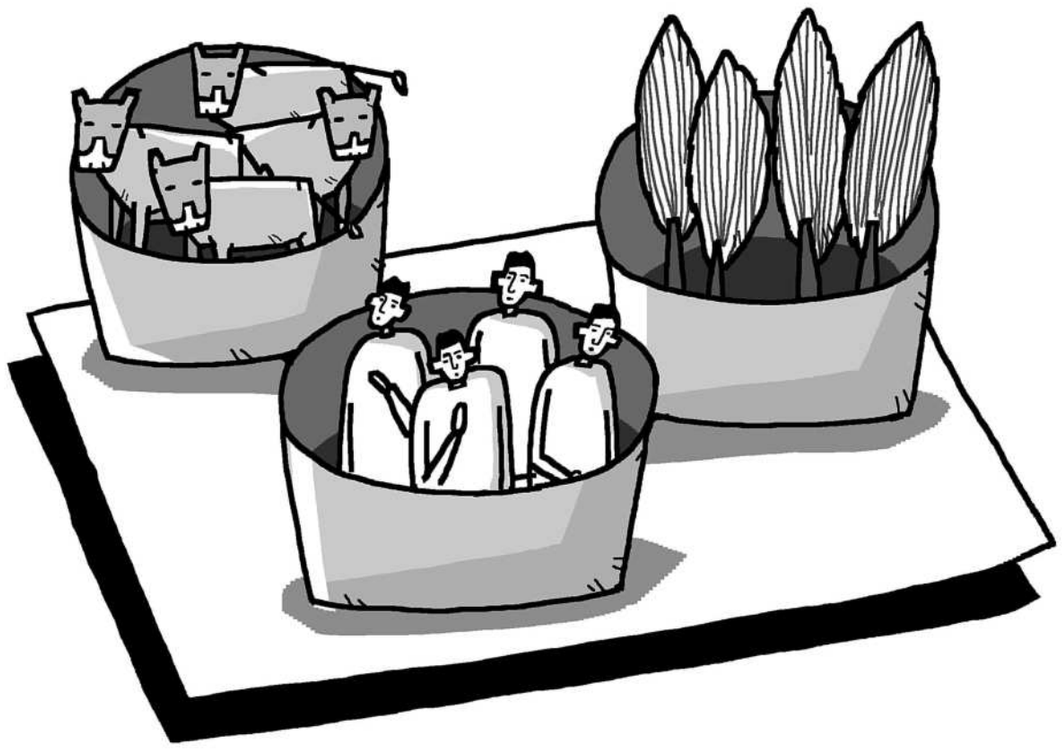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저의 전생을 알고 싶어요

질문 저는 저의 전생이 궁금합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저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저에게 발생하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얽히고설킨 인연들이 어떠한 악연으로 인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를 안다면 보다 수월하게 삶을 이해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전생과 전전 생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고요. 우리가 그런 식물을 봐도 우리 인생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봐도 전생이 있고, 전생이 없다면 지금 현생이 없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생과 현생이 없다는 것은 전생이 바로 지금 현생과 더불어 한데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심이 현재심과 동시에 합쳐졌다는 겁니다.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아시면은 전생이 반드시 있죠.

비유하자면 작년에 콩씨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심어서 콩나무가 난 거죠. 그런데 콩나무가 났기 때문에 콩씨가 또 열리죠? 그 콩씨로 인해서 콩나무가 나고요. 연방 되풀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콩나무가 자기라고 하기 때문에 콩씨는 여차가 된 거죠. 콩씨가 있는데도, 본래 콩씨가 자기한테 있는 것도 모르고 콩나무가 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콩나무가 자기라고 하지 말아라. 콩나무가 있기 때문에 콩씨가 있고 콩씨가 있기 때문에 콩나무가 있는 거니깐 둘이 아니다. 그러니 공했다.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가 일임해서 놔라. 믿어라. 물러서지 마라." 이러는데도 그걸 믿지 못합니다.

또 인과응보라는 것은 바로 콩나무가 나라고 하기 때문에 인과응보입니다. 콩나무가 나라고 할 때는 바람에 맞고, 모든 것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으냐. 너무 끄달리기 때문입니다. 끄달리기 때문에 쫄쫄이가 되죠. 사는 데 그건 부자가 못 되고 아주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생활도 가난하고 육신도 가난하고 모든 게 가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자기에게 본래 창살이 없건만 마음으로 창살을 만들어 놓고 그 감옥에서 헤매고 돌죠.

그럴 때에 자기 마음으로 지어 놓은 업보가 바로 넝마의 차원이냐 금의 차원이냐 무쇠의 차원이냐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지어 놓은 그 업보가, 인연 지어 놓은 것이 깡통 인연을 지어 놨다면 깡통끼리 모여서 부딪칠 거고 넝마 인연을 지어 놓았다면 넝마끼리 모일 거고, 그리고 만약에 금의 인연을 지어 놨다면 금끼리 모일 겁니다.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금끼리 모이고 넝마끼리 모이고 깡통끼리 모이고 무쇠끼리 모이고,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배운 것만치 자기 차원대로 전부 모이지 않습니까? 상인은 상인대로 모이고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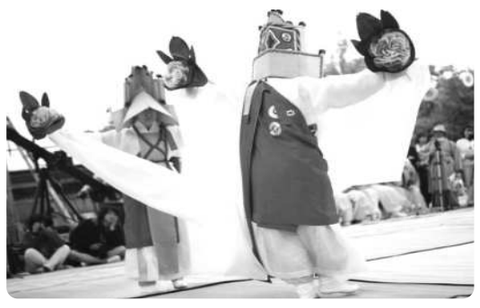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행하고, 배우고 듣고 보고 이런 차원에 의해서 바로 우리는 오늘날 그대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식구로서 살면서도 그렇고, 깡통은 깡통끼리 모였기 때문에 소리가 분잡하게 나죠. 소릴 안 내려고 가만히 했는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말다툼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금이라는 거는 조그마하면서도 항상 속에다 지니기 때문에 말도 없고 부딪칠 필요도 없고 항상 몸에 지니지 않으면은 장 속에 넣어 놓고 이러니 부딪칠 리가 없어요. 그것이 한 차원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보이지 않는 데 마음으로 지어 놓은 것은 보이지 않게 받을 것이고 또는 보이게 육신으로 저질렀다면은 육신으로써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 놓고 우리가 받는 것이지 누가 갖다 주고 뺏어 가는 것이 없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잘 파악해서 잘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는 견성성불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공해서 돌아가되 자기가 지어 놓은 대로 깡통이 되려면 깡통이 되고 자기 마음먹는 대로 자기가 마음먹고 행하는 데에 달렸으니 전생 후생을 따로 찾을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전생에서도 그러한 차원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요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에 태어나서 요렇게 차원대로 모였구나 하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어 놓은 것만치 가지고 탤런트처럼 팔자 운명이 거기 붙어 돌아가고 윤회하는 것입니다.

☞ A18면으로 계속

제11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일시 :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제3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 6개월 과정

- 교육과정 -

불교의식 범음범패 6개월 과정

- 도량석, 종송, 향수혜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범음범패)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6개월 수련후 수료증, 1년과정 졸업후 이수증과 법사증 수여(숙식제공 가능)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 개강일시 : 2017. 2. 28.(화)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
→ 준 비 물 : 목탁, 요령
→ 문 의 : 포항 보경사 종무소 054-262-1117
교육원 강주스님 010-9361-5566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그냥 그저 살면서 닥치는 대로 그냥그냥 거기다가 놔라!

☞ A17면에서 계속

인간까지 올라오는 과정

질문 "인류의 기원에 대한 질문, 즉 창조론과 진화론 어느 쪽이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정치, 사회, 종교, 예술 각계의 인사들이 토론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이 정말 터무니없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답변 그런데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말입니다, 생각해서 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이 지(地) 수(水) 화(化) 풍(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수화풍의 성질과 자기 무전자의 그 독특한 맛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만 살아 있다 뿐이지 모든 게 지수화풍이 움죽거리지 않고 침체돼 있는 상태에선 아마 암흑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수화풍이 제가끔들 살아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너는 너고 나는 나지마는 서로 공존해서 우리 어떠한 걸 세우자고 했다면, 그렇게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지니까 지수화풍은 없어지고 말입니다, '공기'로서의 능력이 발생하게 됐던 거죠.

'공기'라는 그 뜻은 뭐냐 하면 천체를 말하고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별적인 하나 같으면 그냥 능력이라고 해 뒀으면은 좋겠는데 왜 '공기'라고 했을까 이겁니다. 모든 뭇 생명들을 소생케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공기라고 했던 거죠. 그 후에 이름을 지어서 붙였겠죠.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이름도 없이 그것으로써 무전자의 집단체를 이루었던 거죠. 무전자라 하면은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서 공기로서 전체 아니 닿는 데 없이 닿게 되는 향기와 같은, 에너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하여 유전자가 발생된 겁니다.

유전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무전자에서 유전자가 발생될 때는 수많은 그 생명들이 유체로서 보이지 않는 그 유전자의 발생이 온 우주에 확산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로부터 어떠한 것이 형성되었느냐. 유전자로부터 형성된 것이 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별성이 다르고 우리 몸뚱이가 다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별성이요, 그 또한 별성입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차원에서 반짝거리면서 움죽거리는 것을 우리는 무전자에서 유전자가 발생됐다고 말할 수 있죠. 유전자가 모든 생명체들을 소생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전자의 생명에 의해서 그 체가 발생이 됐다면 수많은 별성들의 체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데에도 무슨 청와대가 있으면 국방부도 있고 그렇듯이, 그렇게 별성들이 발생되고 보니까 거기에서는 무전자의 능력으로써 유전자의 묘법으로써 가지각색의 물질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묘법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도 없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즉 말하자면 우리의 선 흔백이든지 악의 흔백이든지, 흔백을 만약에 유전자라고 한다면 차원에 따라서 그 유전자는 달라지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차원이 낮으면은 낮은 유전자가 될 것이고 질이 높으면 높은 대로 유전자의 차원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나투면서 화(化)하면서 그 물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각체 각급의 그 모습은 다를지언정 어떠한 모습으로서 그렇게 발생되는 그 유체들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왔느냐. 별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별은 반드시 북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머리와 두 팔과 두 다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개의 북두칠성이라고 하죠. 그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정부의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치인들로 하여금 모든 이 생명의, 즉 물질로서의 물체들을 생산해 냈던 거죠. 그런데 생산을 해내려 해서 해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면 이렇게 모습이 나오고 저렇게 생각한 거면 저렇게 모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깐 묘하다는 거고 그것이 광대무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보니까 거기에서 또 갈라진 것은 물의 생명도, 흙의 생명도 독특하게 자기의 근본 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바람도 그런가 하면 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의 원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느냐? 지수풍이 한데 합쳐서 비벼졌기 때문에 거기서 불이 일어난 거죠. 즉 말하자면 우리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질척질척한 거와 같이 갖다 넣었더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가스가 생기듯이 말입니다. 그 뜨거운 거기에서 아늑함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생명체가 일어나는 거죠. 그와 같이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광대무변하게 생명과 더불어 물질이 생기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그것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독특하게 물에서 사는 거는 물의 성질을 따르게 됐고 흙에서 사는 거는 흙의 성질을 따르게 됐고, 또 화해서 사는 생명은 화생으로서의 독특한 가짐가짐을 가지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중의 생명들, 그 유전자가 암흑속의 반딧불처럼 반짝거리면서 집단을 이룬 것도 역시 바람의 성질을 아주 독특하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자체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독특한 맛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로부터 났느냐는 이것도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원숭이로부터 됐다는 사람, 곰으로부터 됐다는 사람, 공룡으로부터 됐다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에 한군데로 규정될 수가 없는 것이, 자기의 그 유전자의 진화력에 의해서 자꾸 구르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진화력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마는 독특한 물의 생명의 그 근원을 가지고 있고 흙의 근원을 가지고 있고 바람의 근원을 가지고 있고 그 화함의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독특한 자기의 본성은 그대로 집착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비유해서 우리가 김가면 김가다 하는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가를 벗어나지 못하듯이, 그렇게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각종 각체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각종 각체들이 벌어지면서, 물에서 진화돼서 나온 것도 인간으로 됐고 흙에서도 인간이 됐고, 화해서 난 것이 전부 억겁을 거쳐 오면서 진화해서 동물로, 인간으로, 즉 말하자면 고등 동물까지 진화해서 올라왔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많은 진화의 모습을 각각 가졌으니 마음도 각각이요, 몸도 모습도 각각인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모습이 나와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연쇄적으로 진화해서 올라오는 그 자체를 현재에 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올라온 것이 바로 지금도 그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개구리대로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다. 뱀이 뱀대로 그냥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도 고정됨이 없다는 얘기죠. 인간도 인간대로 고정됨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그렇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가 생각해서 진화하는 그 잠재의식에 의해서만이 자기 물질을, 자기 형상을 그대로 자아낼 수 있다는 그런 각자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물질과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써 이 모든 일체 만법의 만물만생이 전부 진화해서 고정됨이 없이 모습을 바꿔 감으로 해서 이렇게 광대무변하게 세상이 펼쳐졌다는 것을, 확산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머리로써 돌아가는 이 오신통을 넘어서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신통 다섯 가지, 이게 지금 세상에 컴퓨터나 모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원한 자기의 무전자의 컴퓨터가 그렇게 무전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의 다섯 가지 요소가 다 자기한테 들어 있는 겁니다. 그건 왜?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진 하나의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바로 그 다섯 가지 요소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섯 가지에 말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할 때에 똑똑히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우리 인간이 말리고 있고 자유자재 못합니다. 우리가 꼭 심부름을 해야만이 컴퓨터가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사기나 천체망원경이나 또는 무전기나 탐지기나 이런 것이 다섯 가지가 다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영원히 이 무전자의 유전자로, 무전자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그 유전자 바로 거기에 공(空)해 있다는 겁니다. 자연이 거기에 공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물질적으로 연구해 낸 겁니다. 연구해 냈어도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면은 절대로 그건 움죽거릴 수가 없습니다.

> 개구리가 개구리대로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뱀이 뱀대로 그냥 있는 것도 아닙니다.
> 그래서 하나도 고정됨이 없다는 얘기죠.

전생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면

질문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생에 배운 공부, 예를 들면 역사나 외국어 실력 같은 것들을 그냥 가지고 태어난다면 다시 그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옛날에 율곡 선생님도 태어나서 우는 소리가 꼭 글 읽는 소리 같다고 그랬고 또 일곱 살 때 시를 지은 것을 보면 전생에 공부한 것을 그냥 가지고 태어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생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답변 부처님께서는 전생으로부터 부처님 될 그 이름을 타고났다 이랬는데 왜 그렇게 고생을 했소? 하하하. 이거 봐요, 이 무(無)의 세계에서 아무리, 전생에 유(有)의 세계에서 공부를 잘했다 하더라도 바로 탑은 쌓아야 탑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 알아도 다시 한번 방편으로 나와서 그 길을 더 멋지게 걸어야 돼요. 얼른 쉽게 말해서 더 고생을 해야 돼요. 더 그거를 열심히 해서 보여 줘야 모든 사람의 마음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지 아니, 보여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한마음이 될 수 있겠소? 그러니까 율곡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전생에 배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소? 이런 게 있죠. 전생에 다 알고 했으면 물리가, 그만큼 지혜가 넓고 물리가 터져서 그냥 하나를 이렇게 보면은 벌써 열 가지까지, 이 벽을 치면 봇장까지 울린다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깐 여러분이 자식들이 공부를 못한다 뭐 어쩐다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과거는 지나갔으니깐 없으니까, 과거의 업보를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과거의 업보는 내 몸속에 다, 여러분의 악업 선업 뭐 모자라는 의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그저 내가 살면서 닥치는 대로 그냥그냥 거기다가 놔라! '너만이, 네가 그렇게 저지른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고 그냥 되놓는 거죠. 그래야만이 앞서의 입력된 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멀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어저께인데도 내가 탄생하기 이전과 똑같다 이겁니다, 어저께인데도. 거리가 가깝고 멀고가 없다. 일 초 전만 하더라도 과거예요, 벌써.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 전체가 가설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로 느끼지 못하겠걸랑 공부 열심히들 해요. 아무리 전자에 탑이, 잘 쌓아졌던 탑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생에 다시 탑이 쌓아져야 더 잘, 전자에는 탑이 오층탑이었었는데 십이층탑으로다가 잘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가 다 쳐다보게 다 알고, 다 배우고, 다 보고 그래야만이 다 한마음이 돼 주지, 보여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거는 목석인가요? 오히려 전자에 알았다고 할 수가 없죠.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라고 최초에 나와서 이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 깨치면 부처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꽉 찼죠. 하하하.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그저 살면서 닥치는 대로 그냥그냥 거기다가 놔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불자 세상보기 |

청소년에게 친밀한 불교 만들자



황수경
불교상담개발원 이사

제주교육청이 만든 '혼디거념' 팀
자살시도 학생 전담해 상담 진행
지난해 제주도 학생 자살자 全無

제주방언 혼디거념 뜻 '함께 돌봄'
불교 '요익중생' 가르침과 맞닿아

일선 사찰서 집단상담 템플스테이를
인성교육 인증 등으로 포교 활용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중에서 청소년 자살은 적지 않은 분포를 차지한다. 우리의 미래가 될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그런데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제주도는 학생 자살 '0명'을 기록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생 정신 건강 전담팀'을 만들어서 자살 시도 학생이 있으면 해당 학교로 방문했다.

학생 상담은 물론, 학부모에게 자녀와의 대화법을 알려주고, 친구들·담임교사와 만나면서 학교에 24시간 특별상담실도 설치했다. 제주도 전체 초·중·고 교장 190여명을 교육청에 불러 학생자살과 관련된 주의 사항을 알렸다. 이런 노력들 덕분에 한 생명도 잃지 않은 것이다.

자살에는 혼자 고립되고 단절된 심리가 작용한다. 자살시도자 상담연구를 보면 대부분이 "누군가와 상담을 했더라면 자살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한다. 힘든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과 소통은 기본적으로 가족들이 해 주어야 할 역할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는, 사회 차원에서 노력이 요청된다. 사회 지원망의 형성이다. 불교의 연기법과 자타불이의 대승정신이 절실한 것이다.

올해 조계종에서는 불자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전법에 진력한다고 했다. 부처님의 가르침만 전하려고 하기 전에, 청소년들이 절에 와서 무엇을 바랄 것인가 진솔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 청소년들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물질주의에 몰리면서 극도의 스트레스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에 진학한다고 해도 취업이 보장되지 못하는 미래가 불안한 현실이고 부모에 대한 불만도 많다.

경제난에 시달리는 부모들 역시 생업에 쫓겨 자녀의 마음을 살피고 돌볼 여유가 없는 것이다. 자녀와 마음을 나누는 대화방법도 거의 배운 적이 없다. 문제아라는 학생 상담을 해 보면, 부모님과 먼저 상담해야 할 경우가 절대다수다. 부모님과 관계만 좋아져도 아이들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곤 한다.

전국의 사찰에서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마음치유 프로그램과 집단상담을 겸한 템플스테이가 가능하다.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와도 연계할 수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무료로 실시된다면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울산시는 소위 '관심 학생'의 심리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준 결과, 자살 학생 수가 대폭 감소했다. 자녀에게 상담을 받게 하라고 하면 꺼리던 학부모들도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찬성한 것이다. 불교상담개발원에서는 20년 넘게 무료로 '자비의 전화'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 사찰의 노력들도 필요하고, 이미 조계종 포교원에서 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과 '청소년 마음등불' 사업 등이 효과적으로 실시된다면, 곧 전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엄마 아빠, 절에 가니까 마음이 편해져요"라는 말이 청소년의 입에서 나와야 한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기관에는 부모가 고마운 마음으로 오게 된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한 두번 절에 오다보면 자연스럽게 법문을 접하고 신심도 생겨나게 될 것이다.

제주도의 학생전담팀 팀명은 제주도 방언으로 '혼디거념', 즉 '함께 돌보기'라고 한다. 불교야말로 일체 중생의 고통을 소멸시키고 돌보는 요익중생의 가르침이 아닌가. 어떤 학생이라도 예외 없이, 부처님의 눈에는 모두가 평등하고 귀한 생명이다. 절망에 빠진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부처님의 자비원력이 적극적으로 실현되길 발원한다. 아이들 가슴에 생명의 봄이 환하게 피어났으면 한다.

社說

스님 국민연금 가입 지원해야

종교인들의 노후 복지를 위한 공적연금과 교단 연금체계 등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1월 발간한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에 따르면 종교인들이 노후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수준은 평균 3.07점(5점 척도)이다. 불교가 3.37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신교 3.11점으로 뒤를 이었고, 천주교는 2.71점으로 노후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문제는 걱정은 많은 데 준비가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교의 경우 '노후준비 수단 없음'이 45.5%로 가장 많았다. 불교의 국민연금 가입률도 31.8%로 다른 종교보다도 떨어졌다.

스님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조계종의 경우 승려복지법에 따라 기존 수행연금 중심 체계에서 국민연금 중심으로 전환해 일정 보험료를 지원하지만, 아직은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연구원 측은 종교인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방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도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음을 지적했다.

종교인이 노후를 걱정하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현 시대에서는 종교인 노후보장은 꼭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종교인 역시 국민의 일원으로 안정적 노후는 보장받아야 할 복지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은 필수적이다.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을 위한 기본 수단이 되고, 보조적으로 종단 및 교구가 돕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금은 거의 붕괴되다시피 한 사부대중 공동체를 다시 복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에 부쳐

도난 불교문화재 매매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계종의 〈불교문화재 도난백서〉가 새롭게 리뉴얼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는 1999년 조계종이 도난된 불교문화재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 사찰로 환지본처하기 위해 처음으로 발간됐다. 그로부터 8년만의 리뉴얼이다.

이번 증보판은 1999년 이후 2015년까지 종단에 축적된 자료와 문화재청의 도난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추가로 도난이 확인된 갑장사 불상, 화엄사 경갑·어작 등 153건이 신규로 게재됐으며, 사진 있음과 없음으로 파트를 나눠 총 440건의 도난 불교문화재들이 실렸다.

불교계로서는 성보를 제대로 보호 못한 치부이기는 하지만, 도난 성보들이 경매시장에서 유통·매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백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도굴꾼과 장물업자들이 '선의취득'을 악용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백서와 더불어 조계종 등 불교계는 공소시효 폐지 등의 법령 개정도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화재 장물을 취득한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 문화재를 경매시장에 내놓는다.

불교문화재 도난은 사찰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역사적 의미까지도 무참히 훼손하는 몰염치한 범죄행위다. 도굴꾼과 장물업자들의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시장 루트를 고사시켜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공소시효 폐지이다.

또한 박물관과 경매업체, 개인 컬렉터 등 전문 취급자에게는 문화재 구입 시에 출처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성보는 제자리에 있어야 가장 빛이 남을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길 바란다.



사유의 숲을 거닐며

자연이 보인 '眞空妙有 유희'

송마나 작가

열이레 달빛에 밤이 깊어간다.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이리저리 기웃거린다. 내가 눈처럼 나뭇가지에 내려앉아 밤바람의 친구가 되어줘야 할까 보다. 지인 하전거사(夏田居士)의 단시, '놀이'에 함께 어울리고 싶기 때문이다.

"솔가지에 얹힌 눈 한 줌 / 툭 떨어뜨리며 혼자 노는 밤바람"

만물이 잠든 고요한 밤이다. 이런 밤에 주저리주저리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는가?

단 두 줄의 짧은 시 속에 온 우주를 담았다. 우주는 하루 속에 깃들고, 하루는 낮과 밤을 껴안는다. 바람이 밤에 눈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은 낮에 솔가지에 눈이 내렸기 때문이다. 마조(馬祖)대사가 임종 직전에 읊었던 일면불(日面佛), 월면불(月面佛)이다. 저자는 온전한 하루, 해님과 달님을 노래한다.

바람의 놀이터는 무한 공간이다. 솔가지에 얹힌 눈은 하늘로 날아오를 듯 깃털처럼 가볍다. 눈은 땅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바람은 하늘도 땅도 아닌 빈 공간에서 노닐고 있다. 하전거사는 물리적인 공간을 초극하여 무위(無爲)의 세계에서 소요(逍遙)하고 있다.

그렇다고 바람은 현존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 눈은 존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솔가지에 얹혀 있다. 어쩌면 누가 이곳에 얹어 주었는지도 모른다. 후 하고 불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다. 아슬

시의 침묵 너머로 눈 녹는 소리 들려
바람돼 '無我 놀이'에 빠져보고 싶다

아슬 위태로운 모습은 나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바람은 이런 중생을 마냥 바라만 보고 기다릴 수 없다. 달걀이 부화하려는 기미를 알아채고 어미닭이 밖에서 알을 쪼아 깨뜨리듯이 바람은 눈을 툭 건드린다. 바람의 줄탁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사랑이다.

바람은 시청각 놀이를 즐긴다. 함박눈이 펑펑 쏟아져서 소나무를 덮었다면 세상은 온통 무채색이겠지만 눈이 살포시 내려앉은 소나무는 제 빛을 잃지 않고 오히려 푸르다. 여기에 달빛마저 교교하게 비춘 밤은 시원(始原)의 적요(寂寥)를 투명하게 드러낸다. 그만, 정적(靜寂)이 깨진다. 솔가지에 얹힌 눈이 흩날리지 않고 그대로 떨어진 것이다. 바람이 눈의 본질을 해체하지 않고 공간만을 이동시켰다. 이때 피어나는 아름다운 소리. 툭, 우주가 열리는 소리이다.

눈 한 줌은 한 점 우주이다. 깊은 겨울밤을 툭 건드리는 것은 지고(至高)의 경지에 이른 선(禪)적 놀이이다. 응축된 시의 첫 행이 두 번째 행에서 기화(氣化)한다. 위와 아래,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진다. 가고 옴이 없는 바람은 이렇게 무화(無化)된 정적 속에서 삼매(三昧)의 유희를 즐긴다. 겨울 속에서 봄빛이 새어 나오고, 시의 침묵 너머로 눈 녹는 소리가 들려온다. 진공묘유(眞空妙有)이다.

나도 바람이 되어 무아(無我)의 놀이에 빠져들고 싶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

진귀 수인(手印) 수행법



깨달음 산문은?

기존의 각종 기도법 및 수행법과
불교의식을 일체 하지 않는 곳이며,
오직.....
80화엄경을 현대식 버전으로 재번역한
깨달음 경전으로 독경, 사경, 법경
수행을 함과 동시 독창적인
진귀 수인수행법으로 고통 해탈의
문을 여는 순수 수행 단체입니다.

수인 수행법은?

80화엄경 제 17품 초발심공덕품에서 법혜보살의 게송중에 〈부처님의 복과 지혜가 무변함과 같아서 수인(手印)을 따라 집착함이 없음이로다〉에 근원한 수행법으로 불가사의하게 지은 집착덩어리를 자연스레 부수어 소멸되는 고멸도성제로 나아가게 하며 이러한 귀한 인연으로 스스로 사대가 강건해짐을 체득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해탈문을 찾는 불가사의한 수행법입니다.

강좌안내

■ 화엄경 강좌 (2시간 강좌)
- 강의일자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봄 학 기 : 3개월 (4월/5월/6월)-월 3회 총 9회 강좌 종료
- 가을학기 : 3개월 (9월/10월/11월)-월 3회 총 9회 강좌 종료
- 휴 강 : 여름 2개월 / 겨울 4개월

■ 수인수행법 강좌 (2시간 강좌)
- 강의일자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봄 학 기 : 3개월 (4월/5월/6월)-월 3회 총 9회 강좌 종료
- 가을학기 : 3개월 (9월/10월/11월)-월 3회 총 9회 강좌 종료
- 휴 강 : 여름 2개월 / 겨울 4개월

▶ 문 의 : 깨달음 산문 1899-9532

2017년 무료공개강좌 일정

〈2017년〉

3차 공개강좌 : 주제 : 정견과 사견의 전도몽상
일시 : 2017년 3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4차 공개강좌 : 주제 : 붓다의 충격?
일시 :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오후3시

5차 공개강좌 : 주제 : 이뭣꼬?의 정체성
일시 : 2017년 5월 21일 일요일 오후3시

6차 공개강좌 : 주제 : 깨달음 경전은 어떤것인가?
일시 : 2017년 6월 18일 일요일 오후3시

7차 공개강좌 : 주제 : 범부의 고뇌와 희망
일시 : 2017년 7월 16일 일요일 오후3시

8차 공개강좌 : 주제 : 수행자의 고뇌와 희망
일시 : 2017년 8월 20일 일요일 오후3시

9차 공개강좌 : 주제 : 일승기신론과 대승기신론
일시 :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오후3시

10차 공개강좌 : 주제 : 고통과 병통은 괜히 오지 않는다
일시 : 2017년 10월 22일 일요일 오후2시

11차 공개강좌 : 주제 : 길없는 길속의 내비
일시 : 2017년 11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12차 공개강좌 : 주제 : 희망은 있다
일시 : 2017년 12월 17일 일요일 오후2시

- 신청접수 : 각 회차별 무료예약 (선착순33명 제한)
- 문 의 : 1899-9532
- 강 사 : 깨달음산문 - 방장 진귀

※ 공개강좌 예약신청 후 참석하지 않으신 분은 다음 강좌부터는 예약신청 및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깨달음 山門

NAVER 깨달음산문 검색



“내려오니 보이더라. 산 아래 중생의 ‘삶’ 이!”



엄홍길에게 산은 인생 그 자체였다. 산을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는 이제 산 아래 사람들의 삶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어느 덧 그의 모습은 산을 닮아 있었다.

리더에게 聽하다 불자 산악인 엄홍길 대장



엄홍길 대장이 팡보체 휴먼스쿨에서 네팔 아이들과 밝게 웃고 있다.

히말라야에는 에베레스트를 비롯해 해발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4개 있다. 여기에 독립된 봉우리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역시 8000m가 넘는 두 개의 봉우리(얄룽캉, 로체샤르)가 더 있다. 산악인들은 이를 합해 히말라야 16좌라 부른다.

2007년 5월 로체샤르 등반으로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좌 등반에 성공한 산악인 엄홍길. 그는 16좌 등반을 위해 22년 동안 38번 인간의 한계를 넘는 도전을 했다. 성공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8번 실패하는 과정에서 10명의 가족과 같은 동료를 잃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기도 했다.

히말라야 16좌를 완등한지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산 아래 사람들의 삶을 가꾸기 위한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다. 바로 ‘엄홍길 휴먼재단’을 통한 ‘휴먼 도전기’이다.

그 일환인 네팔 사찰 복원을 위한 ‘한국의 작은 부처들’ 프로젝트 시작을 기해 2월 10일 서울 장충동 ‘엄홍길 휴먼재단’에서 그를 만났다.

“돌아보니 산이 품을 내주어 내가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란 말과 함께 “이젠 산 아래 사람들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그의 미소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자신 위한 히말라야 도전기

38번 도전 중 18번 실패
수차례 死線에서 돌아와
“정상 향해 욕심 내는 순간,
산은 가차없이 변한다”

사람을 위한 휴먼 등반기

동료 유가족 위해 재단 출범
네팔 오지 학교 건설도 매진
16좌 본 따 16곳 건립 서원
네팔 대지진 당시 구호 앞장

소년 엄홍길이 산에 미친 이유는 단순했다. 그저 산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경남 고성에서 농사를 짓던 그의 아버지는 1963년 3살이던 그를 데리고 경기도 의정부로 이사를 왔다. 도봉산 자락에 등산객을 위한 작은 매점을 했다. 집이 산 중턱이니 날마다 자연스럽게 산을 탔다. 곧 ‘날다람쥐’라고 부를 정도로 산을 잘 타게 됐다. 그는 중학생 때 도봉산 두꺼비 바위서 클라이밍 기초를 배우고 1980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설악산에 들어갔다. 전문 산악인이 되기로 해 대학에 미련은 없었다. 故정양근 선배가 대청봉 밑에서 산장을 운영했는데 일을 도우며 설악산을 탔다. 아무리 험준한 산도 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넘쳤던 때였다.

Q: 엄홍길이 산에 미친 이유는?

“산은 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또 살아갈 에너지와 지혜, 인생의 좌표를 제시해주는 멘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평생을 함께 해온 동반자이기도 하죠. 어려서부터 힘들 때면 산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산에 가면 그 기운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것만 같습니다.”

산장 생활 동안 전국 산악인들과 인연을 맺은 그는, 비수기면 다른 산을 찾아 등반을 했다. 많은 산 정상에 오를수록 히말라야에 대한 꿈은 더 커져갔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다. 바로 군대였다. 그는 해군특수전단(UDT)에 지원했고, 이는 산악인으로서 그의 능력을 배가시켰다. 수영을 통한 폐활량과 근력은 이후 그의 히말라야 등반의 기반이 됐다. 1984년 9월 엄홍길은 제대를 하고 그해 연말 에베레스트 원정을 준비했다. 1년간 혹독한 훈련을 했고, 1985년 첫 도전이 있었다.

Q: 왜 히말라야인가?

“1977년 고등학교 1학년 때 故고상돈 선배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어요. 신문을 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서 태극기를 든 신문사진을 오려 붙이고 보고 또 보았죠. 그 날 이후로 온통 히말라야 빙벽을 올라가는 모습만 머리 속에 떠올랐습니다. 집안에서는 당연히 반대가 심했죠. 어머니는 절에 가서 무사귀환을 위한 기도를 하시곤 했죠. 이런 걱정하시는 부모님 마음에 처음 히말라야 갈 때는 단순 업무라고 하기도 했어요.”

열망은 높았지만 그는 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정상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1985년 첫 히말라야 등정부터 이 가르침을 뼈저리게 배웠다. 경험부족과 기상변화로 실패한 이후 재도전한 이듬해, 중도에 동료 셰르파(티베트족 계열의 조산족 이름, 현재는 히말라야 등산에 없어서는 안 될 등반 도우미 의미로 알려져 있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며 포기했다. 이 밖에 산에서 숱한 고난을 만났다. 1998년 안나푸르나에 네 번째 도전 할 때에는 빙벽에서 미끄러져 오른발이 180° 돌아갔다. 왼발의 힘만으로 겨우 하산했다. 그 휴유증으로 지금도 오른발에는 힘이 전해지지 않는다.

Q: 실패해서 산을 내려올 때 어땠는가? 실망감도 컸을 텐데…

“물론 실망도 했지요. 하지만 성공만 계속 됐다면 나를 돌아볼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 실패를 통해 간절함을 확인하고, 또 순응에 대해 알게 됐지요. 실패를 거울 삼아 순응하는 법을 배운 덕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저를 만든건 열여덟 번의 실패입니다.”

그는 산에 대해 욕심을 부리는 순간, 인자하게 보이던 산은 무서운 사신(死神)으로 변한다고 했다. 산 앞에 겸손해야 함을 강조하는 그는 마치 산을 오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과도 닮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자만했던 것들이 마음에 걸린다며 앞만 보고 갈 때는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산에서의 성찰은 엄홍길을 산 아래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었다. 히말라야에 삶의 터전을 잡고 사는 가난한 이들에게 내일의 행복을 위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는 ‘사람’을 인생의 17좌로 정했다.

Q: 이젠 마음을 내려놓은 것 같은데?

“애초에 세웠던 목표가 16좌이고 여기까지 산이 허락해 줬으니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아야죠.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진즉에 사단이 났겠죠. 산에서도 하산이 중요합니다. 정상이란 목

INSIDE

B3 기획연재 박원자의 절 수행

B4 출판 틱낫한 스님의 〈너는 이미…〉

B6 기획연재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내 人生은 나눔과 회향의 山으로 향한다

엄홍길은?

도봉산 일대에서 자란 그는 아시아 최초로, 아울러 인류 역사상 8번째로 히말라야 8000m 14좌에 완등했고, 위성봉 얄룽캉과 로체샤르를 완등하며 세계 최초로 16좌 완등에 성공했다.

엄홍길은 산을 오르는 것에 대해 '정복'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산이 정상을 잠시 빌려주는 것일 뿐 사람이 어떻게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자신이 산에 올라간 것도 산이 자신을 받아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엄홍길 휴먼재단 상임이사, 대한산악연맹 자문위원이자 국민생활체육회 이사, 조계종 산악회장 등으로 있다.



'엄홍길 대장' B1면에서 계속

표를 보고 전진 한 뒤 방종한 마음이 사고를 불러오죠. 한번은 도저히 하산을 못하는 상황에도 처했어요. 하산길에 '살아서 내려가게만 해주시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빌었어요. 그런 마음에 한발 한발 디디다 보니 캠프가 보이더군요."

그의 뇌리 속에는 함께 등반하다 죽은 동료들의 유가족들이 망연자실하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다. 산에 오르기를 잠시 멈춘 그는 2008년 '엄홍길 휴먼재단'을 통해 유가족들을 비롯해 셰르파 가족과 네팔 사람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나섰다. 16좌를 본 따 네팔에 열여섯개의 학교를 지어주는 휴먼스쿨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했다.

Q: 처음 학교를 지은 곳이 에베레스트 등정 당시 실족한 셰르파의 고향이다.

"팡보체는 에베레스트 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입니다. 처음 사고로 잃은 동료의 고향이지요. 그는 당시 결혼한지 3개월 밖에 안됐었습니다. 그쪽에 무언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보이니 특히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부모들처럼 포터와 셰르파로 사는게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싶었죠. 바로 학교였습니다. 현지인들이 자동차도 들어갈 수 없는 고지대에 학교를 짓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시도했습니다."

엄홍길 휴먼재단은 현재 11곳에 휴먼 스쿨을 준공했다. 기공된 곳은 총 15곳으로 조만간 16곳이 완공될 예정이다. 그가 16좌 완등을 선물한 히말라야에 16개의 휴먼스쿨을 짓기로 한 것은 히말라야 산과 약속했기 때문이다. 학교 뿐만 아니라 기숙사와 의료시설 등 부대시설 완비까지 일은 '산'처럼 많지만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

고산병 등으로 고생하는 현지인과 산악인을 위해 3450m 높이에 오지 병원을 건립하고, 2015년 강진으로 인해 무너진 사찰 재건과 이재민 등을 위한 피해 복구 지원 사업, 셰르파 유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 사업 등에 전력투구하며 민간 외교관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Q: 네팔 대지진 당시에는 대한적십자 긴급구호대로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갔다.

"네팔은 저에게 정말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곳인데 나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진 당시 학교가 현지인들의 피난처가 됐고, '네팔에 학교짓기를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들 사이에 구호활동을 하는 건 위험하지만, 뭐… 제가 한 일 중 위험하지 않은게 있었겠습니까."



엄홍길 대장은 '한국의 작은 부처를' 프로젝트를 통해 네팔 지역 사찰 복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불교 사원 복원에도 앞장

히말라야 마을 사원 붕괴
'한국의 작은부처들' 시작
사원 복원 위해 모연 나서

"룸비니서 부처님이 저에게 또 다른 목표 준 것이라 생각"

Q: 네팔 사람들에게서는 무엇을 보았나?

"네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불교적인 영향이 크지만 첫째는 욕심이 없고, 둘째는 현재에 만족하며 살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적습니다. 국가적인 대재난을 당했는데 모두 원망없이 덤덤히 자기 자리서 자신의 일을 하더군요. '누굴 탓하고 원망하겠느냐, 자연재해인데…' 이런 마음이 비쳤습니다. 가령 구호물품을 배급할 때에도 긴 줄을 섰다가 자신의 앞에서 물품이 동이 나도 흔히 있는 '왜 나는 안주느냐' 등 다툼 하나 없었습니다. 작은 하나라도 서로 원망하고 다투는 우리네 모습이 비쳤어요."

그는 올해부터 네팔 지역 사찰을 복원하는 사업도 전개 중이다. 이름하여 '한국의 작은 부처들' 프로젝트다. 첫 번째로 에베레스트 쿰부 팍팅(2800m)에 위치한 '드락토르 도르제 포트랑'(Draktod Dorje Phodrang) 사원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활동에 2월 5일 서울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이 신도들의 마음을 모아 기금 2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Q: 사찰 복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소개해달라.

"학교 건립으로 바쁘게 네팔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였어요. 혹시 사찰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것을 아느냐는 현지 동료의 말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쿰부 팍팅은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 가는 길목에 위치한 해발 2800m 지대의 마을입니다. 여기에는 16세기에 지은 사원이 있는데 지진으로 인해 붕괴된 상태입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가 동료들과 봤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팡보체와 타메 등 4000m가 넘는 지역에도 사찰 2곳이 있지만 이 곳이 피해가 가장 심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각목을 대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요사채에 스님들이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기거하는 상황입니다. 사원을 해체분해 해야 하는 상황이죠."

Q: '한국의 작은 부처들' 의미는 무엇인가?

"2015년 룸비니에 10번째 휴먼스쿨을 지었거든요. 그때 룸비니에서 부처님이 '학교 짓는 일도 좋은 일이지만 사찰도 하나 지어봐라' 하고 새해 목표를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막 시작한 단계라 아직 모인 기금이 없지만 불자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큰 단체 뿐만 아니라 한국불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사찰 재건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한국의 작은 부처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팔 사원복원에 나선 엄홍길은 지금도 한달에 서너번은 산과 마주한다. 조계종 산악회 회장으로 불자들을 산으로 이끌기도 하고 'DMZ평화통일 대장정' 등 산과 관련된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이 산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그는 국내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산행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엄홍길은 개인주의적이고, 공동체 정신을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도전의식을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가 인간 언어 중 가장 아름다운 말로 꼽는 단어는 '도전'과 '나눔'이다.

Q: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 듯하다.

"우리나라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된 것이 4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을 이루고 발전한 데는 많은 국가들의 도움이 있었지요. 나눔과 기부는 또 다른 나눔과 기부로 이어집니다. 팡보체에서 우연히 만난 다리를 저는 아가씨의 수술을 한국까지 와서 성공적으로 해줄 수 있던 것도 네팔에서, 한국에서 손을 내미는 인연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간호학교 수업을 마친 뒤 팡보체 마을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나눔과 도움이 우리 사회에 확산됐으면 합니다."

Q: 끝으로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왜 그토록 산에 올라야 했을까.

"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공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안지켜도 그만인 약속이지만 제 자신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죽음도 불사할 수 있을 정도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각오를 다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인생의 목표와 꿈을 향해 힘차고 멋지고 아름답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주변을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히말라야와 약속했다는 네팔 내 16개 학교 건립 꿈도 어느덧 9부 능선에 도달했다. 그러던 찰나 또 다른 능선이 나타났다. 혹시 이 능선 넘어 또 다른 꿈을 품고 있지는 않을까. 이미 그는 나눔과 실천의 정상을 향해, 휴먼재단이란 베이스캠프를 뒤로 다시금 나섰다. 덕분에 엄홍길의 피부는 여전히 까맣게 그을려 있다.

후원 : 국민은행 491001-01-189440
(엄홍길 휴먼재단)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 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생사해탈 대자유, 3000배서 찾다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④ 선승 불필스님의 108배

"필자는 오랫동안 스님을 뵈어왔지만 단 한 번도 삶의 현장인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동요함이 없는 깊고 분명한 눈동자, 단정하고 위의 있는 몸가짐으로 언제나 좌중을 압도한다. 한결 같은 도에 대한 확신과 스승에 대한 물러남 없는 존경심은 조용한 리더십으로 표출된다. 필자는 그러한 모습만으로도 스님께선 인간의 존엄성을 완성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스님과 동시대를 함께 하고 있음이 더할 수 없이 행복하다."

몇 해 전 한 계간지를 통해 불필 스님을 인터뷰하고 마지막 부분에 쓴 글이다. 스님에 대한 나의 저 느낌은 지금도 변함없다. 스님을 뵐 때마다 나는 늘 수행의 위대한 힘을 느끼고 다시 신심을 세우곤 한다.

스물한 살, 출가하기도 전에 이미 인간이 기울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내 정진했다는 스님을 뵌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눈빛은 여전히 형형하고 그 위로 마치 파도치는 물결처럼 굵게 패인 이마의 주름 또한 변함없이 아름답다. 처음 소년처럼 순수한 스님의 뒷모습을 보고 사람은 뒷모습으로도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후 단 한 번도 구부정하거나 흩어진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사람은(인간은) 세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고 살아갈 때 늙는 것이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분이다. 올해 세수 여든 하나인 불필 스님의 기상 시간은 새벽 2시. 간단히 세수를 하고 108배를 한 뒤 좌선을 하는 것으로 하루의 문을 연다.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하루의 일과를 그렇게 시작하는 스님을 나는 '절을 시키는 선수'라고 부른다. 한 평생을 참선수행으로만 일관해 온 스님을 그렇게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불필 스님의 은사인 인홍 스님의 일대기를 쓰기 위해 종종 해인사 금강굴에 드나들던 어느 날의 일이다.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금강굴에는 스님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많다. 그날도 역시 남자분들 몇 사람이 방문을 해서 스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사업가, 치과의사, 교수 등 직업이 다양한 분들과 대화가 끝나갈 무렵,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거사님들, 한 백일 동안만 108배를 좀 해보세요."

스님의 화법은 언제나 간단명료하다. 절을 하면 어떤 변화가 오고 무엇이 좋은지 그런 말씀은 없었다. '해보시지요?' 한 말씀뿐이었다.

그런데 놀라온 것은 사오십대로 보이는 그 분들이 마치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를 기꺼이 받아드는 초등학생들처럼 '예, 스님,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인 것엔 스님의 카리스마도 한 몫을 했겠지만, 나는 그 때 사람들에겐 좀 더 나은 나로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단 한 번에 스님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어쩌면 저분들이 변화하고 싶은 욕구를 만족시키는 108배 숙제를 받기 위해서 스님을 찾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무엇이든 한번 마음먹은 게 바로 실천이 되고 지속된다면 인생에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집에서 홀로 도전해보는 108배는 한 번에 뚝딱 실천되기 어렵다. 몇 번의 실패를 반복하면서 자리를 잡기도 하고 제풀에 꺾여 중단되는 경우가 더 많다. 아무튼 그날 이후 나는 그 분들이 과연 절을 잘 하고 있을까 궁금했다. 스님의 카리스마가 과연 통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했던 것은 나이든 남자들이 그렇게 덥석 받아든 하루 108배 숙제를 과연 계속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몇 달 후 스님을 방문했을 때 여쭈어보았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

"왜, 그때 제주도에 사는 그 치과의사분 있지요? 백일 동안 108배를 하고 난 뒤 요즘은 하루에 3백배를 한다고 하더군요. 일단 해보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솟아나는데 안 할 수 없지요. 그런 경험을 하다보면 스스로 횟수를 늘이게 돼요."

금강굴서 매일 108배 권유
절하며 성철 스님 가르침 이해
절 수행으로 불치병도 치유
인간 내재 무한 능력 계발해

누구든 스님께 '절 한번 해보세요' 하는 소릴 들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다. 우리 큰 아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금강굴에 데리고 갔는데,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를 앉혀놓곤 '사람에겐 누구나 무한한 능력이 있단다. 3천배를 해보면 그걸 알 수 있을 거야. 여기 온 김에 한번 하고 가면 어떻겠니?' 하시더니 바로 그날 3천배를 하게 한 분이다.

중학교 3학년이던 작은 아이를 방학 때 스님이 정진하고 계시던 석남사에 쉬다 오라고 보냈더니, 그곳에 머무는 열흘 동안 매일 1080배, 마지막 날엔 3천배를 시키셨다. 스님의 한 말씀에 꼼짝없이 3천배를 했던 우리 아이들은 십 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스님 말씀을 거역할 사람이 있을까? 아무튼 자신감을 얻는 데는 절이 최고'라고 입을 모은다.

절을 권유해서 별로 실패해본 적이 없는 스님은 언제, 어떤 계기로 108배 수행의 위력을 경험했을까?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부처님 한분만 의지해 공부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4천배씩 한 적이 있어요. 정식으로 절을 배운 적이 없어서 4천배를 하는 데 스무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 일체의 잡념



그림 · 김홍인

없이 절을 하면서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인 힘을 계발하면 생사를 해탈한 영원한 대자유인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번뇌 속에서 삶과 죽음이 계속되는 고통이 연속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스님의 속가 아버님이자 출가의 길에 있어선 법사였던 성철 스님께서는 '인간은 마음속에 절대무한의 세계를 다 갖추고 있는 절대적 존재이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계발해서 참으로 완전한 인격을 완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 절을 하고나서 스님은 그 말씀을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뒤에도 스님은 참선을 하면서 때때로 3천배, 1만배 정진을 하면서 인간에게는 퍼내고 퍼내어도 다쓸 수 없는 무한한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들이 오늘날 스님을 절을 시키는 선수로 만들었을 것이다.

비구니계를 받고 운수납자로 다니며 수행에 전념하던 젊은 시절, 스님께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불러 절을 하게 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한 사연은 내가 스님에게 들은 절 수행 가피 중 가장 감동 깊게 남아있는 이야기다. 그 사연은 이렇다.

고향과 가까운 곳에서 정진하고 있던 어느 날, 초등학교 친구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출가 후 세속에서 있었던 일은 모두 잊었는데, 박꽃처럼 얼굴빛이 창백하고 눈썹이 하나도 없는 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돈 것이다. 3천배를 시키면 나을 것 같은 확신이 들어 사람을 통해 보고 싶다는 연락을 취했다. 연락을 받고 친구가 왔는데 보니,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의학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을 앓고 있었다. 스님은 친구에게 간곡히 권했다.

"백일 동안 하루 천배를 하면서 기도해 봐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대대로 유학자 집안에서 자란 친구는 절이 낯설고 생소한 곳이었으나 워낙 자신의 앓고 있는 병이 지중한데다 옛 친구인 스님의 뜻이 고맙기도 해서, 바로 절에 머물며 기도를 시작했다. 스님들의 밥을 해주는 공양주 노릇을 하면서 절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업장을 녹이고 복을 짓는 데는 공양주만한 공덕이 없다는 말이 있다. 스님은 복을 지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친구를 배려했을 것이다. 친구는 스님들이 잘 드시고 정진할 수 있도록 정성껏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지어 올리면서 열심히 절을 했다. 백일기도를 시작한지 79일 째 되던 날, 스님이 친구를 불렀다.

"이제 21일 남았지요? 남은 기간은 하루에 3천배씩 해봐요."

남은 시간 기도의 강도를 높여 21일 3천배 기도를 시켜본 것인데, 친구는 그동안 절을 하면서 느낀 게 많았는지 순순히 받아들였다. 남이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하는 3천배도 쉽지 않은 일인데 공양주를 하면서 하루에 3천배를 하는 것은 보통 결심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 친구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백일기도의 초심을 잃지 않고 열 시간 정도 걸려 3천배를 정성껏 했다. 드디어 백일기도를 마치던 날 스님이 친구를 불러 기도를 하면서 좋은 소식이 없었는지 물어보자 친구가 꿈 이야기를 했다.

"밤새도록 잠깐 엎드려 있는데, 기골이 장대한 남자가 손에 물병을 들고 나타나서는 제게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낯모르는 남자가 주는 것을 덥석 받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법당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는 빨리 받아먹으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받아먹겠다고 하면서 끝내 받지 않았어요. 꿈을 깨고 나니 물을 받아 먹지 않은 것이 몹시 후회됩니다."

물을 받아먹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친구에게 스님은, 물병을 내밀었던 분은 중생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약사여래이고, 흰옷을 입고 나타난 분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해주는 관세음보살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불교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친구는 스님의 이야기를 듣더니 용기백배하면서 기도를 더 해보고 싶다고 했다. 안거가 끝나 다른 절로 가야했던 스님은 그 절에서 가까운 다른 절을 소개해주며 이번엔 하루에 3천배씩 백일기도를 해보라고 권했다.

젊은 시절의 불필 스님을 본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말없이 정진만하는 스님의 서늘한 기운에 눌려 감히 말을 건네거나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듯 화두 이외엔 아무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젊은 날의 스님이 세속의 친구를 불러 절을 권했던 것은 인간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자신이 108배를 통해 사무치게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불치병을 앓고 있던 스님의 친구는 그 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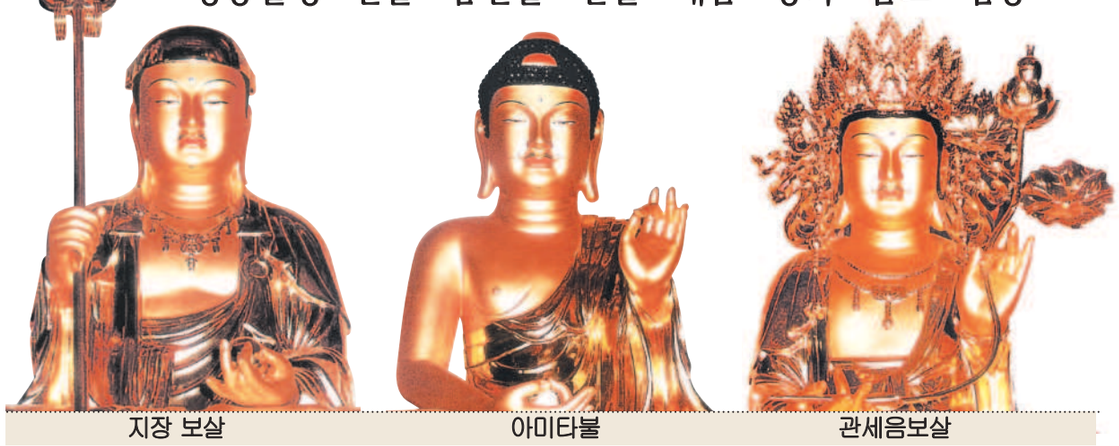
불사 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2.15~2017.2.2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당신은무엇을먹고사십니까	선재 스님	불광출판사
2	성철평전	김택근	모과나무
3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4	수구즉득다라니	석법성	운주사
5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6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7	붓다컬러링(손끝으로 만드는 마음속평화)	매튜스미스	(주)조계종출판사
8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9	대방광불화엄경강설52(여래출현품3)	무비	담앤북스
10	내안에삶의나침반이있다	법상/용정운	아름다운인연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왕사의 깨달음과 원력행 계승을…



나옹왕사 불적답사길

현담 스님 지음
영덕불교문화발전연구원 펴냄
3만원

고려 말의 뛰어난 고승인 나옹선사(懶翁禪師, 1320~1376). 호는 강월헌(江月軒)인 선사는 나이 21세 때 문경 공덕산 묘적암 요연선사를 찾아가 출가했다.

전국 사찰을 편력하면서 정진하다 양주 천보산 회암사 석옹화상 회상서 크게 깨달음을 얻는다. 그 때 나이가 24세(1344년)이다. 이후 나옹선사는 원나라 연경으로 건너가 법원사서 인도승 지공선사의 지도를 받고 자선사 처림의 법을 잇는다. 광활한 중국을 주유하고는 공민왕 7년(1358)에 귀국한다. 오대산 상두암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으나 공민왕과 태후의 청이 하도 곡진해 설법과 참선으로 후학 지도에 나선 곳이 황해도 신광사이다. 이 무렵 중국의 홍건적은 쇠퇴해가던 고려를 향해 개경까지 침입해와 노략질을 일삼았고, 공민왕은 한때 노략질을 견디다 못해 남쪽으로 천도한 일이 있을 지경이었다. 나옹선사는 홍건적이 쳐들어와도 오직 설법과 참선 지도에만 전념해 선사의 위엄에 눌린 도적떼는 저도 모르게 부처님께 향까지 사르고 돌아갔다고 전한다.

나옹선사는 혼자라도 절을 지키겠다 다짐했는데 한 신인(神人)이 꿈에 나타나 선사에게 절을 지켜달라고 이른다. 과연 선사가 있는 신광사엔 홍건적이 나타나지 못하고 주위만 맴돌았다고 한다. 홍건적의 난이 진압되자 왕은 선사에게 '왕사 대조계종사 선교도총섭 근수본지 중흥조풍복국우세 보제존자' 라는 긴 이름의 벼슬을 내렸고, 왕은 또다시 불교계의 중흥을 부탁한다. 이때 선사가 불교중흥의 터전으로 삼은 곳은 순천 송광사였고, 마지막 원력을 펼치는 장으로 회암사를 찾았다.

나옹선사의 지도력은 적극적인 현실참여, 실천하는 선으로 지혜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앉아서 참구하는 수행법을 멀리하고 편력의 도정에서 중생을 만나고 제도했다. 염불은 곧 참선이라 했으니 〈가사문학총람〉에 수록된 선사가 지은 참선곡은 오늘까지 널리 수행의 지침으로 여겨진다.

나옹화상의 고향인 영덕군에서는 지난 2008년 7월 31일에 비영리 법인단체인 '나옹왕사 기념사업회'가 결성됐다. 고려 공민왕의 스승인 나옹왕사의 깨달음을 통한 대중교화의 큰 발자취를 계승



2008년 나옹왕사 기념사업회 결성
대승교화 큰 가르침 계승발전 목적
전국 사찰에 흩어진 발자취 답사
행장, 관련 학술지 발표글도 수록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나옹왕사 불적답사길〉의 저자 현담 스님〈사진 위〉도 사업회 위원으로 위촉돼 왕사의 깨달음과 중생교화 원력행을 가슴속에 새기게 됐다고 밝힌다.

머리말을 통해 저자이자 영덕불교사암연합회 회장 겸 서남사 주지인 현담 스님은 "영덕서 정진하는 수행자로서 고려시대 공민왕과 우왕의 스승인 나옹왕사의 불적답사순례길을 따라 전국을 순례하며 나옹왕사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불적답사로 신심을 다져 오늘 뜻 깊은 출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책에는 불적답사 순례사찰 일람을 비롯해 나옹화상의 행장, 북한 사찰을 비롯해 전국의 나옹왕사 관련 사찰의 역사, 나옹왕사 관련 학술지 발표 글들이 수록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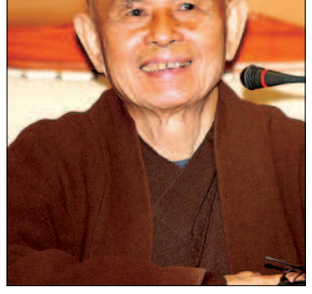
한편 저자인 현담 스님은 1989년 입산출가해 제방 선원서 수행 정진했으며 위덕대대학원서 불교학 철학박사를 취득했다. 또한 스님은 현재 영덕경찰서 경승, 포항교도소 종교위원, 나옹왕사기념사업회위원, 영덕지역사회복지위원, 불교문화발전연구원장, 영해318만세운동기념사업회 고문으로 활동하며, 불교포교와 수행 정진에 매진중이다. 저서로는 〈소통으로 가는길〉(2008년), 〈영덕폐사지불적답사와 불교현황〉(2014년), 〈불교신행성전〉(2015년), 〈그 깨달음의 언어〉(2016년)등이 있다. **김주일 기자**

"산처럼 앉아라, 어떤 바람도 산을 못 넘어뜨린다"

너는 이미 기적이다

틱낫한 지음 | 이현주 옮김 | 불광 펴냄/1만 6천원





세계인들에게 존경받는 영적 스승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낫한 스님〈사진 오른쪽〉. 〈너는 이미 기적이다〉는 스님의 여러 책과 글에서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정신적 깊이를 더해 주는 주옥같은 말씀 365개를 가려 뽑아 만든 선물 같은 책이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른 세상의 변화,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게 만드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다. 상시적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타인의 눈 밖에 날까 전전긍긍하며 자기 자신을 잃고 있다. 중심을 잃고 표류하는 우리에게 스님은 말한다. "한 그루 나무가 한 그루 나무로서 존재하는 그곳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 네가 너로서 존재하는 것이 곧 행동이다." 우리는 자기 아닌 다른 누구가 될 수도 될 필요도 없다. 존재 자체가 이미 기적이다. 이 책의 구절들을 매일 한 줄씩 읽고 숙고하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하루 몇 분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더없는 선물이자 휴식이다. 그 짧은 시간은 우리가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좋은 양분이 될 것이다.

틱낫한 스님 감로법문 365개 뽑아
깊은 통찰과 지구 향한 친절 담겨
스님의 전반적 사상 살펴볼 기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 자신이 염원하던 무언가가 이뤄지기를, 그리하여 꿈이 현실이 되기를 꿈꾼다. 왜일까? 자신이 비루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기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인생 그 자체는 비루하고 불행한 게 아닐 확률이 높다. 그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른 세상의 변화,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게 만드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잠시 길을 잃어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다. 상시적인 불안과 두려움에 포위된 채 타인의 눈 밖에 날까 전전긍긍하다 보니, 자기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주위의 좋은 것들을 실감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걸지도 모른다.

〈너는 이미 기적이다〉를 읽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생생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스님의 글이 우리를 그리로 곧장 데려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구절들을 매일 한 줄씩 읽고 숙고하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더없는 선물이자 휴식이다. 이 책을 읽는 건 단지 하루의 몇 분이겠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인생의 구심점, 소중한 것들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인생이 제 길을 찾아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틱낫한 스님은 불교와 명상에 대한 책뿐 아니라, 심리 치유와 어린이를 위한 책을 비롯해 우리 시대의 중요한 정치, 사회 문제에 답하는 책까지 모두 70여 권을 썼다. 각각이 모두 깊은 통찰과 지구를 향한 친절이 담겨 있는 소중한 책이다.

〈너는 이미 기적이다〉는 이 모든 책의 핵심이라 할 만한 문장들이 모여 태어났다. 이미 스님의 여러 책을 읽고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데 힘을 얻은 독자라 할지라도, 이 책을 통해 스님의 사상 전반을 고루 살펴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내 삶 돌아보면 언제나 스님이 서 계신다

스님의 정원

글 지문조 | 그림 희상 | 담앤북스 펴냄 | 1만 3천원





어릴 때부터 형인 하림 스님과 절에서 자란 저자가 큰 사랑으로 보살펴 주고 가르침을 준 은사 지하 스님의 희수연을 맞아 축하와 감사함에 보답하고자 이 책을 출간했다.

저자의 솔직하고 위트 넘치는 문장과 어릴 때를 회상하는 이야기는 읽는 이에게 환한 웃음을 주고 때로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안겨 준다.

BTN 우리들의 토크쇼 세상만사에 출연한 하림 스님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슴 따뜻하고 소중한 이야기로 저자의 눈을 통해 본 은사 지하 스님과 형 하림 스님 그리고 슬프기는 해도 아프진 않던 지난 날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글은 서른일곱 젊은 나이에 말썽꾸러기 어린 남자 아이 둘을 절에 데려와 건강하게 잘 키워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의 글이기도 하고, 스님과 함께한 날들을 돌아보며 속가에 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생각해 본 글이기도 하다."고 고백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民衆醫術)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심우선원 選佛場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 장소란 뜻으로 禪門의 宗主인 마조선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본 도량은 20여년간 "돈오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를 독려, 견성해탈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락치듯 돈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인 깊은 선정삼매를 통해 의정이 독로될 때 비로소 확철대오의 기연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법의 근원은 텅빈(空)의 자리에 있고 현대인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공도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침이란 "여실지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으로**(단지 중생의 눈으로 實相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 그것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의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고우스님이나 암도스님 같은 분들은 법문중에 자신의 경계를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분들의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성철스님은 지해종사(해오자)는 간판을 내려라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깨침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으로 올바로 깨치면 그 즉시 열반을 증득, 자기인가(證悟)를 체득하는 것이므로 최상승법을 다루는 일은 절대적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기 선지로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돈오견성, 해탈열반)체험으로의 여행에 수행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證悟" 왜 올바로 깨치면 自己認可 '究竟覺'를 성취하는 것인가 공부하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 깨달아 가는 전 과정을... 특히 깨닫는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또한 깨달은 후에 성성함 "깊은선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험되는 현상경계를 참구자에게 자세히 설해 드립니다.

문의 傳法講主 釋眞性 010-3045-008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12번지 심우선원
☎ 031-255-0066

재즈 선율 위에 흐르는 〈반야심경〉

찬불가 가수 강혜윤, 디지털싱글 '반야심경' 발매

국내 최초 산스크리트어로 노래
몽환적 · 청초한 멜로디 돋보여
완성도 높이려 발음 연습 매진
약사여래진언 보사노바곡 준비중

찬불가 가수 강혜윤이 7년 만에 디지털싱글 'Prajñ¤p¤mit¤Hṛdaya S¤tra(반야심경)'로 돌아왔다.

신곡 'Prajñ¤p¤mit¤Hṛdaya S¤tra'는 반야심경을 산스크리트어로 부른 노래다. 산스크리트어 반야심경과 재즈의 이색적 만남에 강혜윤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더해져 신비로우면서도 청초한 느낌을 자아낸다.

특히 중독성 있는 후렴구 'gate gate p¤ragate p¤sasaṃgate bodhi sv¤h¤(가떼 가떼 빠라가떼 빠라상가떼 보디 스와하)'와 몽환적인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이다. 작곡은 2집 'Samsara'를 프로듀싱했던 문성억 씨가 맡았다.

강혜윤은 2006년 1집 찬불가 '패랭이꽃과 나그네', 2집 찬불가 'Samsara'를 발표하며 주목받은 신예 찬불가 가수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서 불교를 전공하며 불교 공부에 매진하는 한편, 군부대 · 전국불교청년대회 · 어린이 찬불가 경연대회 등서 음성공양을 펼쳐왔다. 현재는 통일부, Arirang TV 등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도 활동 중이다.

강혜윤은 반야심경과 인연이 깊다. 1집에선 지허 스님 버전의 반야심경 한글 독경을 수록했으며, 2집에선 반야심경을 랩으로 해석한 순야타의 곡이 실렸다. 이번엔 강혜윤이 직접 산스크리트어로 반야심경을 노래해 더욱 의미 있다. 반야심경을 산스크리트어로 부른 것은 국내 최초라는 게 기획사 '연꽃의소리' 측 설명이다. 앨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강혜윤 씨는 산스크리트어 발음 연습에 매진했다고. 산스크리트어는 에드워드 콘즈(Edward Conz)의 연구서 표기에 따랐으며, 이동원 한국외대 강사의 감수를 받았다.

"짧은 기간이나마 산스크리트어를 배운 적이 있지만 막상 노래를 하려니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음을 제대로 살려서 노래해야만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발음 연습에 매진했어요."

이번 곡을 시작으로 강혜윤 씨는 다양한 만트라(진언)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이번 디지털싱글의 후속곡 'Medicine Buddha Mantra: Bhaiṣajyaguru Mantra(약사여래진언)'을 작업 중이다. 약사여래진언은 보사노바 스타일의 곡으로 다양한 국악기를 활용해 음악성을 더욱 가미시킬 계획이다.

재즈 선율 위 반야심경, 보사노바풍의 약사여래진언. 분명 평범하지 않은 시도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강혜윤 씨의 '베짱'은 어디서부터 시작일까. 이를 두고 강 씨는 '찬불가계 막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한다.

"청년들이 불교를 떠올릴 때 정형적이고, 고착된 이미지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불교도 충분히 자신만의 박자로 새롭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재즈란 장르를 선택한 겁니다. 어느 날 문득 들은 제 노래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환희심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제 역할 아닐까요?"

강혜윤의 새 디지털싱글 'Prajñ¤p¤mit¤Hṛdaya S¤tra(반야심경)'은 2월 16일 모든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박아름 기자



자장매, 통도사를 수놓다

2017 통도사성보박물관 기획전 '매화, 성보를 물들이다'

만물을 생동하게 하는 봄의 전령사, 매화의 향연이 펼쳐지는 통도사에서 자장매 향기에 가득 취해보는 것은 어떨까.

통도사성보박물관은 2017 기획전 '매화, 성보를 물들이다'를 마련하고 통도사 자장매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상춘객들을 맞이한다. 6명의 작가와 함께 총 3회에 걸쳐 매화의 장을 펼친다.

2월 첫 번째 전시는 김창한 작가의 '매화'로, 2월 18일~3월 10일 진행된다. 자장매를 중심으로 고매에 담긴 한국적 미의 원형과 근원적 아름다움을 유화와 아크릴로 표현, 현대적 이면서도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김 작가는 전시기간 중 영각 앞(또는 종무소 옆)에서 만개한 자장매화를 직접 그리는 시연을 펼친다.

3월 14일~4월 2일엔 차규선 작가가 '통도사에 매화 피니 삼라만상 거기 있네'를 주제로 전시한다. 통도사 매화를 분청사기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도자기 흙을 기본으로 고착안료 등을 혼합해 캔버스 표면에 바르는 독특한 작업 방식이다.

마지막 전시인 '매화, 묵향을 담다' 展에선 윤영석 · 김태완 · 이보배 · 이윤정 4명의 작가가 협연해 지는 매화의 여운을 문방사우로 화선지에 표현한다. 4월 8~30일 진행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음성포교사 인력 양성소' 찬불가 지도사 과정

동국대 평생교육원, 찬불가 지도사 과정 8기 개강



찬불가 지도사 과정에 참여 중인 수강생들 모습.

찬불가를 배울 뿐 아니라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지도사를 양성하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끈다.

찬불가 지도사 과정은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캠퍼스에서 운영 중인 불교음악 아카데미다. 전국 사찰 등에서 찬불가를 가르칠 지도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과정이다. 2013년 2학기 강형진 아카사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중심으로 개설된 후 2015년 2학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찬불가 지도사 민간자격증 승인을 받았다. 오는 3월 13일 8기 개강을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이 과정을 통해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찬불가 지도사는 17명이다. 몇몇은 이미 사찰에서 찬불가 지도를 시작했으며, 전문적 커리큘럼과 강사진의 실력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음성포교사' 전문 인력 양성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강형진 대표는 "그동안 불교음악의 전문화에만 치우쳐 대중화는 고려하지 못했다. 찬불가의 대중화를 위해선 실력 있는 지도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초부터 심화까지 꼼꼼하게 가르치는 찬불가 지도사 과정을 통해 더욱 많은 음성포교사들이 배출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찬불가 지도사 과정은 2급과 1급 과정으로 나뉜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진행되는 2급 과정은 △기초음악이론 △국악의 이해 △찬불가 역사의 이해 △불교와 음악 △기초지휘법 등을 배우며, 총 15강에 수강료는 45만원이다. 같은 날 오후 7시 열리는 1급 과정은 △찬불가 지도법 △심화 가창법 △Coaching Ensemble 등 보다 전문적이고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며, 총 15강에 수강료 50만원이다.

강사진은 불자이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교수들로 구성됐다. 국립교향악단 및 KBS교향악단 바이올린 주자 등을 역임한 강형진 총괄대표를 비롯해 이정화 주임교수, 차은선 · 이동원 · 강유정 · 박선영 교수 등 국내외서 고루 활동한 실력파 라인업이다.

이정화 주임교수는 "찬불가를 따라 부르기만 했던 보살님들이 전문적으로 배우며 누군가를 가르치니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것 같다"며 "앞으로 교육체계를 더욱 강화해 역량 있는 찬불가 지도사들을 많이 배출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차은선 교수는 "찬불가는 경전보다 부처님 말씀을 더욱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다. 찬불가가 포교의 핵심 수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교수진들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동국대 평생교육원은 찬불가 지도사 과정뿐 아니라, 누구나 쉽게 찬불가를 배울 수 있는 힐링스쿨 과정도 마련했다. 기초반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심화반은 같은 날 오후 7시 진행된다. 각 15강, 수강료는 40만원. (02)2260-3728 박아름 기자

고려불화, '문화예술의 메카' 뉴욕에 상륙하다

뉴욕한국문화재단, 4월 20일~5월 3일 '고려불화, 그 신비함과 화려함' 展

문화예술의 메카 뉴욕에 한국 불교미술의 꽃 고려불화가 상륙한다.

뉴욕한국문화재단(이사장 김지영)은 4월 20일~5월 3일 뉴욕 플러싱 타운홀에서 '고려불화, 그 신비함과 화려함' 전시를 진행한다. 해남 대흥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조이락 · 강창호 · 현승조 불화작가가 참여, 각각 10점 · 5점 · 5점 총 20점의 고려불화 모사(模寫)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고려불화만의 미와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마련됐다. 김형근 뉴욕한국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서양미술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고려불화와 고려사경, 그리고 작가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조이락 작가는 고려불화 중 최대크기의 수월관음도를 축소모사한 작품을 비롯해 양류관음도, 아미타내영도, 아미타삼존내영도, 지장보살도 등을 선보인다. 조 작가는 "서양화는 자기의 관념과 정서를 투영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불화 모사는 나의 것이 완벽히 배제돼야한다. 내 생각과 관념이 작품에 녹아들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강창호 작가는 아미타내영도 2점을 비롯한 총 5점의 고려불화를 전시한다. 대형 불화를 가로 36cm, 세로 60cm 크기로 축소모사하며 큰 작품이 뿜어내는 장엄함과 섬세한 필력을 고스란히 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전언이다.



수월관음도. 조이락 作, 2011, 비단, 159×94.5cm.

마지막으로 현승조 작가는 아미타설법도 · 지장삼존도 등을 소개한다. 특히 지장삼존도는 일본 일광사에 소장된 지장시왕도서 지장보살 도상을 가져오고, 일본 원각사에 있는 지장삼존도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도상을 가져와 한 폭의 비단 안에 표현, 새 작품을 탄생시켜 눈길을 끈다.

박아름 기자

수제 햄머 Hammer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특징 100%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세상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동 제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장인이 손수 망치로 두들겨 만든 햄머 제품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다른 제품들과 달리 우아하고 기품이 넘칩니다. 햄머는 코팅을 하지 않은 제품으로 자연적인 색깔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항균력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진 동, 햄머 제품은 대를 이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제조과정에서 오는 스크래치나 접합부의 땜자국 등 마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햄머의 동 제품은 수작업으로 광택 정도나 수구의 모양, 크기 모두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만들 때마다 같은 빛깔을 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하오니 주문시 참고 바랍니다.

S8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S800 유광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NY900 유광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드립퍼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39,000원~~ ➜ 89,100원

스푼



스푼 –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 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천년 이어온 애틋한 치유의 발원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④ 야쿠시지와 도쇼다이지


야쿠시지 건너편에서 담은 전경. 서탑 너머 수리 · 복원 중인 동탑이 보인다. 일본 국보인 동탑은 2020년 수리가 완공될 예정이다.

藥師寺, 황후의 치유 위해 건립
국보 동탑 수리… 2020년 완공
中감신 화상 건립·주석 唐招提寺
日 最古·最大 천수관음입상 눈길

야쿠시지(藥師寺)

도다이지(東大寺) 대불(大佛), 나라(奈良) 사슴공원, 고후쿠지(興福寺) 아수라상(阿修羅像) 등 나라하면 떠올려지는 상징물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내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연못 뒤에 나란히 있는 야쿠시지 쌍탑의 아름다운 풍경이다.

야쿠시지(藥師寺)는 개인 여행으로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 긴테쓰(近) 나라역에서 멀지 않은 니시노쿄(西ノ京)역에서 내리면 바로 야쿠시지가 나온다.

야쿠시지는 일본 천황이 황후를 위하여 건립한 최초의 사찰이다. 680년에 덴무(天武)천황이 황후의 병이 치유되는 것을 기원해 당시 건설 중이었던 후지와라쿄(藤原京)에서 야쿠시지 건립을 발원했다. 그러나 발원한지 6년 후 덴무 천황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황후는 황위를 계승해 지토(持統)천황이 되고 본존 약사여래의 개안(開眼)을 봉행했다. 698년에 손자인 몬무(文武)천황에 의하여 야쿠시지가 완성되고 710년에 수도가 헤이조쿄(平城京)로 천도된 것에 따라 야쿠시지도 718년에 현재 있는 위치로 옮겨졌다.

창건 이래 장려한 모습을 자랑했던 야쿠시지는 전란이나 화재로 황폐했고, 특히 1528년의 병화(兵火)로 동탑(東塔) 외에는 대부분 소실되었다. 1967년에 스님이 야쿠시지 재건을 발원하면서 금당(金堂), 서탑(西塔), 중문(中門), 회랑(回廊) 그리고 대강당(大講堂)이 복원되었다.

야쿠시지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창건 당시의 동탑(東塔, 국보로 지정)은 육중탑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삼중탑이고 작은 지붕이 '모코시(裳階, 일본건축 특유의 차양)'다. 동탑은 모코시 때문에 율동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그로 인해 '얼어붙은 음악(frozen music)'이라는 예술적인 애칭을 얻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 수리 중이라 볼 수 없고, 안내하는 스님에 따르면 2020년에는 수리가 끝날 예정이라고 한다. 동탑 창건 시기에 대해서는 후지와라쿄에 있던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인지 후지와라쿄에 있던 탑을 모델로 현재 위치에서 새로 지은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꽤 오랫동안 벌어졌다. 2016년 12월에 나온 신문 기사에 의하면 연륜 년대 측정으로 730년 무렵에 지은 것이라는 조사 중간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아무튼 야쿠시지가 장려한 하쿠호(白鳳, 6세기 중반~7세기 초) 가람인 것이 사찰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야쿠시지 금당에 들어가면 하쿠호시대의 최고(最高)일 뿐만 아니라 일본 불상 조각을 대표하는 국보 약사삼존상(藥師三尊像)을 만날 수 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약사여래좌상을 중심으로 일광(日光)보살, 월광(月光)보살이 있다.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의 허리를 비트는 육감적인 모습이 아스카시대의 불상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삼존불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다워서 하나씩 봐도 괜찮지만 삼존이 함께 있는 모습도 잘 조화되어 있어서 참 좋다. 약사여래좌상이 앉아 있는 대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스, 페르시아 문양, 사신(四神) 등이 조각되어 있어 당시의 국제 교류를 엿볼 수 있다. 동탑의 동쪽에 있는 동원당(東院堂)에 안치되어 있는 기품이 있고 예쁜 국보 쇼칸세온(聖觀世音)보살상도 놓치지 말고 실견하기를 권한다.

야쿠시지에는 가람이 더 하나 있다. 서유기(西遊記)로 유명한 스님 겐조산조(玄 三藏)의 분골(分骨)이 봉안되어 있는 겐조산조인(玄 三藏院) 가람이다. 야쿠시지 종파를 홋소슈(法相宗)라고 하는데 홋소슈가 겐조산조 스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종파라 붙여진 이름이다. 이 가람에 있는 대당서역벽화전(大唐西域壁畵殿)에서 히라야마 이쿠오(平山郁夫, 1930~2009) 화백이 그린 장대한 회화 실크로드를 볼 수 있다. 관람 가능 기간은 1/1~1/15, 3/1~6/30, 8/13~8/15, 9/16~11/30.


야쿠시지 금당의 본존불인 약사여래좌상. 본존불 옆에는 일광 · 월광 보살이 협시로 있다.


감진 스님의 주석처인 도쇼 다이지에는 중국 양주 명화인 경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도쇼다이지(唐招提寺)

야쿠시지에서 북쪽으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도쇼다이지에 이른다. 759년에 건립된 것이며 창건 시기가 야쿠시지와 다르지만 거리가 너무 가까워 이번에 동시에 소개한다.

도쇼다이지 개산조는 당나라에서 처음 정식으로 불교 계율을 전해준 유명한 스님 감진화상(鑑眞和上)이다. 대학 시절에 중국 문화 전공이었던 나는 중국인을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만나면 인사말처럼 감진 스님을 언급하는 중국인이 많았다. 이처럼 감진 스님은 중국과 일본 교류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도쇼다이지 소개는 감진 스님이 일본에 건너온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688년에 강소성(江蘇省) 양주(揚州)에서 태어난 감진은 14세에 출가했고, 26세에 계율 강의를 시작했다. 이후 강좌는 130회, 감진 스님이 수계를 내린 제자가 4만 명에 달했다. 아스카시대, 나라시대 초기의 일본 불교도 수계는 '자서수계(自誓授戒)'였으며 정식으로 스승을 모시고 의식을 갖춘 수계가 아니었다. 그래서 일본 스님은 신라나 당나라에 가면 승려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일본 스님들은 수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았다. 742년 감진스님이 양주 대명사(大明寺)에서 강의를 했다. 이때 감진 스님은 일본에서 파견된 유학승으로부터 계율을 세워줄 사승을 일본에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 후 스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더니 가겠다고 나서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감진 스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내가 가겠다고 결연히 말했다. 그 때 이미 스님의 나이는 55세였다.

도항은 다섯 번 실패했고 다섯 번째 도항 때는 감진 스님이 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753년 여섯 번째 도항 때 드디어 일본에 도달했고 754년에 헤이조쿄(平城京)에 도착했다. 감진 스님이 도다이지(東大寺) 대불전 앞에 계단을 만들어 쇼무(聖武)태상황을 비롯하여 400여 명 승속들에게 수계를 내렸다. 이것이 전계사(傳戒師)를 모시고 여법하게 치른 일본 최초의 수계이다. 감진 스님은 도다이지에서 5년을 지낸 후 칙명으로 받은 곳에 가람을 짓고 계율의 강의, 연구를 하는 도량을 만들었다. 도쇼다이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763년 5월 세납 76세로 감진 스님은 결가부좌한 채 세상을 떠났다.

경내 어영당(御影堂)에 국보 감진화상좌상이 안치되어 있다. 나라시대에 탈활건칠조법으로 제작된 이 작품이 일본 초상조각 작품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평소에는 볼 수 없지만 매년 6월 5일에서 7일까지 사흘만 공개한다. 여기의 장벽화도 유명하다. 히가시야마 가이이(東山魁夷, 1908~1999)화백이 10년을 들여서 완성한 장벽화는 일본 바다와 산, 감진 스님 고향인 양주와 중국 산수를 그린 것이다. 나는 아직 못 가봤지만 올해 6월에 꼭 가보고자 한다.

감진스님 이야기를 많이 했다. 도쇼다이지 답사는 남대문부터 시작하는데 남대문에서 들어가면 국보 금당의 위용에 압도당한다. 나는 이 금당을 너무 좋아한다. 금당 정면에 나란히 있는 8개의 기둥이 벽면 앞에 뻗어 나온 겹처마를 받치는데 기둥과 벽면 사이가 마치 회랑인 것 같고, 이 사이에 서서 보는 금당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경이다. 금당 내부에는 노사나불좌상(盧舍那佛坐像)을 중심으로 약사여래입상(藥師如來立像), 십일면천수관세음보살입상(十一面千手觀世音菩薩立像)이 봉안되어 있다. 이런 불상 배치는 드물어서 도쇼다이지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노사나불 앞에는 범천 · 제석천입상(梵天 · 帝釋天立像)이 있고 네 구석에는 사천왕입상(四天王立像)이 불상을 지키고 있다. 금당 불상이 모두 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천수관음입상은 일본 최고(最古) 최대의 천수관음입상이다. 큰 손 42개, 작은 손 911개가 있는데 정말 장관이다.

금당 주변에 있는 건물도 국보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경내 분위기도 좋아 즐겁게 답사할 수 있다. 특히 여름에 피어난 연꽃이 정말 예뻐서 많은 사람이 사진을 찍으려고 찾아간다. 나도 그 중의 하나이다.

글 · 사진=나카노 요코
감수=홍은미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부장

야쿠시지 · 도쇼다이지 주변 볼거리



오사카 난바(難波)역에서 니시노쿄역까지는 40분 정도이며 나라 답사 코스 중에서도 쉽게 갈 수 있는 편이다.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에서 한 번 갈아타야 하는 수고로움은 있다.

야쿠시지에서 도쇼다이지에 이어지는 길은 고도(古都) 나라(奈良)다운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하다.

야쿠시지와 도쇼다이지는 호류지처럼 답사 시간이 길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한 곳에서 대략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

도쇼다이지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수이닌(垂仁)천황의 묘가 있다. 여기서 20분 정도 더 걸으면 기코지(喜光寺)가 나온다. 기코지는 나라시대를 대표하는 명승인 교키(行基)스님에 의하여 721년에 창건된 사찰이다.

기코지에서 주택가가 이어지는 길을 따라 15분 정도 걸어가면 사이다이지(西大寺)에 도착한다. 올해 4월 15일부터 도쿄를 시작으로 오사카, 야마구치에서 나라 사이다이지전(西大寺展)이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 아이젠명왕좌상(愛染明王坐像)도 출품된다고 한다.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 불교 1분 명상

깨어있음 자체가 치유입니다

있는 그대로 두면 몸도 마음도 스스로 치유합니다.

아침에 해 뜨게 할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저절로 회복합니다.

무위(無爲)속에 마음을 쉬세요. 깨어있음 자체가 치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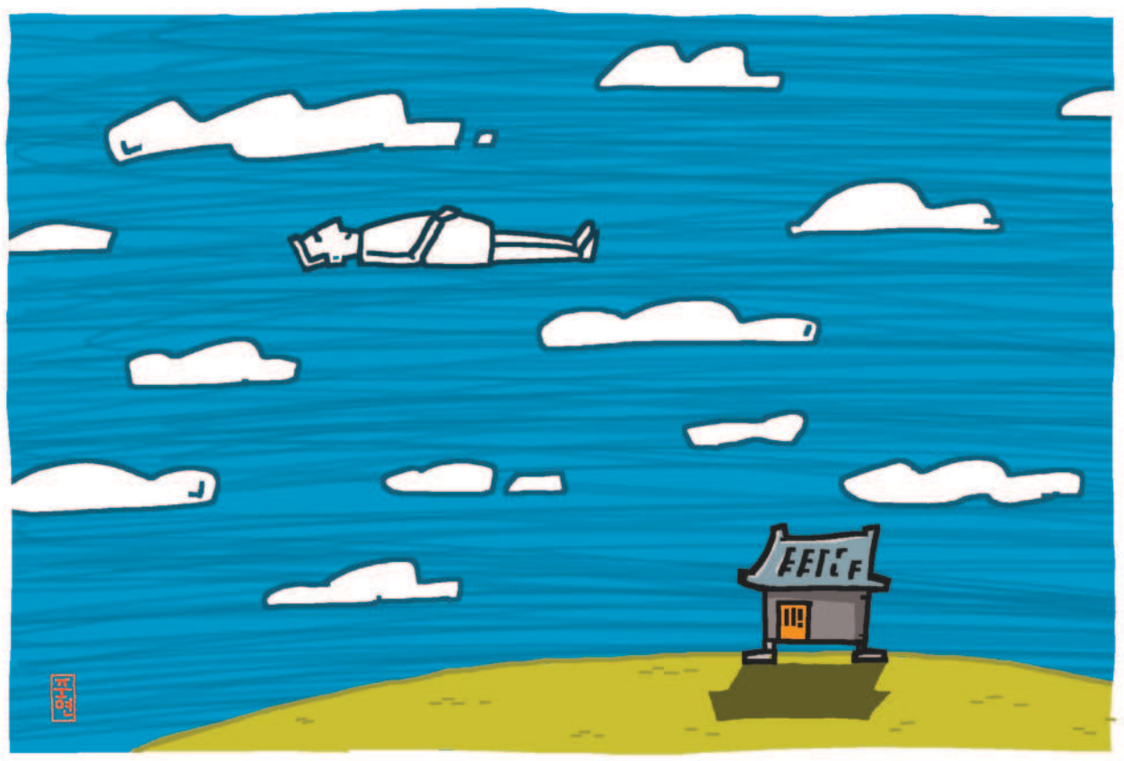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황선미(시인)

隨處作主, 내 삶의 주인공은 나

긍정 안테나는 삶의 큰 장점

'꽃길과 흙길' 이란 단어가 요즘 친숙해졌죠? 모 방송 프로그램처럼 진창의 흙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온유하고 향기로운 꽃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인연과 만사형통(萬事亨通)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본의 아니게 꽃길 대신 흙길을 걷기도 합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거나, 두려움 때문에 그릇된 길에 들어선 결과입니다.

'금수저' 니 '흙수저' 니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태생적인 한계를 규정짓는 이 말은 비판의 성격도 담겨 있지만, 이를 핑계로 인생의 목표와 진로를 일찌감치 포기한 채 스스로를 합리화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도 듭니다. 어떤 한계가 있더라도 자신의 장점을 잘 살펴서 극복해내야 하지 않을까요? 끝과 시작이 맞닿아 있듯이 희망과 두려움도 한 몸의 두 얼굴입니다. '장자궁자(長者窮子)의 비유' 는 두려움과 어리석음 때문에 꽃길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망치는 가난한 아들과 지혜로운 부자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금수저' 를 물고 태어나 '흙수저' 로 밥을 먹는 경우가 되겠군요. 불법의 가르침과 진정한 배움의 가치를 상기시켜주는 설화입니다.

부자아빠, 가난한아들

어릴 때 방황을 하다가 집을 나간 아들은 수십 년 동안 타향을 헤매고 다니며 구걸을 했습니다. 아들을 찾아다니며 장사를 하던 아버지는 어느 도시에 정착해 점점 부자가 되었습니다. 금 · 은 · 유리 · 산호 · 호박 · 진주 등 재물이 창고마다 가득 찼고, 코끼리 · 말 · 소 · 양도 넘쳐났습니다. 손님도 많아져 장자의 이야기는 여러 지방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손이 없어 자신이 죽으면 재산이 흩어질 것을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근심에 잠겨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아들이 돌아와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전해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거지 아들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우연히 아버지가 사는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자좌에 앉아 호화로운 의복을 입고 위엄을 갖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대문 밖에서 도망치려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지 아들을 한 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하인을 시켜 도망치려는 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아들은 누군가 강제로 자신을 데려가려하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놀라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본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아들을 억지로 데려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부귀한 모습을 아들이 두려워한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방편을 썼습니다. 아들을 그대로 보내놓고 초라한 행색의 두 사람을 아들에게 보내 친해지게 한 후 이런 말을 하게 했습니다.

"품삯을 곱으로 주는 곳이 있어. 그곳에서 거름을 치며 함께 일을 하는 건 어때."

거지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품삯을 먼저 받고 거름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보기에 아들은 몸이 야위고 초췌했습니다. 먼지와 더러운 거름이 묻은 모습은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들 곁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시오."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자 아들에게 품삯을 올려주면서, 게으르거나 속이거나 성내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일하는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호의를 베풀며 이름도 지어주었고, 양아들처럼 대했습니다. 결국 20년 동안 거름을 치던 아들에게 금은보화가 가득한 창고지기를 시켰지요. 장자는 죽을 때가 다가오자 친척들과 국왕과 대신, 지인들을 불러모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無知 극복하는 과정 우선해야
값진 불법 열매 얻을 수 있어
'자비희사' 로 긍정성 간직하면
굳건한 자세로 목표 달성 가능

"이 아이는 내 아들이오, 나의 모든 재산은 이 아이의 소유이며, 앞으로 내 아들이 알아서 관리할 것입니다."

아들은 그때서야 모시던 부자가 아버지였음을 깨달았고, 많은 재산을 순순히 물려받았습니다.

- 〈법화경〉 '신행품' 중에서

긍정의 안테나

부자 아버지는 부처님, 가난한 아들은 제자인 성문과 연각을 의미입니다. 화엄 · 아함 · 반야 · 법화의 가르침을 배울 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비유적으로 일깨워줍니다. 아들이 처음 아버지의 위엄을 보고 도망친 것은 〈화엄경〉을 설하실 때 두려워하는 중생의 근기를, 거름을 치는 머슴살이로 품삯을 받는 장면은 〈아함경〉을 설할 때, 창고지기로 살림살이를 맡아볼 때는 〈반야경〉을 설하실 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 부자가 되는 장면은 〈법화경〉을 설하실 때입니다.

가난한 아들이 이리저리 떠도는 시련의 시기는 배움의 길에 들어서는 입문식입니다. 학문과 배움이라는 꽃길에 들어서기에 앞서 무지(無知)를 극복하는 시련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거름치고 살림을 돌보는 과정은 배우는 과정이며, 그 결과 값진 재산인 불법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만약 아들이 머슴살이를 할 때 게으르고 남을 속이며 오만했다면 배움의 결실을 제대로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배움의 길에서 길을 헤매지 않기 위해서는 목표를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시기로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라질 직종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눈앞에 어떤 사안을 직면했을 때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문제 해결이나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평소 긍정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주변의 유혹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긍정의 안테나를 굳건히 세운다면 여러분의 삶에 큰 장점으로 작용하리라 확신합니다.

사무량심 꽃길

요즘은 평생교육시대로 배움은 생애의 전 과정에서 요구됩니다. 진로와 진학을 위한 공부는 두말할 나위 없고, 인생의 황혼기에 보다 즐거운 삶과 불교의 신행활동에도 반드시 필요한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사무량심(四無量心)의 꽃길' 을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사무량심은 자(慈) · 비(悲) · 희(喜) · 사(捨)의 네 가지 자비심을 말합니다. ①자무량심은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행복의 원인을 갖는 마음의 꽃길 ②비무량심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며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 ③희무량심은 모든 존재가 기쁨에 머물고 다시는 기쁨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④사무량심은 모든 존재가 좋은 것은 가까이 하고, 싫은 것은 멀리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평등심에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장자궁자의 비유에 나오는 거지 아들처럼 비록 흙길을 걷더라도 '배움의 길에서 마주한 입문의 과정' 이라 생각하며 겸허히 수용하길 권합니다. 그렇게 걷다보면 분명히 배움과 실천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성취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그림 족자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아 서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만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십장생이 들어간

16나한도 (18나한) 달마도 족자

작품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화백의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합니다.

■ 길이 : 120㎝ × 폭 54㎝ | ■ 가격 : 각 100,000원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지입니다. 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연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합니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 분 한 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이 영원한 수호신을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 16나한도를 구입하시면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드립니다.



16나한도



달마도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